

坡州文化

PAJU CULTURE 2007



21



파주문화원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위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的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 마다 文化的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的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正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파주시의 심벌

로고마크

G&G PAJU는『변화와 경쟁』을 통해 시민이 살기좋은 (Good) 도시, 품격이 높은(Great) 도시를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파주를 재창조하자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로고마크를 세계 공용어인 영문으로 표현한 것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자 함이며, 서체는 간결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도록 하여 파주시의 이미지가 쉽게 각인되도록 하였다.

원포인트 심볼은 파주만의 특징인 파주시의 지형과 임진강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물결모양은 활력이 넘치고 상승하는 미래를 나타낸 것이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곡선은 행복이 넘치는 편안한 도시를 의미한다.

상 징 물



꽃(코스모스)

매년 봄이면 자생하여 자라나는 파주의 대표적인 꽃이다. 생명력이 매우 강인하고 연분홍색, 붉은 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진 청초하고 아름다운 꽃으로서 파주시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삶"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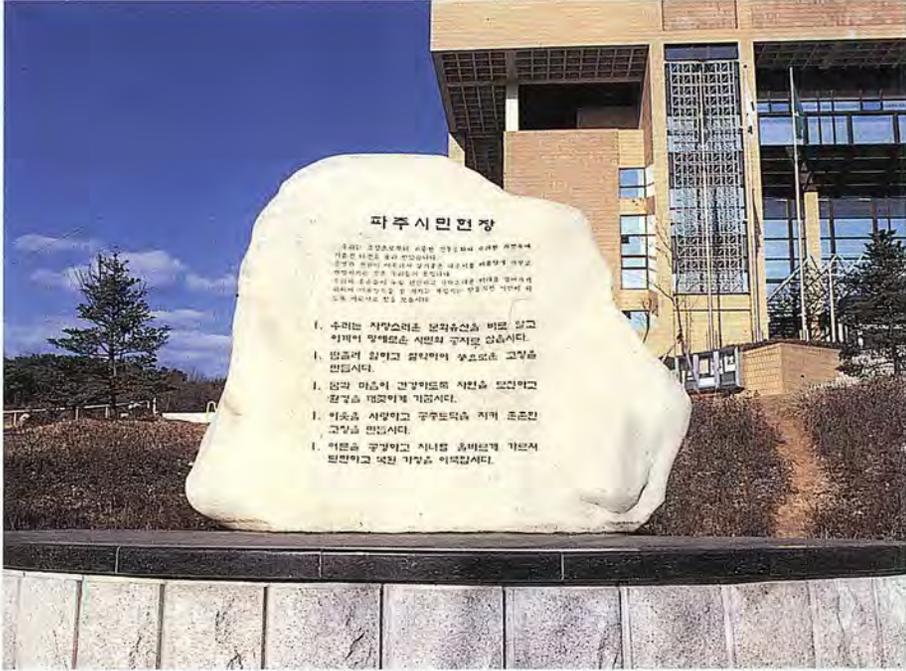
나무(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수형이 크고 아름다워 정자목, 풍치목, 가로수 등으로 많이 심는다. 양질의 목재를 얻을 수 있고, 잎과 열매는 유익한 약재로 활용된다. 역경을 이겨낸 장구한 수령의 웅대한 모습은 파주의 번영을 뜻하며 평안하고 안락한 도시로서 영원하기를 기원한다.



새(비둘기)

비둘기는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하며 부드러운 깃털을 가진 새이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시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뜻이 있다.



파주시민헌장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귀중한 전통문화와 수려한 자연속에 기쁨진 터전을 물려 받았습니다. 문명과 전원이 어우러져 살기좋은 파주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번영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와 후손들이 누릴 편안하고 자랑스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잘 지키고 책임지는 믿음직한 시민이 되도록 서로서로 힘을 모읍시다.

1.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아끼어 명예로운 시민의 긍지로 삼읍시다.
2. 땀흘려 일하고 절약하여 풍요로운 고장을 만듭시다.
3.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가꿉시다.
4. 이웃을 사랑하고 공중도덕을 지켜 훈훈한 고장을 만듭시다.
5. 어른을 공경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쳐 단란하고 복된 가정을 이룩합시다.

2007년 제21호

파주문화



파주문화원

〈 坡州文化院 目標 〉

1. 傳統文化 暢達
2. 坡州文化의 正體性 確立
3. 鄉土文化遺產 發掘 · 保存
4. 文鄉 坡州의 얼 繼承
5. 地域社會 教育

발간사



다사다난했던 파주의 문화와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파주문화」21호를 발간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의 유산과 존경스런 옛 성현들의 자취가 서려있는 민족 문화의 보고(寶庫) 파주는 예로부터 문향의 도시로 전통문화의 창달과 향토문화유산을 발전시키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조화롭게 이끌어 가치있는 삶을 만드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이룬 여러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坡州文化」지에는 임진강의 누정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임진강의 누정문화’가 특집으로 있으며, 특별기고로 정희왕후의 삶과 정치를 다룬 ‘조선왕조 수난을 겪은 여걸 정희왕후의 업적과 일화’, 파주의 대성현 이이선생의 사상을 다룬 ‘조선시대 율곡 이이의 경장론과 폐법의 고찰’이 실려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진정한 멋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향토의 맥’에서는 사라져가는 전통혼례를 다시 되돌아보고 혼인의 예를 생각해 보는 ‘혼인예식에서 신랑·신부 올바른 위치도’와 우리지역 지명의 옛이야기를 구수하게 들려주는 ‘용미리 지명유래’, DMZ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풀어낸 ‘파주의 새들’, 철학가이며 정치가이자, 훌륭한 교육자였던 공자의 사상을 엿보는 ‘君主役割論을 中心으로 考察한 孔子의 政治思想’이 향토애를 더욱 고취시켜 줄 것입니다. 기획 「파주시의 역사와 인물 문화」와 2007년의 문화예술행사를 정리한 단신, 경기도 북부에 뿌리를 둔 선조들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현대에 다시금 교훈을 주는 문화인물은 시민들께 현재를 살아가는 정신적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문향파주의 자랑스런 전통을 20여년간 이어온 「坡州文化」가 문화예술 가족들과 파주시민 여러분께 유용한 삶의 지혜를 제공하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坡州文化」제21호에 소중한 옥고를 제공해 주신 필자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07. 12

파주문화위원장 신춘범



Contents

발간사

파주문화원장06

화보

2007 파주문화 이모저모08

특집

임진강의 누정문화17

특별기고

조선왕조 수난을 겪은 여걸 정희왕후의 업적과 일화38

조선시대 율곡 이이의 경장론과 폐법의 고찰46

향토의 맥

혼인예식에서 신랑·신부 올바른 위치도59

용미리 지명유래67

파주의 새들68

君主役割論을 中心으로 考察한 孔子의 政治思想70

기획

파주시의 역사와 인물 문화77

파주문화원 발간 책자 목록82

문화단신

2007 문화예술 단신101

2007 이달의 문화인물124



표지 사진
2007 율곡문화제

파주문화21호 ▶

발행일: 2007년 12월 / 발행처: 파주문화원 / 발행인: 신춘범 / 인쇄: 승림디앤씨

※ 이 책은 비매품이며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 화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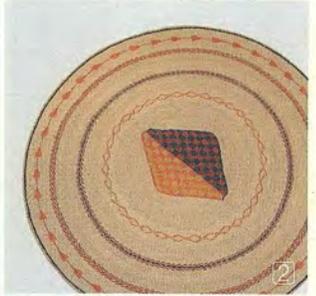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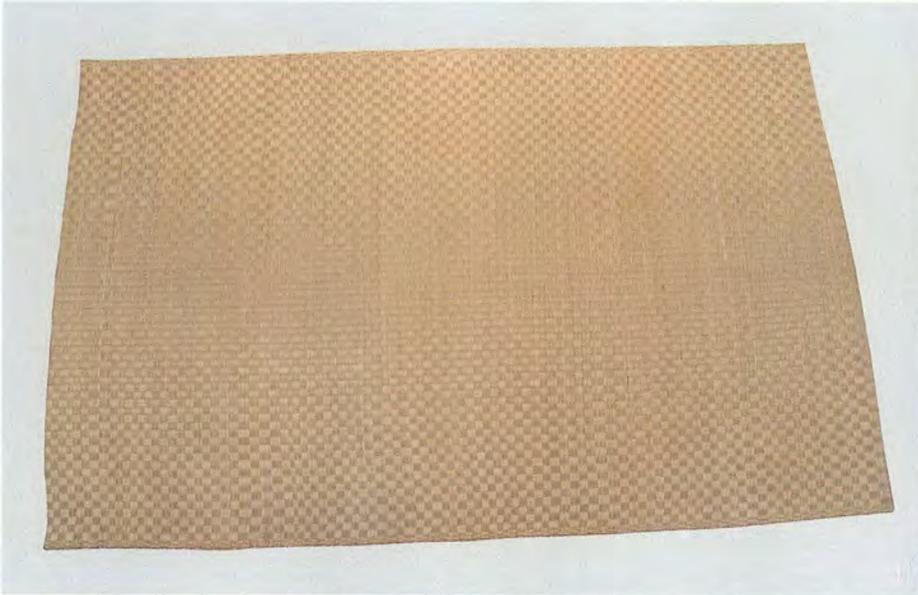
임진강민속축제



- ① 연날리기
- ② 널뛰기
- ③ 연날리기 풍경
- ④ 전통문화공예품전시회
- ⑤ 민속연 만들기
- ⑥ 줄다리기



Paju Culture 2007



짚풀 문화공예품
공모전

Paju
Culture
2007



- ① 대상 _ 왕골자리 : 성낙연
- ② 금상 _ 도래방석 : 이재환
- ③ 은상 _ 짚항아리 : 김영균
- ④ 은상 _ 도래명석 : 김명기
- ⑤ 은상 _ 짚신 : 원태복



| 화보 |



짚풀 문화공예품
공모전



- ① 동상 _ 짚뱀지 : 이규문
- ② 동상 _ 대청석 : 장춘금
- ③ 동상 _ 팔각정 : 심상균
- ④ 동상 _ 명석 : 심양섭
- ⑤ 동상 _ 명석 : 노월동



Paju Culture 2007



유적답사



Paju
Culture
2007



- ① 선진문화유적지순례(단체서당)
- ② 선진문화유적지순례 (창주 적지박물관)
- ③ 청소년유적지 순례(빙촌영당)
- ④ 청소년유적지 순례(자운서원)
- ⑤ 유교문화의 뿌리를 찾아서(공림)
- ⑥ 유교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공묘 대성전)



화보

울곡문화제



- ① 문예행사
- ② 경축전야제
- ③ 울곡사상국제학술회의
- ④ 개회식
- ⑤ 유가행렬 귀향례
- ⑥ 유가행렬



Paju Culture 2007



Paju Culture 2007



울곡문화제



2



3

- ① 선비복장 체험
- ② 마당놀이
- ③ 문화재사진전
- ④ 서예 퍼포먼스
- ⑤ 전통다례



4

Paju
Culture
2007



5

화보

Paju
Culture
2007



울곡문화제



- ① 수지침 무료봉사
- ② 울곡 이야기 전
- ③ 서원음악회
- ④ 염색체험
- ⑤ 다식만들기 체험



Paju Culture 2007



울곡문화제

Paju
Culture
2007



- 1. 추황제
- 2. 서각체험
- 3. 장원급제 퀴즈대회
- 4. 예타박기
- 5. 서각전시회



|| 화보 ||

Paju Culture 2007



Paju
Culture
2007



파주해님이축제



- ① 해님이콘서트1
- ② 소원적기
- ③ 타악 퍼포먼스
- ④ 소원풍선날리기
- ⑤ 해님이콘서트 2
- ⑥ 심학산 오르기



임진강과 누정문화



신춘범(파주문화원장)

〈목 차〉

- I. 머리말
- II. 기록속의 누정과 관련 인물들
- III. 누정과 시문학
- IV. 맺음말

I. 머리말

임진강은 古來로 파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이 제공해온 각종 산물들은 강변 사람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더해서 강이 선물한 주변의 비옥한 옥토는 질 좋은 농작물을 자라게 해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터전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더해서 붉은 적벽과 함께 주변의 때 묻지 않은 자연이 어우러진 임진강변의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광은 시인 묵객들의 발길을 갖게 만들었으며, 파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파주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왔다.

한국전쟁 이래로 인위적인 강제에 의해 그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잊지 못하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된 제한구역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왔던 임진강이 이제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남북간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임진강을 묶어왔던 각종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파주의 문화적 성장에 큰 축을 담당하리라는 일반의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임진강과 관련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곧 다가올 임진강에 대한 관리와 활용의 문제에 있어 기초적 자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임진강을 중심으로 위치한 각 누정과 관련 인물, 관련 시문학에 대한 자료의 취합과 둘러보기를 통해 이제껏 곁에 두고도 다가서기 어려웠던 임진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II. 기록속의 누정과 관련 인물들

기록상으로는 많은 수의 정자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지정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 화석정과 반구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명칭만 알려져 있을 뿐 대부분은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고 위치조차 확실하지 않다. 대략 경치 좋은 임진강변 일대일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자는 다음과 같다.

- 1) **임진정(臨津亭)** -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파주목읍지』에서 그 기록이 보이는데 파주 북쪽 17리 지점에 있는 임진도(臨津渡) 남쪽의 언덕에 그 터가 있다고 하였다.
- 2) **풍락정(豐樂亭)** -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에서 보이는데 파주 읍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 3) **현종대(顯鐘臺)** - 적성면 주월리에 있는 육계토성의 북면 임진강에 면해 있다. 고려 궁궐지에 있던 종루였다는 기록이 『적성현지』에서 보인다.
- 4) **이사정(二泗亭)** - 파주읍 백석리에 위치하였다 한다. 신태동(辛泰東)¹⁾이 퇴관 후 아들 신치복²⁾이 파주목사로 있던 때에, 백석산 남맥 절벽 아래에 정자를 세워 고령산과 장지산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한다 하여 이사정이라 이름짓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지금도 백석리에는 정자동이라 자연 부락 명칭이 남아 있다.
- 5) **내소정(來蘇亭)** - 『파주목지』에 “임진도 하류의 남안에 있다” 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문산읍 장산리의 임진강가에 있는 정자산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이 정각(亭閣)은 거창부원군(居昌府院君) 신승선(愼承善)의 5대손 제창군(濟昌君) 신득의(愼得義)가 축조한 것으로, 숙종 때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이조판서 남용익(南龍翼)이 이곳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며 읊은 「임진강 팔경시」가 현재까지 남아 전해지고 있다.

*신승선(愼承善) : 1436(세종 18)~1502(연산군 8).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거창(居昌)이며, 자는 자계(子繼)·원지(元之), 호는 사지당(仕止堂)이다. 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 진(諡)이며, 연산군의 장인이다.

1) 1846년생. 본관 평산. 고종(高宗) 10년(1873) 계유(癸酉)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2위로 급제했다.

2) 생물연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영월(寧越)이다. 벼슬이 지돈녕부사에 이르렀으며 문산읍 이천리에 묘가 있다.

1454년(단종 2) 사마시에 급제하고 돈녕부승(敦寧府丞)이 되고, 정랑 등을 거쳐 1466년(세조 12) 1월 병조참지, 같은해 3월 문과중시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뒤 병조참판에 승진, 그해에 다시 발영시(拔英試)에 3등으로 급제하고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겸임하였다. 1467년 이조참판 겸 예문관제학, 공조참판, 1468년 다시 병조참판이 되었다.

1468년(예종 즉위년)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1471년(성종 2) 성종등위에 끼친 공으로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에 각각 녹훈되었다.

1472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거창군(居昌君)이 되고, 1476년 4월~8월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79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1481년 행동지돈녕부사(行同知敦寧府事)를 거쳐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이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겸임하였다.

1484년 세자빈객(世子賓客)을 겸대, 1486년 병조판서 겸 특진관(兵曹判書兼特進官), 이듬해 딸이 세자인 연산군의 빈(嬪)으로 뽑히자 그를 계기로 좌참찬, 1488년 한성부판윤, 1489년 예조판서, 1491년 사소대장(四所大將)을 겸대, 이조판서가 되었다가 1492년 병으로 사직하였다. 1494년 우의정, 1495년(연산군 1) 좌의정·영의정, 1497년 3월 거창부원군(居昌府院君)에 봉해졌다.

1495년 4월~1499년 2월에 걸쳐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로서 《성종실록》의 편찬을 주관하였다. 세종의 4남인 임영대군(臨瀛大君) 구(璆)의 딸 사이에서 수근(守勤)·수겸(守謙)·수영(守英)을 두었다. 시호는 장성(章成)이다.

***남용익(南龍翼):** 1628(인조 6)~1692(숙종 18).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의령이며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곡(壺谷)이고, 부사 득명(得明)의 아들이다.

1646년(인조 24) 진사가 되고 1648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시강원설서·성균관전적과 삼사를 거쳐, 병조좌랑·홍문관부수찬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고, 잠시 경사도사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삼사로 돌아왔다.

1655년(효종 6)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관백(關白)의 원당(願堂)에 절하기를 거절하여 음식 공급이 중지되고, 여러가지 협박을 받았으나 굴하지 않았다.

이듬해 돌아와 호당(湖堂)에 뽑혀 들어갔고 문신증시에 장원, 당상관으로 진급하여 형조·예조참의, 승지를 역임하고 양주목사로 나갔다.

현종 때는 대사간·대사성을 거쳐 공조참판을 빼고는 전 참판을 지냈으며, 잠시 외직으로 경상·경기감사로 나갔다가 형조판서에 올랐다.

1680년(숙종 6)부터 좌참찬·예문관제학을 역임하고, 1689년 소의장씨(昭儀張氏)가 왕자를 낳아 숙종이 그를 원자로 삼으려 하자, 여기에 극언으로 반대하다가 명천으로 유배되어 3년 뒤 그곳에서 죽었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효종·현종·숙종 3대에 걸쳐 청화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문명을 날렸으나 즐거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늘 근신하고 근면하였다.

저서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 인조대까지의 명인 497인의 시를 모아 엮은 《기아 箕雅》 및 《부상록 扶桑錄》, 그리고 자신의 시문집인 《호곡집》을 남겼다.

6) 칠송정(七松亭) - 『적성현지』에 보인다. (二川) 위 큰길 옆에 어대사(魚岱沙)라는 흙으로 이루어진 둔덕이 있는데, 이를 칠송정이라 하였다. 고려 태조가 왕래했던 곳이며,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정했을 때 쉬던 곳이다. 위치는 탄현면 갈현리로 추정되는데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가 광해군 때 낙향하여 은둔하였던 곳이라고도 한다.

*이경여(李敬輿) : 1585(선조 18)~1657(효종 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직부(直夫), 호는 백강(白江)·봉암(鳳巖)으로 목사 수록(綬祿)의 아들이다.

1601년(선조 34) 사마시를 거쳐,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1611년 검열이 되었으나, 광해군의 실정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취임하였고,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에 호종하고, 이어 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의 종사관이 되었으며, 1630년(인조 8) 부제학·청주목사·좌승지·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모시고 남한산성에 피란하였다.

이듬해 경상도관찰사가 되고, 그뒤 이조참판으로 대사성을 겸임하여 선비양성의 방책을 상주하였고, 이어 형조판서에 승진하였다.

1642년 배청친명파로서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계(李桂)가 청나라에 밀고함으로써 심양(瀋陽)에 억류되었다가 이듬해 세자와 함께 귀국하여 우의정이 되었다.

1644년 사은사로 청나라에 갔다가 다시 억류되었으나, 그동안 본국에서는 영중추부사라는 벼슬을 내렸다.

이듬해 귀국, 1646년 민회빈강씨(愍懷嬪姜氏 : 昭顯世子嬪)의 사사(賜死)를 반대하다가 진도에 유배되고, 다시 1648년 삼수에 위리안치 되었으나, 이듬해 효종이 즉위하자 풀려나와 1650년(효종 1)에 다시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이어 영의정으로 다시 사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뒤 청나라의 압력으로 영중추부사로 전임하였다.

시문에 능하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부여의 부산서원(浮山書院), 진도의 봉암사(鳳巖祠)와 흥덕(興德)의 동산서원(東山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백강집》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7) 은행정(銀杏亭) - 『과주목읍지』에 과주의 서쪽으로 15리에 위치하며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같은 이름으로 『연천현읍지』에도 보이는데 현의 동쪽으로 7리에 있으며 이양소(李陽昭)의 노후 휴거지로서, 지금도 은행나무가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양소(李陽昭) : 고려말의 문인이자 충신으로, 은일지사(隱逸之士)이다.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여건(汝健), 호는 금은(琴隱)이며,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이다. 문과에 급제한 뒤 사예를 거쳐 군수를 지냈다.

고려말 이방원(李芳遠 : 뒤의 태종)과 함께 곡산(谷山) 청룡사(靑龍寺)에서 공부하고, 성균관에도 같이 있었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여러 차례 벼슬을 주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종이 즉위한 뒤 그의 고려에 대한 충절을 높이 사, 그가 숨어 사는 산을 청화산(淸華山)이

라 부르고 살 집을 주었다.

죽을 때에 스스로 명징(銘旌)에 '고려진사이양소지구'(高麗進士李陽昭之柩)라 쓰고 죽었다. 태종이 장지(葬地)를 지정해주고 무덤에는 수총군(守塚軍) 4호를 두게 했다. 시호는 청화(淸華)이다.

- 8) **일송정(一松亭)** - 몽구정의 상류에 위치하였고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가 은둔하였던 곳으로서 한 그루의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정자가 자리잡은 곳은 고령산과 장지산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합류되어 굽이쳐 흐르는 광탄 어귀로 경치가 아름답고 한적한 곳이다. 지금의 파평면 두포리로 추정된다.

***박세채(朴世采)** : 1631(인조 9)~1695(숙종 21).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이다. 본관은 반남.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남계(南溪)이고 아버지는 흥문관교리 의(漪)이며, 어머니는 신흠(申欽)의 딸이다. 소론의 영수로 당쟁의 근절을 위해 노력했고, 당대의 유종(儒宗)으로 특히 예학(禮學)에 밝았다.

1649년(인조27)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다. 1650년(효종 1) 성균관 유생들이 이이(李珣)와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했을 때, 영남의 유생유직(柳稷)이 반대 상소를 올리자 여러 유생들과 함께 유직의 상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효종이 비답(批答)에서 박세채를 꾸짖자, 이것을 계기로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은거하여 경학에만 전념할 뜻을 세웠다. 1651년 김상헌(金尙憲)·김집(金集)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주로 성리학을 연구했고 송시열과도 교류했다. 1659년 천거로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가 되었다. 그해 5월 효종이 죽고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가 일어나자, 자의대비가 3년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 남인에 반대하고 송시열·송준길 등과 함께 1년간만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예경기년설(禮經莦年說)을 지지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고 남인이 집권하여 기년설을 주장한 서인들이 축출당할 때 삭탈관직당하고 양근·지평·원주·금곡 등지에서 6년간 유배생활을 했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다시 기용되어 집의·이조참의·대사헌·이조판서·우참찬 등을 지냈다.

1683년 송시열이 태조의 위화도회군을 존주대의(尊周大義)라 하여 시호를 높일 것을 주청한 것을 계기로 송시열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고, 이때 송시열·김석주·김익훈 등을 추종하는 사람은 노론으로, 박세채·조지겸·한태동 등을 따르는 사람은 소론으로 나누어졌다. 그는 윤증 등 소론계 학자들과 함께 학문교류 및 정치활동을 했다. 1689년 소의장씨(昭儀張氏)의 회빈 책봉문제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야인생활을 했으나, 1694년 갑술옥사 이후 우의정·좌의정 등을 두루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그의 학문은 당쟁의 격화와 중화적(中華的) 세계관의 동요하는 당시의 시대상황 속에서 당쟁의 근절을 위한 탕평론과 사회적 규범의 확립을 위한 예학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소론의 영수가 되었지만, 봉당의 화가 나라의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파당적 대립의 폐단을 지적하고 탕평론을 제시했다. 노론·소론의 대립과정에서 <황극탕평론 皇極蕩平論>을 발표한 것은 그러한 예였다. 한편 그의 학문적 업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예학은 양란 이후 심화된 조선왕조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인 강상(綱常)의 확립이라

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당시 당쟁과 관련되면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예송(禮訟)의 문제는 이러한 입장에서 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였다. 즉 성리학의 심화과정에서 예의 의식적·자율적인 준행을 강조하는 추세와 함께 중화적 세계가 무너지는 위기의식 속에 도통(道統) 수호와 이적 배척 및 강상의 재건이 필요해진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박세채가 도통수호를 위해 <이학통록보집 理學通錄補集>·<동유사우록 東儒師友錄> 등을 저술하여 중국 유학의 학통과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현들의 도학 연원을 밝히고, 이단을 비판·배척하기 위해 <양명학변 陽明學辨>·<천리양지설 天理良知說> 등을 저술하여 양명학의 이론을 날날이 비판했던 것도 이와 관련된다.

그의 예학은 당시 성리학자들의 예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실천적인 사회규범으로서의 가례식(家禮式)의 사례(四禮)에 관한 것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다. <가례요해>·<가례외편>·<남계예설> 등 숙종 때에 편찬된 그의 예서는 주로 관혼상제의 사례에 관한 것들이었다. 또 <소학>·<근사록>·<대학>·<중용> 등 유교경서의 난해한 구절을 해설하는 한편 정주(程朱)의 해설을 토대로 <춘추>를 보완·저술하기도 했다. 박세채의 저술은 그의 유학사·정치사의 위치를 대변하듯이 실로 방대하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범학전편 範學全編>·<시경요의>·<춘추보편>·<남계독서기>·<대학보유변>·<심경요해 心經要解>·<학법총설 學法總說>·<양명학변>·<남계수필록>·<심학지결 心學至訣>·<신수자경편 新修自敬編>·<육례의집 六禮疑輯>·<삼례의三禮儀>·<사례변절 四禮變節>·<가례요해>·<가례외편>·<남계예설>·<동유사우록>·<주자대전습유> 등이 있다. 문묘(文廟)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 9) 원사정(遠思亭) - 신지강의 상류에 그 터가 있다고 하는데 적성면 구읍리 관골 북서쪽의 임진강 변으로 추정된다. 진사 경유후(慶有後)³⁾가 인목대비의 유폐시에 세상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했다고 『적성군읍지』에 전한다.
- 10) 강선정(降仙亭) - 적성면 주월리 임진강의 북안에 있는 밭 사이에서 초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조의 왕과 신하들이 신선이 내려올 정도로 경치가 좋은 곳이라 하여 이곳에서 즐겼다는 기록이 『적성현지』에 보인다.
- 11) 청원정(淸遠亭) - 신지강 상류 언덕에 있으며 지금은 폐해졌다고 『적성현지』에 기록되어 있다.
- 12) 몽구정(夢鷗亭) - 웅담리에서 흘러내리는 늘노천과 우계(牛溪)가 합류하여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어귀에 세워졌다. 성담수(成聃壽)가 계유정남 이후 이곳에서 은거하였다고 하며 파평면 두포리 임진강 가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파평면 파평초등학교 서쪽의 임진강안 석벽 위에 있었다고 하며 두포리의 자연부락인 장포동에 몽구정터가 있었다고 전한다.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워 중국의 소선적벽(蘇仙赤壁)과

3)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경섭(慶濂)의 아들이다. 광해군(光海君) 4년(1612) 임자(壬子) 증광시(增廣試)에 생원(生員) 3등(三等) 24위로 급제했다.

비교되었으며 장단적벽(長端赤壁) 중에서도 이 정자가 위치한 파주적벽(波州赤壁)이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다는 기록이 『적성현지』에 보인다.

*성담수(成聃壽) : ?~1456(세조 2). 단종을 위하여 수절한 생육신의 한 사람.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이수(耳叟), 호는 문두(文斗). 아버지는 교리 회(煇)이며, 성삼문(成三問)의 재종제이다. 천성이 조용하고 담박하여 세간의 명리에 욕심이 없었다.

1456년(세조 2) 성삼문 등 사육신이 단종복위를 도모하다가 실패하여 처형되자, 그의 아버지 회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연좌되어 혹독한 국문을 받고 김해에 안치되었다가 3년 뒤에 풀려나서 공주에 돌아왔으나, 마침내 충분(忠憤)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진사에 합격하였으나, 이 일에 충격을 받아 벼슬을 단념하고 선영이 있는 파주의 문두리에 은거하였다. 단종복위와 관련된 죄인의 자제에게는 전례에 따라 참봉벼슬을 제수하여 그들의 거취를 살폈는데,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직역(職役)에 복무하였으나, 그만은 끝내 벼슬하지 않고 시와 낚시질로 소일하였다.

1782년(정조 6)에 김시습(金時習)·원호(元昊)·남효온(南孝溫) 등과 함께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세상에서 김시습·이맹전(李孟專)·원호·조려(趙旅)·남효온·성담수 등을 생육신이라 일컬어 함안의 서산서원(西山書院)에 함께 봉향하였다.

창녕의 물계서원(勿溪書院)에 성송국(成松國)·성삼문·성수침(成守琛)·성운(成運)·성제원(成悌元)·성혼(成渾) 등 성씨일문의 여러 현인들과 함께 제향되고 있다. 시호는 정숙(靖肅)이다.

13) 취옹정(醉翁亭) - 『적성현지』에 그 이름이 보인다. 현의 서남쪽으로 2리 지점인 청학동(靑鶴洞)에 있는데 이곳의 청학폭포 사이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이민(吏民)들이 재목을 모아 정자를 지어 더위를 피하였다고 하며 취옹정이라 하였다. 지금의 적성면 마지리로 추정된다.

14) 수월정(水月亭) - 『적성현지』에 화석정의 상류에 위치한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그 위치는 백학면 구미리의 어느 곳으로 추정된다.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이곳에 정자를 건립하고 소일하였다고 한다.

*권근(權近) : 1352(공민왕 1)~1409(태종 9).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안동. 어렸을 때 이름은 진(晉). 자는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 할아버지는 검교시중 문정공(文靖公) 고(皐)이고, 아버지는 검교정승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 정간공(靖簡公) 회(僖)이다. 이성계의 새 왕조 창업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개국 후 각종 제도정비에 힘썼다. 그의 사상은 이황의 사단칠정론에 영향을 주었으며, <예기>를 중시하여 강상의 확립을 통한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1368년(공민왕 17) 성균관시, 다음해 문과전시에 급제했다. 우왕(1374~88 재위) 초년에는 박상충(朴尙衷)·정도전(鄭道傳)·정몽주(鄭夢周) 등과 같이 명나라와 잘 지내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북원(北元) 사절의 영접을 막으려고 하다가 이인임(李仁任) 등 친원파의 뜻에 거슬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뒤 예문응교·좌사의대부·성균대사성·예의판서를 지냈으며, 1380년과 1385년 2번에 걸쳐 성균관시(成均館試)를 맡았다. 1388년(창왕 즉위)에는 성균관시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이은(李垕) 등을 뽑았다. 과거에 합격한 뒤 항상 지제조(知製敎)를 겸임하였다. 1389년 윤승순(尹承順)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때 명의 황제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 국왕을 삼음’ [以異姓爲國王]을 문책한 자문(咨文)을 도당(都堂)에 올리기 전에 미리 뜯어보아 대간의 탄핵을 받고 우봉(牛峯)에 유배되었다.

1389년 공양왕 즉위 후에도 계속하여 영해·흥해·김해 등을 옮겨다니면서 유배생활을 계속했으며, 1390년에는 윤이(尹彝)·이초(李初)의 옥사에 연루되어 청주 옥에 갇히기도 했다. 뒤에 다시 익주(益州)로 유배되었는데, 이때 유배생활을 하면서 <입학도설 入學圖說>을 저술했다. 이후 풀려나 충주에서 살다가 조선왕조의 개국을 맞았다.

1393년(태조 2) 왕의 부름을 받고 계룡산 행재소로 가서 새 왕조의 창업을 칭송하는 노래를 짓고, 왕명으로 태조의 아버지인 환조(桓祖)의 비문을 지었다. 이후 새 왕조에 출사하여 예문관춘추학사 겸 대사성·중추원사 등을 지냈다. 1391년에는 표전(表箋)문제로 자칭하여 명에 갔다. 이때 유삼오(劉三吾)·허관(許觀) 등 명나라 학자들과 사귀면서 경사(經史)를 강론했고, 명나라 태조의 명으로 응제시(應題詩) 24편을 지어 문명을 떨쳤으며, 외교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여 조선과 명의 관계를 호전시켰다.

다음해 3월 귀국하여 헌사(憲司)의 탄핵을 계기로 스스로 진정진(陳情箋)을 올려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고 화산군(花山君)에 봉해졌다. 정종대에는 정당문학(政堂文學)·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대사헌 등을 지내면서 오랜 폐단이었던 사병제도의 혁파를 건의하여 이를 단행함으로써 왕권 확립에 기여했다.

태종대에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1401년(태종 1) 추충익대좌명공신(推忠翊戴佐命功臣) 4등으로 길창군(吉昌君)에 봉해지고, 예문대제학 겸 성균대사성이 되었다. 다음해 지공거가 되어 신표(申曉) 등을 뽑았고 1405년 의정부찬성사가 되었다. 1406년 유학제조(儒學提調), 1407년 예문관대제학이 되었으며 동시에 최초의 문과 중시(重試)에 독권관(讀券官)이 되어 변계량(卞季良) 등 10명을 뽑았다. 그동안 경연을 비롯한 각 관각(館閣)의 실질적 주권을 독점하다시피 했으며, 세자 책봉 뒤에는 세자 좌빈객이사(左賓客貳師) 등을 겸임했다.

한편 왕명을 받아 경서의 구결(口訣)을 저정(著定)하고 하륜(河崙) 등과 <동국사략 東國史略>을 편찬했다. 또 유학제조로 학식(學式)을 저정하여 유생의 독서를 규율하였으며, 권학사목(勸學事目) 8조를 올려 문교시책의 시정과 보완에 크게 이바지했다. 1409년(태종 9) 58세로 사망하였다.

그는 이(理)와 기(氣), 심(心)과 성(性), 정(情)과 의(意),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등을 이물(二物)로 보는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여 이황의 사단칠정론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서(四書)에 못지 않게 오경(五經), 특히 <예기 禮記>를 중시하여 조선초 강상(綱常)·삼강과 오상) 확립을 통한 왕권강화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입학도설>·<오경천견록 五經淺見錄>·<경서구결 經書口訣> 등 유가류와 <동국사략>·<동현사략 東賢事略> 등의 역사책과 시문집인 <양촌집> 40권 등이 있으며, 정도전의 척불문자(斥佛文字)인 <불씨잡변 佛氏雜辨>에 주석을 더했다. 뒤에 세조대에는 보조공신 좌의정 길창부원군(補祚功臣左議政吉昌府院君)으로 훈증(勳贈)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5) **울포정(栗浦亭)** - 적성면 울포리 울포 앞의 임진강 가에 있었다고 한다. 인조 때 정승 학곡(鶴谷) 홍서봉(洪瑞鳳)이 세우고 이곳에서 시를 읊으며 놀았다고 전한다.

***홍서봉(洪瑞鳳)** : 1572(선조 5)~1645(인조 2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휘세(輝世), 호는 학곡(鶴谷). 할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 춘경(春卿)이며, 아버지는 도승지 천민(天民)이다.

1590년(선조 23) 진사가 되고 159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600년 사서가 되고 이어서 정언·부수찬, 1602년 이조좌랑, 이듬해 성주목사를 역임하였다. 경기도 암행어사로 다녀와 1606년 사제가 되고 1608년(광해군 즉위년) 중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한 뒤 사성·옹교를 역임하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610년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었는데 김직재옥사(金直哉獄事)에 장인인 황혁(黃赫)이 연루되어 사직 당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을 주동,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익녕군(益寧君)에 봉해졌다. 병조참의·이조참의·대사간·동부승지·부제학·대사헌·병조참관을 차례로 역임하고 1626년 도승지가 되었으며, 1628년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을 고변, 영사공신(寧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지의금부사가 되었다.

예조판서를 거쳐, 1630년 다시 대사헌이 되어 흉년으로 안팎이 곤궁할 때 사치가 심함을 지적, 이의 시정을 진언하였다. 이어서 우참찬·이조판서·좌빈객·병조판서를 역임하고 1634년 다시 예조판서가 되어 부묘도감제조(附廟都監提調)를 겸하였다.

이듬해 좌참찬·대제학이 되고, 1636년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었는데 그해 겨울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화의(和議)를 주장, 최명길(崔鳴吉)·김신국(金愼國)·이경직(李景稷) 등과 청나라 군사진영에 빈번히 내왕하며 화의를 위한 실무를 수행하였다.

1639년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지고, 이듬해 영의정에 올라 한재(旱災)로 인한 기민(饑民)의 구제를 위하여 부민(富民)들에게 실직(實職)을 주어 모속(募粟)할 것을 주장하였다.

1640년부터 1645년까지 영의정과 좌의정을 번갈아 역임하며 복잡한 대내외 사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국왕을 보필하였는데, 1645년(인조 23) 청나라에서 귀국한 소현세자(昭顯世子)가 급사하자 세손을 잇는 것이 상도(常道)임을 들어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인조의 의사에 반대하였다.

일찍이 시명을 떨쳐 《청구영언》에 시조 1수가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6) **청계정(聽溪亭)** - 파평면 두포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청송(聽訟) 성수침(成守琛)이 웅담에서 샘내를 거쳐 흐르는 맑은 냇물과 임진강 변의 조수물이 오르내리는 무정산 절벽 아래 정자를 세우려 학문에 전념하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고 한다.

***성수침(成守琛)** : 1493(성종 24)~1564(명종 19). 조선 중종·명종 때의 성리학자.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중옥(仲玉), 호는 청송(聽松)·죽우당(竹雨堂)·파산청은(坡山淸隱)·우계한민(牛溪間民).

대사헌 세순(世純)의 아들이다. 아우 수중(守琮)과 함께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1519

년(중종 14)에 현량과(賢良科)에 천거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와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처형 또는 유배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청송이라는 편액을 내걸고 두문불출하였다. 이때부터 과업(科業)을 폐하고 《대학》과 《논어》 등 경서공부에 전념하였다.

1541년 유일(遺逸)로서 후릉참봉(厚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처가가 있는 우계(牛溪)에 은거하였다.

1552년(명종 7) 내자시주부(內資寺主簿)·예산현감(禮山縣監)·토산현감(兔山縣監)·적성현감(積城縣監)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1564년 사지(司紙)에 임명되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하였으며, 죽을 때에는 집안이 가난하여 장례를 지낼 수가 없었다. 이에 사간원의 상소로 국가에서 관곽(棺槨)과 미두(米豆)와 역부(役夫)를 지급하여주고 사헌부집의에 추증하였다.

조선 초기에 성리학의 토착화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하는 도학사상으로 나타났거니와 이들은 대의명분과 오순(堯舜)의 지치(至治)를 현실에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묘사화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은일(隱逸)을 일삼고 산간에 묻혀 자기수양에 힘써 이러한 학풍을 몸소 실천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아들 혼(渾)을 비롯한 많은 석학들이 배출되었다.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파주의 파산서원(坡山書院)과 물계(勿溪)의 세덕사(世德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청송집》이 있으며, 글씨를 잘 썼는데 <방참판유령묘갈 方參判有寧墓碣>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 17) **침류정(沈流亭)** - 군내면 정자리의 덕진강과 정자포에 인접하였다. 오천(梧川) 이종성(李宗城)이 이곳 임진강과 오천이 합류하여 덕진산 암벽에 부딪혀 휘돌아가는 강언덕에 정자를 건립하고 자주 내왕, 은거하였다고 한다.

***이종성(李宗城)** : 1692(숙종 18)~1759(영조 35). 조선시대 영조 때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고(子固), 호는 오천(梧川). 항복(恒福)의 5세손으로, 좌의정 태좌(台佐)의 아들이다.

1711년(숙종 37) 진사가 되고, 1727년(영조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3일 만에 예문관설서가 되었다. 이듬해 경연(經筵)의 전경(典經)으로 시독관 박문수(朴文秀)와 함께 봉당 200년의 폐를 논하였으며, 그해 경상도암행어사가 되어 민폐를 일소하였으며, 이인좌(李麟佐)의 출가한 자매가 문경에 갇혀 있음을 보고 그 부당함을 상소하여 석방하게 하였다.

그뒤 부수찬·헌납·수찬·교리 등을 거쳐 1729년 불법 수령 적발의 사명을 띠고 다시 영남어사로 파견되었고, 함경남도에서 이어 북도안집어사(北道按集御史)로 다녀와 응교가 되었다. 1731년 관서어사로 파견되어 양덕현감 남윤관(南胤寬)을 파직시키고, 개천군수 홍태평(洪泰平), 맹산현감 이희하(李喜夏), 황주목사 이성제(李誠躋)에게 포상할 것을 상소하였다.

1733년 승지·대사간·이조참의를 거쳐 대사성이 되었고, 이듬해 홍문관부제학이 되어 양역(良役)의 폐를 상소하였다. 1735년 다시 이조참의가 되어 용전(用錢)의 편리함을 논하고, 이듬해 탕평책에 반대하다가 파직되었으나 다시 기용되어 경기도관찰사·동지의금부사가 되었다. 1738년 이조참판, 1741년 부사직, 1742년 충청도관찰사를 거쳐 1744년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이어서 예조판서·형조판서·대사헌·개성부유수, 1749년 지둔령(知敦寧)·우빈객(右賓客)을 역임하고 1752년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세자의 처벌에 적극적이었던 김상로(金尙魯) 등의 간계로 영의정을 사직하였다. 1753년 관중추부사, 1757년 내의원봉상시도제조(內醫院奉常寺都提調)가 되었다. 이때 인원대비(仁元大妃: 숙종계비 김씨)의 상을 당하여 의례의구조(疑禮儀九條)와 종묘 혼전(魂殿)의 예의칠조를 올려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1758년 영중추부사가 되어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잘 보살폈다.

장조(莊祖)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저서로는 《오천집》이 있다. 시호는 효강(孝剛), 후에 문충(文忠)으로 개시(改諡)되었다.

- 18) 동락정(同樂亭) - 문산을 문산리(현 동락사 자리)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조은(鈞隱)박은(朴聞)이 퇴임 후 이곳 배내와 광탄천이 합류하여 흐르는 문산포 위의 좌평산 서맥인 백운산 끝머리로 송림이 우거진 곳에 정자를 건립하고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박은(朴胤) : 1370(공민왕 19)~1422(세종 4). 고려말·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양지(仰之), 호는 조은(鈞隱). 고려말의 학자인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상충(尙衷)의 아들이며, 이곡(李穀)의 외손이다. 전법판서(典法判書) 주언방(周彦邦)의 사위이며, 어효첨(魚孝瞻)의 장인이다.

문음(門蔭)으로 판승복도감사(判崇福都監事)를 받은 뒤, 1385년(우왕 11) 문과에 2위로 급제하여 권지전교시교감(權知典校寺校勘)·후덕부승(厚德府丞)을 거쳐 1391년(공양왕 3)에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 이듬해에 개성부소윤(開城府少尹)이 되었다.

조선왕조가 개창된 뒤에도 지금주사(知錦州事)가 되어 고과(考課)에 정최(政最)의 성적으로 좌보궐(左補闕)에 서용되고, 1394년(태조 3) 지영주사(知榮州事)로 있을 때 태조의 다섯째 아들 방원(芳遠)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1397년 사헌시사(司憲侍史)를 거쳐 이듬해에 발생한 무인정사(戊寅靖社), 즉 제1차왕자의 난 때에는 지춘주사(知春州事)로서 방원의 집권을 위하여 지방군사를 동원하였다. 이어 사헌중승(司憲中丞)·판사수감사(判司水監事)를 지내고 1400년(정종 2) 지형조사(知刑曹事)로 있을 때 발생한 제2차왕자의 난에서 역시 방원을 도와 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방원이 왕세자가 된 1400년에는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으로 그를 보필하고,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에 오른 뒤 1401년 태종의 즉위 후 중용되어 형조·호조·병조·이조의 4조 전서(典書)를 두루 역임하고, 좌명공신(佐命功臣) 3등으로 반남군(潘南君: 뒤에 潘城君)으로 봉하여졌다.

그 뒤 강원도도관찰출척사(江原道都觀察黜陟使)·한성부윤·승추부제학(承樞府提學)을 역임하고, 1406년(태종 6) 전라도관찰사로 있을 때는 제주도의 동불(銅佛)을 구하러 온 명사(明使)를 예의로 잘 접대하여 칭송을 받았으며, 이듬해에 진향사(進香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참지의정부사 겸 사헌부대사헌에 올랐다. 이어 형조판서에 옮겼다가 1409년에는 서북면도순문찰리사 겸 평양부윤으로 평양성 축성을 마쳤다.

1412년에는 관향인 반남이 나주에 속하게 되어 금천군(錦川君)으로 개봉되었으며, 겸판의용순금사사(兼判義勇巡禁司事)가 되어 옥무(獄務)의 신장정수(訊杖定數)를 1차 30인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시행하였고, 1414년 이조판서 때에는 고공(考功)행정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듬해에는 47세의 나이로 우의정이 되어 소년입각(少年入閣)의 예에 들게 되었으며, 이어 부원군으로 진봉되고 좌의정 겸 판이조사에 올랐다. 충녕대군(忠寧大君)이 세자로 책봉될 무렵부터 심온(沈溫)과 대립되어 1418년(세종 즉위년) 심온의 옥사 때에는 심온의 반대되는 입장에서 관여하였다는 세평을 듣고 있다.

1421년 병으로 좌의정을 사직하고 이듬해에 죽었다. 문과 초시에서 강경(講經)을 채택하도록 강력히 주장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초시에 제술(製述)을 주장하는 권근(權近)·변계량(卞季良)의 학통과 다르다. 시호는 평도(平度)이다.

19) 삼호정(三湖亭) - 문산읍 내포리 임진강 변에 위치하였으며, 성염조(成念祖)가 은거하였다고 한다.

*성염조(成念祖) : 1398(태조 7)~1450(세종 32).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자경(子敬). 엄(揜)의 아들이며, 석린(石璘)의 손자이다.

1414년(태종 14) 진사에 급제하고, 1419년(세종 1)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감찰·정언·지평(持平), 이조·예조의 정랑, 장령·집의를 지내고, 승정원의 동부승지와 도승지를 거쳐 이조참판, 외관으로 경상도관찰사, 병조·형조의 참판, 한성부판사, 개성부유수에 올랐으나 말년에 병으로 사임하고 중추원지사에 임명되었다. 나이 53세로 일생을 마쳤다. 시호는 공혜(恭惠)이다.

20) 은향정(銀香亭) - 광탄면 창만리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지봉(芝峯) 황보인(皇甫仁)이 광탄 어귀 만장산 북맥의 끝머리 집 근처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 정자를 세우고 시와 경치를 즐겼다고 한다.

*황보인(皇甫仁) : ?~1453(단종 1).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영천(永川). 자는 사겸(四兼)·춘경(春卿), 호는 지봉(芝峰).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임(琳)의 아들이다.

문음(門蔭)으로 벼슬에 나가 내자시직장(內資寺直長)·사헌부감찰을 역임하였고, 1414년(태종 14)의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418년(세종 즉위년) 좌정언이 되었고, 1420년 좌헌납이 되었으며, 1422년에는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으로서 강원도경차관으로 파견되어 기근을 규찰한 뒤 귀환하여 곧 장령이 되었다.

1425년 1월 한성소윤(漢城少尹) 재임 중 경상도찰방으로 파견되었으며,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를 거쳐, 1428년 집의가 되었다. 이듬해 승정원동부대언(承政院同副代言)으로 발탁되고 좌부대언을 거쳐 1430년에는 지신사(知申事)가 되었다.

이듬해 강무행행(講武行幸) 중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마(人馬)가 살상되자 이에 대한 문책으로 파면되었다가 같은해 형조참의로 복직되었으며, 이어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1432년 형조좌참판·병조우참판을 역임하였다. 같은해 10월부터 다음해 1월에는 사은사(謝恩使) 정효전(鄭孝全)의 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33년 판중추원사 하경복(河敬復), 형조판서 정흠지(鄭欽之), 예문관대제학 정초(鄭招) 등과 함께 진서(陣書)를 찬진(撰進)하였고, 이듬해 병조참관을 거쳐 1436년에 병조판서가 되었다. 1440년 평안·함길도도체찰사로 파견되고 같은해 의정부좌참찬 겸 관병조사(議政府左參贊兼判兵曹事)가 되면서 국왕으로부터 대소행행(大小行幸)에 항상 호종하라고 할 정도로 아낌을 받았다.

1441년 함길도에 파견되어 종성을 수주(愁州)강변으로 이치(移置)하면서 종성·회령·온성·경원·경흥 등지에 소보(小堡)를 설치하여 북방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이후 빈번하게 평안도와 함길도를 출입하면서 김종서(金宗瑞)와 쌓벽이 되어 북변을 개척하고 방어하는 데 공헌하였다. 1445년 좌찬성으로 판이조사(判吏曹事)를 겸임하고, 1447년 우의정이 되었다.

그뒤 1449년 의정부의 직에서 해임된 뒤 양계축성(兩界築城)의 일에 전념하겠다고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아 우의정에 유임하면서 축성사를 관장하였으며, 같은해에 좌의정이 되었다. 1450년(문종 즉위년) 사은사로 부사 김효성(金孝誠)과 함께 명나라에 파견되었다가 문종의 고명(誥命)을 받고 귀환하였으며, 이듬해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가 되었다.

1452년(단종 즉위년) 빈전(殯殿)·국장(國葬)·산릉도감(山陵都監)의 총호사(總護使)가 되어 문종의 국상을 총령하였고, 이듬해에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로서 감춘추관사 김종서 등과 함께 《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같은 해에 계유정난으로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鄭奔), 우찬성 이양(李穰), 이조판서 조극관(趙克寬) 등과 함께 문종의 유명(遺命)을 받아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중 피살되었다. 오랫동안 신원(伸冤)이 되지 못하다가, 1705년(숙종 31) 7월 한성부판윤 민진후(閔鎭厚)의 상소를 계기로 김종서와 함께 복관(復官)이 논의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뒤 1719년 후손이 전조(銓曹: 吏曹)에 서록(敍錄)됨으로써 부분적으로 신원되었고, 1746년(영조 22) 복관되면서 완전히 신원되었다. 그뒤 1758년에는 충정(忠定)의 시호를 받았다. 1791년(정조 15) 장릉(莊陵: 端宗陵) 충신단(忠臣壇)에 배식(配食)되고, 1804년(순조 4) 집앞에 정문이 세워졌으며, 1807년 조상의 묘를 옮기지 않는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받았다. 영천의 임고서원(臨臯書院), 구룡포읍의 경남서원(慶南書院), 종성의 행영사(行營祠)에 제향되었다.

21) 낙환정(樂選亭) - 조리면 봉일천리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팔여거사(八餘居士) 김정국(金正國)이 기묘사화 이후 이곳에 정자를 건립하고 저술과 후진양성에 힘썼다고 한다.

*김정국(金正國) : 1485(성종 16)~1541(중종 36).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의성.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 아버지는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 연(璉)이며, 어머니는 양천허씨(陽川許氏)로 군수 지(芝)의 딸이며, 안국(安國)의 동생이다.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이다. 10세와 12세에 부모를 다 여의고, 이모부인 조유향(趙有享)에게서 양육되었다.

1509년(중종 4)에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514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이조정랑·사간·승지 등을 역임하고, 1518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 다음해 기묘사화로 삭탈관직되어 고양(高陽)에 내려가 팔여거사(八餘居士)라 칭하고, 학문을 닦으며 저술과 후진교육에 전심, 많은 선비들이 문하에 모여들었다.

1537년에 복직, 다음해 전라도관찰사가 되어 수십조에 달하는 편민거폐(便民去弊)의 정책을 건의, 국정에 반영하게 하였으며, 그 뒤 병조참의·공조참의를 역임하고,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540년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가 뒤에 예조·병조·형조의 참관을 지냈다. 성리학과 역사·의학 등에 밝았다. 문인으로는 정지운(鄭之雲) 등이 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장단(長湍)의 임강서원(臨江書院), 용강(龍岡)의 오산서원(鰲山書院), 고양의 문봉서원(文峰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사재집》을 비롯하여, 《성리대전절요 性理大全節要》·《역대수수승통입도 歷代授受承統立圖》·《촌가구급방 村家救急方》·《기묘당적 己卯黨籍》·《사재척언 思齋摭言》·《경민편 警民篇》 등이 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 22) **청은정(淸隱亭)** - 미촌(美村) 윤선거(尹宣擧)가 곡릉천이 흐르고 조수가 오르내리는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세우고 교하 향교 훈도로 임하면서 인재양성과 저술에 힘썼다고 한다. 금릉리의 서원말 서북쪽 동산에 있었다고 하며 제자들이 이 정자터에 신곡서원을 건립하고 배향하였으나 후에 훼손되었다.

***윤선거(尹宣擧)** : 1610(광해군 2)~1669(현종 10).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길보(吉甫), 호는 미촌(美村)·노서(魯西)·산천재(山泉齋).

아버지는 대사간 황(煌)이며, 어머니는 창녕성씨(昌寧成氏)로 혼(渾)의 딸이다. 문거(文學)의 아우이며, 증(拯)의 아버지이다. 김집(金集)의 문인으로 1633년(인조 11) 식년문과에 형문거와 함께 급제하였다.

1636년 청나라의 사신이 입국하자 성균관의 유생들을 규합, 사신의 목을 베어 대의를 밝힐 것을 주청하였다. 그해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이듬해 강화도가 함락되자 처 이씨(李氏)가 자결하였으나 평민의 복장으로 탈출하였다. 1651년(효종 2) 이래 사헌부지평·장령 등이 제수되었으나, 강화도에서 대의를 지켜 죽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김집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성리학과 예학(禮學)에 잠심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이 경전주해(經傳註解) 문제로 윤희(尹鑄)와 사이가 나빠지자, 평소 윤희와 친교가 깊었고 그의 재질을 아끼는 마음에서 변호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교분이 두터웠던 송시열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뒤에 노소분파의 한 계기가 되었다.

유계(兪槩)와 함께 저술한 《가례원류 家禮源流》·《후천도설 後天圖說》 및 이에 관하여 유계와 논변한 편지를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영춘(永春)의 송파서원(松坡書院), 영광(靈光)의 용암사(龍巖祠), 노성(魯城)의 노강서원(魯岡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노서유고》 26권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23) **노정(盧亭)** - 탄현면 갈현리 구포에 있었다고 한다. 보진재(保眞齋) 노사신(盧思愼)이 정자를 세우고 집필에 힘썼다고 하며 교하 노씨의 정자라는 의미로 노정이라 불렀다. 일명 영벽

정(影碧亭)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노사신(盧思愼)** : 1427(세종 9)~1498(연산군 4).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교하. 자는 자반(子胖), 호는 보진재(葆眞齋)·천은당(天隱堂). 할아버지는 좌의정 한(閑)이고, 아버지는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물재(物載)이다. 세종에서 성종 때까지 사서편찬과 번역사업에 공헌했으며, 유자광(柳子光) 등과 함께 무오사화를 주도했다.

1451년(문종 1) 생원시, 1453년(단종 1)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학사가 되었다. 집현전부수찬·성균관직장·예문관응교를 지냈으며 1459년(세조 5)에는 세자우문학이 되었다. 이어 지평·세자좌문학·동부승지를 거쳐, 도승지·홍문관직제학이 되었다. 1465년 호조판서와 충청도기관찰사(假觀察使)를 겸했다. 1466년 발영시(拔英試)와 등준시(登俊試)에 모두 합격했다. 1467년 명(明)의 군대와 함께 건주위(建州衛)정벌에 나서 군공2등(軍功二等)을 받았다.

1468년 유자광의 고발로 남이(南怡)·강순(康純) 등이 반역음모를 했다고 처단된 뒤 추충정난익대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으로 선성군(宣城君)에 봉해졌다. 1469년 우참찬·좌참찬·우찬성을 지냈으며, 1470년(성종 1)에는 좌찬성으로 이조판서를 겸했다. 1471년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했다는 공으로 좌리공신(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76년 영돈녕부사가 되었고, 1482년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에 봉해졌다. 1485년 영중추부사로서 진휼사 겸 호조판서가 되었다. 1487년 명 효종(孝宗)이 즉위하자 등극사(登極使)로서 명에 다녀왔다. 이듬해 우의정·영안도체찰사(永安道體察使)가 되었다. 1492년 좌의정을 지내고, 1495년 영의정이 되었으나 과거시험에 처족을 합격시켰다는 탄핵을 받아 물러났다.

1498년(연산군 4) 이극돈(李克墩)·유자광과 같이 무오사화를 주도했으나 “조정에는 청류(清流)의 의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옥사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무오사화 때의 공으로 연산군으로부터 노비 13명, 밭 100결 등을 상으로 받았다. 옥사가 진행되는 중에 병으로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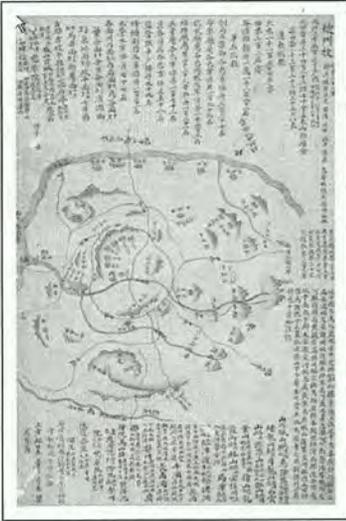
글을 잘하여 명성이 있었다.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강론할 때 사리를 분별하여 대답하는 데 막힘이 없어 세조가 그와 밤중까지 토론하기를 즐겼으며, 세조가 “활달함이 제일이다”라고 칭찬했다. 노비문제로 소송이 닳던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가난한 것을 알고 소송을 취소하고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 아량을 보이기도 했다. 또 명의 사신 강호(姜浩)의 접반사(接伴使)가 되었을 때 강호가 예절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를 존경했다.

〈경국대전〉·〈동국여지승람〉·〈동국통감〉·〈삼국사절요〉 등의 편찬과 〈향약집성방〉의 국역에 참가했다.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24) **봉암정(鳳岩亭)** - 『장단읍지』에서 기록하기를 현에서 남으로 10리인 하도면에 있었다고 하며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25) **육선정(六仙亭)** - 『장단읍지』정관(亭館)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에서 동으로 20리에 있는 장서면의 용산(龍山)에 있었으며 지금은 석대(石臺)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26) 불환정(不換亭) - 『장단읍지』정관조에 현의 남쪽으로 10리 지점인 상도면의 낙하(洛河)에 있었으며 '지금은 폐허이다' 라는 기록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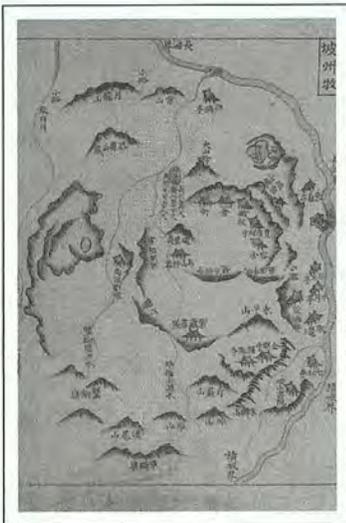
▲ 해동지도 중 파주목



▲ 해동지도 중 장단도후부



▲ 해동지도 중 적성현



▲ 광여도 중 파주목



▲ 광여도 중 장단부



▲ 광여도 중 적성현

Ⅲ. 누정과 시문학

1. 花石亭 八歲賦詩

임진강을 끼고 있는 정자들과 연관된 시들이 다수 보이는데, 그 중 특히 화석정은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다. 화석정은 1974년 9월 26일 경기도유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겹처마의 초익공(初翼工) 형태로 지어진 조선시대 양식을 따른 건물이다.

원래 고려 말 대유학자인 길재(吉再)의 유지(遺址)였던 자리라고 전해지나 자세한 문헌 기록은 없다. 그 후 1443년(세종 25) 율곡 이이(李珣)의 5대 조부인 강평공(康平公) 이명신(李明晨)이 세운 것을 1478년(성종 9) 율곡의 증조부 이의석(李宜碩)이 보수하고 몽암(夢庵) 이숙함이 화석정이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이숙함의 정자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 때 재상 이덕유(李德裕)의 별장인 평천장(平泉莊 :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함)의 기문(記文) 중에 보이는 “花石”을 따서 정자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후 이이(李珣)⁴⁾가 다시 중수하여 여가가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고 관직을 물러난 후에는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왜구의 침공에 대비해 10만양병설을 주장한 이이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선조가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 가던 한밤중에 강을 건너기 위해 이 정자를 태워 불을 밝혔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하다. 그 후 80여 년간 빈터만 남아 있다가 1673년(현종 14)에 이이의 증손인 이후지(李厚址)·이후방(李厚坊)이 복원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 때 다시 소실되었다.

현재의 정자는 1966년 경기도 파주시 유림들이 다시 복원하고 1973년 정부가 실시한 율곡 선생 및 신사임당 유적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단청되고 주위도 정화되었다.

건물에는 ‘화석정’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으며 율곡선생이 8세때 지었다는 ‘팔세부시’가 내부에 걸려있다.

〈 八歲賦詩 〉

— 李珣

林亭秋已晚 숲 속 정자에 가을이 깊었으니
騷客意無窮 아유하는 나그네의 뜻은 끝이 없으며
山吐孤輪月 산은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하고
江涵萬里風 강은 멀리 바람을 머금고 불어오네
遠水連天碧 먼 강물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霜楓向日紅 서리맞은 단풍은 햇빛에 더욱 붉고
塞鴻何處去 변방의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지
聲斷暮雲中 모든 소리는 저녁구름 속에 가려지네

4) 율곡 이이(栗谷 李珣:1536-1584), 조선중기의 대학자이자 정치가,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별호는 석담(石潭), 자는 숙헌(叔獻)이며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강릉에서 태어났으며 사헌부 감찰 원수(元秀)와 사임당 신씨사이의 아들이다.

2. 來蘇亭 八景詩

내소정은 居昌府院君 愼承善의 5대손인 제창군 신득의가 임진강변에 건립했다고 하는 강변의 정자로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내소정 팔경시>는 호곡 남용익 선생의 『壺谷集』에 담긴 연시로 경기감사를 지내면서 임진강 내소정에서 바라본 8대 절경을 풍취를 한껏 살려 7언 절구로 노래하였다.

〈來蘇亭「八景詩」〉

— 南龍翼

화석정춘(花石亭春)

花石亭前花事新 화석정 앞의 꽃이 새로워
獨來吟賞有閒人 나그네 홀로와서 시를 읊으니
幽芳舉世無相識 그윽한 꽃향기 서로 알지 못해
可惜先生去後春 애석하다 선생님 가신뒤의 봄이구나

장암수군(場岩垂釣)

垂釣春灣百尺臺 봄날 강어귀 높은 곳에 낚시줄을 드리우고
得魚將慾沽深盃 고기를 잡으면 장차 큰술잔 사려고 하였는데
傍人不解吾心事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심사 알지도 못하고
漫道桐江物色來 거짓말로 동강에서 색다른 물건이 온다하네

송암청운(松巖靑雲)

何處炎雲點點浮 여기저기 뭉게구름 점점 뜨는데
遠山如畫恰盈頭 먼산 그림같이 봉우리 솟구쳐있네
橫遮望眼知多意 겹눈으로 바라보니 사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怨惹騷人弔古愁 근심많은 사람 옛 수심지어 죽지 않을까 의심나네

장포세우(長浦細雨)

長浦細雨晴霏霏 장포뜰에 가랑비 개었다가 눈이 펄펄 날리고
白露橫分草色飛 백로들은 가로질러 벌판 위로 날아가네
漁子不愁風浪起 어부는 풍랑이 일어나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倚船遙喚綠蓑衣 뱃전에서 우장옷을 내오라고 소리를 치네

동파고역월당루(東坡古驛月當樓)

東坡古驛月當樓 동파 옛 역 마루에 달이 비쳐 명랑한데
處處人家看上鉤 이곳저곳 인가에는 발을 걸어 올리누나
一點圭星看不遠 하나의 큰별만이 멀지 않게 보이는데
令宵應人廣漢遊 오늘밤 맞이하여 광한(광한루)놀이 하여보세

적벽선유(赤壁船遊)

赤壁磯頭更浮舟 적벽이 둘러싸인 강에 다시 배를 띄우니
蘇山去後尚風遊 소동파가 간 뒤에도 풍류는 여전하네
波襄月白皆良夜 파도는 잔잔하고 명랑한 달밤 모두 좋으니
不必黃岡壬戌秋 황강⁵⁾이 필요없는 임술년 가을일세

동원설(桐園雪)

桐園暮雪白皚皚 동원에 날이 저물어 흰눈은 환히 비추는데
望裏平波齊色開 편편한 언덕 위를 바라보니 구름없이 개였구나
入夜江扉終不掩 밤이되도 강가에 있는 집 싸리문이 열렸으니
剡溪擬有子猶來 아마도 섬계땅의 왕자(子猶)오기를 바람이니라

진사효종(津寺曉鐘)

津頭寺隔白雪層 나루 위에 높은 절은 백운의 층계로써 가렸으며
半夜鳴鍾有老僧 한밤중에 종이 울리니 노승이 있는 것이리라
不是姑蘇城外泊 이 고소성 밖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련만
寒天落天又漁燈 찬 하늘에 달이 지니 또한 어등이 비치누나

3. 그 외 누정시

이 시는 정두경이 개성을 유람하고 돌아오다가 羽化亭에서 일행과 헤어져서 홀로 징파에 유숙하는 마음을 담은 泊澄坡渡와 이튿날 새벽에 다시 배를 타고 내려가며 보이는 풍경을 담은 曉發澄坡渡로 이루어진 연시이다. 주변 임진강의 아름다움을 담채화를 보는 듯이 생동감있게 그려내어 문장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5) 黃岡: 중국 호북성 黃岡縣, 소식이 호를 東坡居士라하고 이곳에 거실을 마련함

〈 泊澄坡渡 〉

鄭斗卿⁶⁾

羽化高臺送別難 우화정 높은 누대에서 송별하기 어려워라
峽中流水下前灘 골짜기에 흐르는 물 앞어울로 내려가네.
孤舟直沂澄坡渡 외로운 배 곧바로 징파도를 거슬러 가
夜對靑山月色寒 한 밤에 청산을 대하니 달빛이 차다.

〈 曉發澄坡渡 〉

曉色蒼蒼烟霧深 새벽칩 희뿌연데 안개마저 깊어
澄坡渡口月初沈 징파나루에 달이 막 잠기네
掛帆擊鼙中流去 돛을 올려 샷대치며 강물따라 가노라니
兩岸依倚楓樹林 강 양쪽으로 아스라한 단풍숲이 보이네

이 시는 홍귀달⁷⁾이 58세에 경기관찰사가 되어 경기도 여러 지역을 순시하다 쓴 글 중에 하나로, 징파나루에 세워진 누각 위에서 보이는 임진강의 풍경을 새기고 있다.

〈 澄波樓記 〉

— 洪貴達

小樓一間兮貯明月 한칸 작은 누각에 밝은 달빛 담았구나
澄波匹練兮含風漪 비단같은 맑은 강은 물결을 머금었네.
高臥一生兮無所營 그대 일생 편안히 누워 하는 일 없구나.
四山爲幄兮靑雲衣 사방의 산을 휘장 삼고 푸른 구름 옷을 삼았네
吾將謝笏兮歸去來 내 벼슬 버리고 귀거래하리라.
與君永意兮漢陰機 그대와 영원히 세상사에 욕심을 끊고 살리라.

다음은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성담수가 파주에서 은거생활을 하면서 몽구정에서 지은 시로 隱人生活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6)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 1597-1697) : 조선중기의 문인이자 학자, 본관은 溫陽, 자는 君平, 14세에 별시에 합격하여 문명을 날렸으며, 조부에서 종중조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저명한 시인이다. 저서로 26권의 『東溟集』이 전한다.
7) 허백당 홍귀달(虛白堂 洪貴達 : 1438-1504),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부계(釜溪), 자는 겸선(兼善), 호는 허백당·합허정(涵虛亭), 시호 문광(文匡), 1460년 강릉별시문과에 급제하여 1464년 겸예문에 등용하였다. 1467년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1469년 장령이 되어 조정의 모든 글을 만들었다. 문명이 높고 성격이 강직했으며, 경기도관찰사를 지냈다. 1504년 손녀를 들이라는 왕명을 거역하여 유배도중 교살되었으나 중종반정 후 신원되었다. 저서로 『허백정문집(虛白亭文集)』이 있다.

〈夢鷗亭〉

— 成 聃 壽

把竿終日趁江邊 온종일 낙대 잡고 오르내리다
垂足滄浪因一眠 맑은 물에 발 담그고 깜박 졸았네
夢與白鷗飛萬里 꿈에서 흰기러기 되어 만리를 날다가
覺來身在夕陽天 깨어 나로 돌아오니 하늘에 해가 지고 있구나.

IV. 맺음말

이상에서 임진강변에 위치했다는 누정들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누정과 누정관련 인물, 그리고 문학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임진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많은 역사인물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향토사 분야에서 보다 많은 문화적 성과물들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임진강이 지니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이나, 오랜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이의를 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간 인위적으로 주어졌던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임진강에 대해 눈을 돌리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남북관계의 개선과 맞물려 그동안 감춰져만 왔던 임진강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문화적 자산을 품어 안은 관광자원으로 그 가치에 대해 새로운 평가가 이뤄지고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보다 활기찬 임진강의 물살을 곧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하지만 그간 외적인 원인에 의해 그 아름다움을 간직해 온 임진강이 개발이라는 목적하에 무분별하게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보다 세밀하고 계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최대한 원형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임진강으로 부활되어야 한다. 파주시민의 젖줄, 파주문화의 근간으로 흐르는 임진강이기를 기대한다.

조선왕조 수난을 겪은 여걸 정희왕후의 업적과 일화

이기현(파주문화원 고문)

세조는 1417년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수양대군으로서 1434년 17세 당시 윤번의 딸 정희와 혼인하였으나 3년이 되어도 태기가 없어 근심하던 중 임신되어 시어머님 소헌왕후의 배려로 궁궐에서 아들 의경세자(장)을 1438년 출산한 후 사저 명례궁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소헌왕후의 친정아버지 영의정 심은(시조 심홍부의 4대손 고려 공민왕 때 문하시종 심덕부, 아들 심은, 손자 심희까지 3대 영의정)은 세종대왕의 장인으로 덕망과 인품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로 떠나는 날 궁궐에 모든 사람들이 대행렬로 환송하는 광경을 바라본 상왕 태종은 심은대감의 힘이 강성하여 세종의 권력에 위협적인 존재라 판단한 나머지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즉시 터무니없는 역모와 모략으로 모진 고문으로 자백 사사하게 되는데 있어 세종입금이 죽음만을 막아줄 것으로 알았던 소헌왕후는 허사가 되자 남편을 원망하며 허전한 세상을 보내던 중 정희에게 의지하며 극진히 사랑을 하였다.

세조는 1441년에 의숙공주를 낳았으며, 정희는 정성껏 아들과 딸을 키우는데 성심을 다하는 한

편 궁궐 안 궁녀들을 보살피는데 여념이 없었다.

1441년 문종의 현덕왕후는 단종(홍위 : 弘曄)을 생산하고 23세로 승하하니 동구릉에 안장되었으며 소헌왕후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버리는 처사에 있어 너무나 애처로움을 금할 길 없었다고 하였으며 소중히 단종을 양육하였다.

1446년 소헌왕후는 정희와 매사에 정경을 서로 위로하면서 한이 서린 시어머니는 마지막 생을 궁궐을 떠나 정희부부와 손자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정희는 시어머님의 손을 잡고 같이 명례궁에서 사시다가 51세로 승하하시었다.

정희왕후는 5년이 되어도 태기가 없게 되자 친정어머니께서 합궁의 이치를 알려주어 1450년 둘째 아들 해양대군(예종)을 생산하게 되었다.

1450년 정희는 봄날 태양이 환하게 쪼이는 대낮 밭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꿈을 여러 번 꿰다는 말을 친정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물어보자며 어머니와 동행, 그 집에 가서 꿈에 대한 사연을 말하였다.

점쟁이는 먼저 정희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풀이하는데 있어 무술(戊戌)년(1418) 11월 11일 술시(十一月 十一日 戌時) 열하루(十一)를 합하면 주인주(主)자 두 개가 형성되어지니 두사람(수양대군과 정희) 모두 주인의 위치에 오른다는 이야기였다.

다음으로 밭전(田)자를 분석하는데 날일(日) 즉 태양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임금이 두 번 바뀐 연후에 정중앙에 위치한 十월 十일 밭전(田)자를 좌우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 1 또 1 신하를 제거하면 바로 임금(王)이 된다. 또한 그리해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만 입구(口)자가 네 개로 만들어지니 많은 우여곡절이 따른다는 것이며 세종임금이 물러서고 유약한 왕세자(문종)에 이어 왕세손(단종)이 잠시 임금의 자리에 오른 다음 임금이 된다고 해명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그 임금을 가장 측근에서 감싸고 도는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정희는 수양대군이 임금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 왕의 쾌가 나왔다고 하니 정신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1450년 소헌왕후가 승하한지 4년이 지난 후 세종대왕은 모든 업무를 왕세자(문종)에게 맡기고 상왕으로 물러앉아 세자의 어린 아들 8살 되는 흥위(단종)를 왕세손으로 책봉,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궁궐 경희루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왕족들과 모든 대소신료들도 자리하여 왕세손을 축하하였다.

정희는 두명의 임금이 자리한 다음에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괘가 어찌보면 운명이 세종임금이 그리고 왕세자와 왕세손이 시기를 앞당겨서 맞추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여 가볍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정희 자신의 할 일에 몰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현전 학자로 계시는 박중

림 대감의 여식으로 내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팽년의 누이를 수양대군의 후실로 삼게 하였다.

또한 판중추원사로 계시는 친정 아버지 윤번을 관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후 장남 의경세자는 이조판서와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병마절도사를 겸한 인물로 명나라 국제통역관인 한확의 딸 인수와 결혼시키고 내친 김에 딸 의숙이도 정인지의 자제와 혼인을 맺었다.

1450년 말 세종대왕은 태종의 셋째아들로 1408년 충녕군에 봉해지고 1418년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됨에 따라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며 22세에 4대 임금으로 등극 32년간 재위하는 동안 우리나라 역대 국왕 가운데 가장 찬란한 업적을 남기고 승하하였다.

정희는 궁궐 내에서 모든 일을 관리하고 1450년 최악한 몸으로 왕위에 오른 문종은 민의를 파악하는 한편 문무를 중시하면서 군사제도를 개편하는 정사를 하던 중 몸이 허약하여 1452년 재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시니 단종은 12세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조정중신들과 집현전 학자들은 단종을 옹호하며 정권을 장악 처리하니 수양대군은 한명희, 권람, 홍윤성, 홍달손, 양정등과 그들을 제거하여야 하겠다는 세밀한 계획을 짜고 1453년 10월 10일 술시(戌時) 거행하기로 하는데 있어 장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바라본 정희는 수양대군을 불러 갑옷과 투구를 입혀주니 수양대군이 힘차게 “장졸들은 각본에 짜여 있는 대로 행동하라! 이 시간 이후 절대로 탄소리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점괘에 따른 시간 새벽 말에 오른 수양이 검을 뽑아드는 순간 달빛이 칼날에 부딪쳐서 사망으로 향하자 모두의 눈에서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청지기 임운만을 대동하고 우선 용맹성과 지성을 갖춘 좌의정 김종서 대감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함께 살해하고 이어 영의정 황보

인의 처리를 마친 수양대군은 궁궐에서 왕의 명령을 빙자 조정대신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한 명회가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계유정란을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들은 정희는 며느리인 인수와 함께 뒤뜰에 아담하게 만들어 놓은 불상에 가서 예불을 올리는 순간 현직으로 있는 우의정 정본, 이조판서 민신, 이조판서 김문기, 병조판서 조극관 등 육절신을 사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연신 나무관세음보살을 읊조리는 순간 아들 창이 들어오자 어느 정도까지 일이 진행되었느냐고 정희가 물으니 제거대상은 모두 처리되고 남은 충신들은 근정전 앞에 불러 모아놓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정희는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숙부 안평대군을 제거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수양대군은 거사를 거의 마치고 병권을 장악 영의정 정사를 처리하면서 집현전 학자들도 평온하자 정난공신(靖難功臣)들을 골고루 요직에 배치하였다.

정희는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난을 일으켜 성공한 후 어린 임금을 몰아내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있어 정희는 백부 양녕대군을 예방 의논한 결과 주상을 빨리 혼인시키라는 결론을 얻어 송현수 대감의 딸과 1454년 혼례를 갖추었다.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 저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진심이라며 수양숙부와 숙모님께 수차례 간청을 하자 왕실회의를 거쳐 할 수 없이 1455년 왕위에 오른 세조는 근정전 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축하객을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그러나 집현전 학자들과 일부 증진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단종복위 운동을 전개하자 단종을 상왕에서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降等)하여 강원도 영월(寧越)에 유배하였으며, 다시 서인

(庶人)이 되어 17세 되던 1457년(세조 3) 10월 24일에 영월에서 죽어 동강에 버려진 시체를 엄홍도가 거두어 영월 야산에 암매장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457년 같은 해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장)이 갑자기 죽으니 문종비 현덕왕후(顯德王后)의 살을 받았다 하였으며 인수는 부득이 아들 월산군(장)과 1457년 갓 태어난 자산군(월)과 함께 궁궐에서 나와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조의 둘째아들 해양대군(예종)을 왕세자로 책봉 후 왕위에 올라 한명회 장녀(장순왕후)와 결혼하였으나 인성대군을 낳고 산후병으로 1461년 17세로 승하하니 공릉에 안장하였으며 한백륜(韓伯倫)의 딸과 결혼한 안순왕후는 제안대군과 현숙공주를 두었다.

1445년 왕위에 오른 세조는 계유정란이 어느 정도 안정됨에 따라 국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북방의 여진족을 두 차례나 정벌하고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등 국가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면서 1460년 정희왕후의 고향 원평도호부를 파주목으로 승격시키는 치적을 남기고 1463년 51세로 재위 14년 만에 오대산 상원사에서 피부병으로 승하하였다.

정희왕후는 덕종과 예종의 어머니로서 덕종이 20세로 요절하고 예종이 14세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귀성군(이준)을 영의정으로 등용 최초로 수렴청정을 하던 중 재위 1년 2개월 만인 1469년 승하하였다.

정희왕후는 어린 손자 자산군(성종)이 13세 나이로 왕위에 오른 후 한명회 넷째딸(공혜왕후)와 결혼하였으나 1474년 19세로 승하함에 따라 순릉에 안장되었다. 1476년 성종은 12세 연상인 파평윤씨가 너무나 미모가 아름다워 숙의로 삼아 연산군을 낳았으며 왕후가 되니 투기와 모함이 너무나 심하여 폐비가 됨에 따라 1476년 계비(정현왕후) 윤호의 딸과 혼인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정희왕후는 예종과 성종이 나이가 어려 7년간이나 수렴청정 중 상당군 한명회, 고령군 신숙주와 의론 남이장군 좌천과 유자광 역모사건, 이시애의 난 등을 원만히 처리하고 물러났으며, 1482년 연산군 사친 파평윤씨가 사망하자 서오릉에 회묘(懷墓)로 안장되었다.

정희왕후는 사육신(死六臣 :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과 생육신(生六臣 : 김시습·원호·이맹진·조려·성담수·남효은), 육종영(六宗英 : 안평대군·금성대군·화의군[영]·한남군[어]·영풍군[친]·판중추원사 이양), 육절신(六節臣 : 황보인·김종서·정분·김문기·민신·조극관) 등 많은 인재를 제거함에 있어 조선조 비운을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가슴 아픈 처사에 대해 절실히 참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수난을 겪은 정희왕후는 내가 앞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며 주상의 당숙모인 단종의 부인(정순왕후) 송씨를 불러 손을 부여잡고 30여년간 홀로 남편을 비명횡사로 보내었던 슬픔이 어떠했을까 하며 성종과 인수대비 서로 울면서 환한 대낮 1483년 65세로 잠드셨다.

※ 조선조 세종대왕, 문종, 단종을 거쳐 이은 왕계와 왕손들은 영친왕을 마지막으로 세조와 윤빈의 딸 정희왕후의 혈통이다.

정희왕후는 1418년 친정아버지 윤빈이 음보로 신천현감 부임 후 홍천군수로 전임되어 관아에서 인천이씨 사이에 탄생하였으며, 아버지가 여러 벼슬을 거쳐 중추부사로 퇴임하고, 1448(세종30) 7월 14일 65세로 돌아가시니 할머니 안동권씨 묘역 내 교하면 당하리(교하현 와초동)에 예장되었으며 어머니가 1456(세조1) 9월 5일 별세하자 동소 상하장으로 모시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희왕후는 묘역 주변 20리(180정보)를 사패지로 만들었으며 제실 30간을 건립하는 동시 성재암(聖在菴) 유치 부처님을 모시고 국가의 안녕과 부모님의 위안기도를 하

게 하는 승군 36명을 배치하였다 하나 순종때 폐철, 지금은 비구승 2명이 암자를 수호하며 정정공과 종중에서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산4-20 파평윤씨 정정공(윤번) 묘역 주위 일대가 2002년 9월 16일 경기도 기념물 제 182호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조선조 초기부터 후기까지 96기 묘가 조성(묘제, 석물, 묘비 등)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세조비 정희왕후, 친정아버지 윤번과 중종 제1계비 장경왕후 아버지 윤여필 제2계비 문정왕후 아버지 윤지임 등 국구 부원군 묘 3기, 정승 격 묘 7기, 판서급 묘 8기, 승지 묘 1기, 참판묘 30기 등 수많은 선대묘가 있다.

이러한 파평윤씨 시조 고려 개국공신 윤신달의 5대손 윤관장군을 이어 15대손 고려말 판도판서 윤승례의 아들 윤번 정정공과 종친들의 빛나는 정치적 업적은 오직 세조비 정희왕후의 위대한 은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삼한을 위시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통일과 고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격전으로 동족상잔을 빚어 왔으며 조선조 개국한 이성계는 1,2차 왕자난이 있었고, 세조 때 계유정난, 연산군, 임진왜란, 광해군, 병자호란, 사도세자 등 등 우여곡절한 정치적 파란이 있었으며 사색당쟁으로 인하여 억울한 죽음과 삶에 대한 경쟁을 하였다. 이는 조선조 개국당시 송도에서 한양으로 천도시킨 무학대사와 삼봉 정도전이 조선왕조 28왕(518년)의 운명을 미리 말하였다는 전설.

일제 강점기를 통한 한반도의 38도선 남북분단, 6.25동란을 누가 바꿀수가 있나요. 삼천리 금수강산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의 지리적 요인으로 빚어지게 되는 자연의 현상이라 하겠다.

- 황천우 장편소설 <여결 정희왕후 참조>

◆ 조선조 제4대 세종대왕 ~ 중종대왕 약사 명세서 ◆

역대왕과 황후별	재위기간	족벌내역	년대별	능묘별	소재지
세종대왕(충녕군) 소헌왕후(왕비)	13년 3개월	태종 3남 심온 딸	1397~1450(54) 1395~1446(52)	英陵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문종대왕(왕세자) 현덕왕후(왕비)	2년 3개월	세종 장자 권전 딸	1414~1482(39) 1418~1441(23)	顯陵 (동구릉)	구리시 인창동 산2-1
단종대왕(왕세자) 정순왕후(왕비)	3년 2개월	문종 장자 송현수 딸	1441~1457(16) 1440~1521(81)	莊陵 思陵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33-1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 산66-1
세조대왕(수양대군) 정희왕후(왕비)	13년 3개월	세조대왕 2남 윤번 딸	1417~1468(51) 1418~1483(65)	光陵	남양주시 진접면 부평리 산99-2
덕종추존왕(의경세자) 소혜왕후(인수대비)		세조장남 한확 딸	1438~1457(20) 1437~1504(67)	敬陵 (서오능)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
예종대왕(해양대군) 안순왕후(계비) 장순왕후(원비)	1년 2개월	세조 차남 한백륜의 딸 한명혜 장녀	1450~1469(19) 1448~1498(50) 1445~1461(17)	昌陵 (서오능) 恭陵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4
성종대왕(자산군) 정현왕후(계비) 공혜왕후(원비) 숙의왕후(미인 12살연상, 투기모함으로 폐비)	25년 1개월	덕종 2남 윤호 딸 한명혜 4녀 연산군 사친 윤기경 딸	1457~1494(37) 1462~1530(28) 1456~1474(19) 1445~1482(43)	宣陵 順陵 懷墓(서삼릉)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1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4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
연산군 거창군부인신씨(폐비)	11년 9개월	성종 장남 신승선 딸	1476~1506(30) 1472~1537(65)	燕山君墓 신씨쌍분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산77 강화 교동도에서 1513년 이장
중종대왕(진성대군) 단경왕후(원비-폐비) 장경왕후(제1계비) 문정왕후(제2계비)	38년 2개월	성종 2남 신수근 딸 윤여필 딸 윤지임 딸	1488~1544(44) 1487~1557(71) 1491~1515(24) 1501~1565(64)	靖陵 溫陵 禧陵(서삼릉) 泰陵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1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19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313



판도공 윤승례(版圖公 尹丞禮)의 내력과 후손들의 업적



과 평윤씨 시조 윤신달(尹莘達)의 13세손 윤승례선생은 영평군 윤섭(鈴平君 尹涉)의 자(尹承休, 承順, 承禮) 삼형제중 끝분으로서 장단군 장목동(현 장단군 진동면 조목동)에서 사시면서 고려 공민왕 16년(1367)에 신돈(辛旽)의 살해를 모의하다 누설되어 유배되었다가 공민왕 20년(1371) 신돈이 주살된 후 풀려나 웅양군 상호군(應楊軍 上護軍)이 되어 수차에 걸친 왜구(倭寇)들의 침입을 막아 공을 세웠으며 창왕 1년(1389) 문하평리(門下評理)로 권근(權近)과 함께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 돌아와서 명제(明帝) 지시에 따라 공양왕을 즉위케 하였다.

이어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와 판도판서(判圖判書)를 역임 공양왕 4년(1392) 파산에 은거하시다 돌아가시니 작목동 묘좌에 안장후 순충보조공신과 문충으로 시호를 받으신 충신이다. 따라서 그의 아들(尹珪, 善老, 璠)중 윤번선생은 우왕 10년(1384)에 출생하시어 공양왕 4년(1392) 조선조 개국후 음보(蔭補)로 신친 현감을 거쳐 세종 10년(1428) 군기시판관(軍器寺判官)에 이르러 딸이 수양대군(首陽大君)과 결혼을 하게되자 어머니(安東權氏)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와 살게 되었으며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에 승진, 이어 이조참의, 공조참판, 호조참판을 역임하는 동안 세종 5년 친상(母親)을 당하여 사폐지지인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에 안장하게 되었다.

세종 21년(1439) 경기도 관찰사에 이어 대사성 우참찬이 되고 공조판서를 거쳐 중추원사 세종 29년(1447)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가 되어 세종 30년(1448) 7월 14일 65세로 돌아가시니 교하읍 당하리 어머니묘 앞에 예장을 모신 후 파평부원군 과이정으로 시호를 받으시었다. 이로 인하여 판도공파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단종 4년(1456) 수양대군이 세조대왕이 되자 정희왕후(尹璠의 딸)로 추봉하게 되자 이분들의 후손들중 국구부원군(尹璠, 汝弼, 之任)과 공신부원군(尹士昕, 甫, 元衡) 정승판서와 당상관들이 7, 8대에 걸쳐 수십명이 배출된 문한가로 수백호의 대성가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수차에 걸친 난시로 인하여 실존하였던 윤관장군(尹瓘將軍)묘를 관하 광탄면 분수리에서 찾아 수호관리하는 한편 지방문화재로 승격시키면서 여충사를 건립 유림향사로 숭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분의 후손 수백명이 모여 매년 향사를 올리는 실정이며 따라서 파평윤씨 후손 회장 윤성민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1988년 2월 27일 국가문화재 제323호로 승격하게 되었다.

또한 별지와 여한선대에 실존된 선조중 관하 법원읍 웅담리 상서대에 지위(紙位) 3위와 7위분의 비를 설단하는데 있어서도 판도공파 종중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주선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종사라 하겠다.

아울러 파평윤씨 역사집람 오책1권(繹史輯覽五冊一券)에 의하면 영평군 윤섭(鈴平君 尹涉) 묘는 장단 동저가사리 경좌(長湍東渚加士里庚坐)에 장례를 모시고 그 의 자 승례(丞禮)는 장단조목동묘좌(長湍祚木洞卯坐)로 명시되었으나 6.25동란으로 남북이 가로막히는 한편 군사 보호지역으로서 성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문화체육부 문화재 관리국 주관으로 문화재 학술연구회원들에 의해 장단지역을 답사중 아래 판도공묘를 찾게 되어 공개하였다.



▲ 파평부원군 윤번 묘



▲ 홍녕부대부인 인천 이씨 묘



▲ 윤승례 단과 안동권씨 묘



▲ 성재암 전경



▲ 정정공파 재실 광경

조선시대 율곡 이이의 경장론과 폐법의 고찰

심성구(파주문화원 수석부원장 · 성균관 전례연구위원)

목 차

- I. 서언
- II. 율곡 이이의 태어남과 발자취
- III. 본론 - 조선전기의 정치적 사회관
 - 1. 율곡의 국가관과 사회사상
 - 2. 율곡의 경장론과 폐법으로 개혁을 주장
 - 3. 파주향약(坡州鄉約)에서 선양(先養) 후교(後教) 강조
 - 4. 율곡의 철학관과 이기심성론의 전개
- IV. 결론 - 이기지묘의 발전적 원리와 현대적 관점

I. 서언

조선시대의 격동기에서 그 시대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장과 폐법을 주창하며 그 당시에 사회상을 지적해 놓으면서 공사천(公私賤)이라도 재능이 있으면 양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진시사소(陳時事疏)처럼 세종대왕께서 때에 따라 시행하셨던 규례도 있다. 선각적이고도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당시의 시대성을 뛰어넘어 여러 차례에 목숨을 걸고 많은 차(箭)를 올렸으며 「만언봉사」 일만천육백여자를 선조 임금에게 올리면서까지 애국애족하려는 내용들과 앞을 내다보는 내용들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 우리가 그분의 본뜻에 경의를 표하면서 (논자가 선생에게서 사숙을 받은 한사람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전기의 사회상과 율곡의 경장론과 폐법주장(개혁), 파주향약(坡州鄉約) 및 율곡이이론의 특징적 요소와 그의 철학관, 율곡의 이기지묘의 현대적 관점을 논하고자 한다.

II. 율곡 이이의 태어남과 발자취

율곡은 1536년(중종 31년) 12월 26일 寅時 강릉부 북평촌 외가 烏竹軒에서 태어났으며¹⁾ 1584년 1월 16일 새벽 경성 대사동에서 만47년 21일만에 운명하였다.²⁾

율곡은 명종 11년(1557) 22세때 경상도 성주 곡산의 노경린의 딸 노씨와 결혼하고, 그 다음 해 23세(1558) 명종 13년 봄에 경북 안동에서 퇴계를 처음 상면한 바 있다.³⁾ 이때 퇴계는 율곡보다 35세나 연장자로 이미 58세의 노대가였다.

율곡은 1558년 겨울 23세에 나이로 別試解에 「天道策」⁴⁾ 을 써서 장원을 하였다.

당시 老官들은 율곡의 「천도책」에 대하여 “우리들은 몇일 동안 생각해서 겨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율곡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쓸 수 있으니 참으로 천재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율곡은 16세 1551년 5월에 모친상으로 어머니를 여윈 슬픔에 깊이 잠겨, 생사의 문제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 한때 佛學에 몰두하였으나 곧 불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聖賢의 책을 취해 계속해서 공부하였다.⁵⁾

율곡은 금강산에서 돌아와 유학 공부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1556년에 자경문(自敬文)을 짓는다.

율곡의 자경문에서는,⁶⁾

常二行一不義 殺一不事 得天下不爲底意思 存諸胸中
(상이행일불의 살일불사 득천하불위저의사 존재흉중)

“항상 한가지의 불의를 행하고 한사람의 무고한 이를 죽여서 천하를 얻고자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여야 한다. 맹자에서 성자(聖子)의 심법(心法)을 논한 자경문 내용이다.

III. 본론 - 조선전기의 정치적 사회관

율곡은 1568년 선조 1년에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부교리(副校理)로 춘추기사관(春秋記事官) 36세에 청주목사, 38세에는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며 율곡은 40세 이전 당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두루 거치면서 민생문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율곡전서(栗谷全書)」에 실려 있는 많은 자문자답 형식의 문장과 34세 때의 「동호문답(東湖問答)」, 39세 때의 「만언소(萬言疏)」, 40세 때의 「성학집요(聖學輯要)」 등의 내용에서 민생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정에서 시정할 것을 개진하면서 경장과 폐법을 주장하였다.

유학의 전통은 사람의 도덕 윤리로 자신을 수양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인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유학의 정치관은 수기치인(修己治人)에 힘써 사람들에게는 각기 직분을

1) 이이(李珣)는 기원 1536년(中宗 31년) 기원 1536년(정미 12월 26일 인시) 강릉부 북평촌 외가 오죽헌에서 태어나다.

2) 율곡, 운명(별세) 1584년 1월 16일 새벽 경성대사동 만 47세 21일 당시 이조판서

3) 1558년 23세에 명종13년 봄에 경북 도산에 가서 안동에서 퇴계를 처음 만나다.

4) 「天道策」(이기심성론에 의한 결과를 논하는 것)

5) 「栗谷全書」卷33, 「年譜」, p282 뒷면

6) 자경문(「栗谷全書」卷14) 常二行一不義 殺一不事 得天下不爲底意思 存諸胸中

가지고 편안히 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물질생활과 정신활동도 중요시 한다. 공자(孔子)는 각 개인의 교육을 적성에 맞게 신분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주자는 이기론으로 천지만물의 구성체계를 해석하고 있으며 천지지리(天地之理)와 생생지리(生生之理)를 실천하려는 인류의 도덕적 근원으로 삼고 있다. 율곡은 한국의 역사에 빛나는 유학자로서 선진유학과 송대(宋代)의 정주성리학(程朱性理學)에 풍부한 견해로 그의 학문적 가치는 크게 나타난다.

율곡학의 특색을 소개한다.

① 광범위한 주자학의 성리학설을 핵심 있게 간략히 쉽게 이해되도록 자신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② “인민애물(仁民愛物)”이라 표현하면서 전통적 유가의 군왕정치를 당시한국사회에 실천하려 하였다. 율곡은 29세 이후부터 49세때까지 20년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당시에 율곡의 정치에 관한 견해는 비교적 풍부하여 개혁에 관한 많은 논의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율곡의 이기론, 성정론과 관련이 된다. 율곡이 제시한 仁政思想과 경장(更張) 그리고 폐단을 고치고자 하는 등의 논리는 천지생생지리(天地生生之理)를 실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사람의 生理는 天理의 실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역사란 어느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류공동체 생명활동의 과정이다. 공간이란 어느 민족과 국가 혹은 어느 지역이라는 지면상 횡적으로 펼쳐지는 활동적 현상을 가리키게 된다. 시간이란 종적인 측면에서 보는 활동과정을 가리키고 있다. 율곡이 하는 政治와 民生은 당시의 민생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민생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율곡 당시의 조선사회의 신분제도는 신분에 따른 특권과 제한이 서로 달랐다. 그러므로 율곡은 민생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경장(更張)을 위주로 주장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문제에서 일반 백성과 천민 층의 신분문제에 관한 개혁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율곡의 사회사상, 정치사상, 역사철학은 모두 그의 理氣論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본 논문 내용은 율곡의 사회사상과 역사철학에 관한 내용을 논자가 율곡선생에게서 사숙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율곡 이이의 국가관과 사회사상

우선 율곡이 주장하는 경장(更張)과 폐법(弊法)을 논하고자 한다.

조선 전기에는 선진성리학자의 지지로서 조선을 건국하면서 왕권전제 체제를 갖추려고 유학의 인정(仁政)을 건국정신으로 삼았던 것이다.

태종(太宗)은 유교주의자였다. 세종은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여 젊은 학자들을 독려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의 제도를 연구시켜 치국, 치민, 교민(治國, 治民, 教民) 등에 관한 서적을 편찬하였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였으며 한국 역사에서 자국의 문자를 가지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한글은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문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漢字나 漢文의 독음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土地는 세종 후기에 164만결(結)에 다다랐는데, 이는 조선 500년간 가장 많은 양이다.

세종은 인재 발탁과 기용에도 탁월하여 관원들이 맡은 직분을 오랫동안 수행하게 했으며 禮와 함께 樂을 만들고 전장문물(典章文物)을 정비하여 빛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후세에

“해동요순(海東堯舜)”이란 칭송까지 받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전국 인구수를 파악하고자 조선조 초기에 호적법을 만들어 전국의 호적을 정리하였다. 신분제도에 의한 패호법(牌號法)을 만들었다. 戶를 단위로 하여 호주의 성명과 처첩, 동거인 및 본인과 처가의 자손을 기록하게 되었다. 일부다처인 양반층에는 처(妻)와 첩(妾)의 구별이 엄격하여, 양반가에서 시집온 부인을 妻, 庶人층에서 시집 온 부인을 妾이라 하였다. 妻가 출산한 아들을 적(嫡)이라 하고 妾이 출산한 아들을 서(庶)라 하여 적서(嫡庶)의 구별을 엄격히 하였다. 嫡者는 세습으로 양반이 될 수 있었으며, 군역을 복무할 필요가 없었고, 과거를 통하여 관리가 될 수 있었다. 庶子는 관청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고쳐 쓰는 선사(繕寫: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고쳐 베끼) 등의 일을 맡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中人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특권이 없었으며, 통상 庶人을 병칭하여 ‘중서(中庶)’라고 하였다. 호적의 정리는 잘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세종 14년에 「世宗新錄」, 「地理誌」戶口 조사에는 “우리 왕조의 인구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록된 자는 겨우 10분의 1에 불과하다. 국가가 매번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거듭 민심만을 잃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어 각 도와 관청의 인구수는 잘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다른 道도 마찬가지이다.”⁷⁾ 라고 기록되어 있다.

世祖 3년에 梁誠之는 상소하여,

“지금 우리 왕조의 호구법이 명확하지 않아 江原, 黃海, 平安道는 대부분 장정 한사람을 1戶로 하고, 慶尙道와 全羅道 및 咸吉道 六鎭은 간혹 여러 사람을 1戶로 하기도 하지만 京畿道와 忠淸道는 이보다 심하지는 않았다.

江原道와 黃海道 산간의 郡民들은 생업을 잃고 떠돌아다녀 이전에 여러 호가 맡았던 부역을 1戶가 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하였다.

慶尙道와 全羅道 연해의 郡은 - 사라지거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 군사를 모으고자 하여도 관련 장부를 찾을 수 없으니 모두 다 도망가서 숨은 것이다.”⁸⁾

라고 하였다. 成宗 21년 윤효선(尹孝孫)의 계문(啓文)에는

“대전(大典)의 호적(戶籍)은 다섯가(家)를 한 통(統)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었다. 다섯 統을 한 리로 하여 리正을 두었고, 한 面에는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⁹⁾

외딴 시골의 호적은 마치 법 없는 것과도 같이 흩어져 어지러워 統이 없으며, 풍속과 관련된 일을 저질러도 검거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불효자와 우애 없는 사람도 많이 있게 되었다.”¹⁰⁾

고 하고 있다.

조선을 건립한 이성계 시기부터 성종에 이르는 조선 전기 100년간(1392-1494)은 창업흥성기

7) 「世宗新錄地理誌」戶口條

8) 「納齋集」卷二

9) 「納齋集」卷四

10) 「성종실록」卷245, 成宗21年 庚戌 閏9月 甲申年條

* 중서(中庶): 중인(中人)과 서열(庶孽)을 아울러 이르는 말

로서 제도 문물이 세워진 상태로 민생이 안정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연산군(燕山君)이후로부터 50여년간 전후로 해서 사대사화(四大士禍)가 일어났으니 광해군(燕山君) 4년(1498)의 무오사화(戊午士禍), 연산군(燕山君) 10년(1504)의 갑사(甲士禍), 중종(中宗) 14년(1519)의 기묘사화(己卯士禍), 仁宗 원년(1545)의 을사사화(乙巳士禍) 등의 사화와 선비들의 권모술수로서 정치와 사회가 혼탁하게 되었다. 이때에 栗谷은 「응지논사소(應旨論事疏)」에서 우리 왕조는 태조께서 기반을 다지고 법도를 세워 큰 줄기는 갖추었으나 세세한 절목은 완비되지 못했다 한다.

연산군(燕山君) 때에 조종(祖宗)의 전형(典刑)이 허망하게 되어서 중종반정으로 기강을 세울 수 있었으나 대신들은 시무(時務)를 잘 아는 사람이 드물어 논의가 미치지 못했다. 사화까지 일어나서 모든 일들이 와해되고 조종(祖宗)의 법과 뜻이 없어지게 되었다. 간사한 관리들은 조목들을 첨가하여 수탈로 부당하게 백성을 병들게 하였다. 그러나 이를 시행한지 오래 되어서 마침내 기성의 법이 되었다 하고 있다.¹¹⁾ 中宗 초에, 조광조(趙光祖)는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주장하였지만 전후 4년도 못되어 모함으로 몰려났다. 기묘사화(己卯士禍) 仁宗의 재위기간은 8~9개월에 乙巳士禍가 일어났다, 율곡의 상소문은 대략 宣祖 11년(1578)에 쓴 것이며, 乙巳士禍가 일어난지 불과 33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율곡은 연산군 이후 정치사회 현상에 관한 깊은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은 당시 조정의 기강이 서지 않고 백성이 본직을 잃고 처신할 바를 잃은 것을 침통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사간원결변통폐법차(司諫院乞變通弊法劄)¹²⁾에서는 “백성의 생업이 이미 궁해졌으며, 재해와 기근이 거듭 닥쳐 굶어 죽은 사람이 길에 가득하고公私의 재정이 고갈 되었다” 라고 하였다.

또한 옥당진계차(玉堂陳戒劄)¹³⁾에서는 “기강이란 나라를 유지하는 원기이나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다. 백성이란 나라를 유지하는 근본이나 백성들은 처신할 바를 잃었다.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료들이 관직을 대만히 하여 사적인 것을 앞세우고 공적인 것을 뒤로 미루니, 아침에 관직에서 쫓겨났다가 저녁에 관직을 제수받기도 하면서 오로지 먹고 마시는 일만 하고는 직분에 따라 할 일은 등한시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옳고 그름이 뒤섞이어 올바르게 취할 방도가 없었으며 크고 작은 것을 전체를 통섭할 수가 없었다. 좋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공허한 명령과 법일 뿐 시행 되지를 않는 문란한 상태로 다스릴만한 분위기가 되지를 못했다.父子간에 서로 보전하지 못해 이웃의 고통은 전 지역에 퍼져 제멋대로 악을 행하게 되니 명령으로나 법령으로도 제지할 수가 없었다. 강한 자들은 도적으로 행사하니 마을은 적막하게 되었고, 살던 곳은 갑작스레 황폐해져서 병졸의 쓸모없는 장부만 지니게 될 뿐 양식은 저축된 것이 없게 되었다. 태평한 100년의 세월 후에 불행하게 되어 백성들은 나라 안에서 무기를 지니게 되었고 섬과 산 속의 오랑캐들은 국경 밖에서 사나워지고 있었다. 그런 즉 밖으로는 성을 지키고 침략을 막는 일을 의탁할 데가 없이 되었고, 안으로는 절개를 지키고 의롭게 죽음으로서 지키려는 기쁨이 없어져 나라가 붕괴·와해되는 형세가 되어 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율곡의 논의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였다.

11) 「栗谷全書」卷六, 「應旨論事疏」

12) 「栗谷全書」卷七, 「司諫院乞變通弊法劄」

13) 「栗谷全書」卷五, 「玉堂陳戒劄」

2. 栗谷의 更張論과 弊法으로의 改革을 주장

모든 제도는 정치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폐단이 있게 되면 완전하지 못하므로 고쳐야 하는 것이다.

율곡은 更張에 관해서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는 “정치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일은 실질적인 것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를 하면서 때에 알맞게 할 줄 모르고 일을 당하여 실질적인 공효에 힘쓰지 않는다면 비록 성왕(聖王)과 현신(賢臣)이 서로 만나 다스린다 하여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¹⁴⁾ “법은 때에 맞게 제정하여야 하니, 때가 변하면 법도 같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응지논시사소(應旨論時事疏)」에서는 “때가 달라지고 일이 바뀌었는데도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긴다.”¹⁵⁾ 라고 하였다.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는 “時務는 동일하지 않아서 각기 마땅한 바가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創業, 守成, 更張일 뿐이다.”¹⁶⁾ “守成하여야 하는데 고치는데 힘쓴다면 병이 없는데 약을 복용하는 것이고, 경장하여야 하는데 지키는 것만을 따른다면 병에 걸렸는데도 약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¹⁷⁾라고 하였다.

「사간원시사소(司諫院時事疏)」에서 율곡은 安民정책에 관하여, 폐단과 병폐를 조사하는 것, 일족(一族)을 너그러이 대하는 것, 외방 관료를 잘 뽑는 것, 옥사와 송사를 공평하게 하는 것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율곡이 논한 시사(時事)와 시폐(時弊)에 관련하여 ‘一族을 너그러이 대하는 것’에 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일족을 너그러이 대한다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그들의 삶을 보전하지 못하는 것이 일족에게 연유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일족이 침해당하는 이유로는 세 가지가 있다. 수군과 육군은 태반이 충원되지 못하고 단지 빈 명부만 보존하고 있다. 거기에 정규군의 병졸까지 보태어 수자리를 군적에 의하여 나가도록 독촉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대가로 포를 바치게 하니 이것이 그 첫번째 이유이다. 각 官司에 선발하여 올리는 선상(選上)을 그 대가로 받고서 부역에 대신 하도록 했는데, 일시적인 役事로 인하여 그때마다 수를 더 불리어 民戶는 점점 줄어들고 選上 하는 수는 점점 늘어나서 징수하는 고통을 백성들이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그 두 번째 이유이다. 오래 묵은 땅도 그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고, 비록 떠돌아 다니게 되어 가호가 없어지고 풀과 나무가 숲을 이루었다라도 반드시 일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서 세금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경작하고 수확한 땅과도 조금의 차등이 없으니, 이것이 그 세 번째 이유이다. 이 세 가지 폐단은 백성을 궁지로 몰아넣는 큰 환난이었다. 조정에서는 更張하

14) 「栗谷全書」卷五, 「萬言封事」 선조7년(1574년 1월년 초에) 선조는 국난국을 위한 직언(直言)을 구하였다. 율곡이 39세 때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어 선조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

*이때 글을 검은 천주머니에 넣어 봉하여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15) 「栗谷全書」卷六 「應旨論時事疏」

16) 「栗谷全書」卷二五, 「聖學輯要」

17) 「栗谷全書」卷二五, 「聖學輯要」

려 하지 않고 수령들도 보고조차 하지 않으니, 그 고통은 이웃에 또 다른 이웃에게 파급되어, 그 형세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가 도망 다니니 온 나라의 밭(田)이 모두 묵히게 되고 황폐해져 그만둘 형편이다.”¹⁸⁾

이 글은 율곡이 31세 때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으로 임직하면서 동료와 함께 時務에 관한 세 가지를 논한 상소이다. 당시 호구, 전답, 세금, 균역 등 시폐(時弊)가 많았음을 알려준다. 경장으로서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민생은 날로 고달퍼진다는 것이다. 양민과 천민의 혼인 규정을 보면, 태종 때는 종부법(從父法)을, 세조 때는 종천법(從賤法)을 실시하여 자연적으로 천민이 늘게 되었다.

더 큰 원인은 호적법의 목적이 첫째 균등한 부역(賦役), 둘째 떠돌아 다니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만, ① 징역수에게 과하는 노역인 정역(定役)과 공물(貢物), 전세(田稅)등의 부담이 매우 무거웠고 ② 관리(官吏)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고 가렴주구(苛斂誅求)하였으며 ③ 私家에서 이식을 늘리는 것이 만연되고 ④ 가뭄과 수해, 충해 등으로 인하여 기근이 들거나 가난해져 권세가나 토호(土豪) 또는 양반들의 농장에 기탁하는 등의 원인으로 서민층은 감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과 군인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당시 국가의 1년 수입은 1년의 지출보다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율곡 당시의 사회현상이었다. 율곡은 근 20여년에 걸쳐 관직생활을 하면서 늘 경장(更張)과 혁폐(革弊)조정을 주장하였다. 혁폐에서 서자에게도 벼슬길을 터주고 공사천(公私賤)이라도 재능이 있으면 양인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율곡의 「진시사소(陳時事疏)」의 내용을 살펴본다.

“만약 신의 말을 쓰신다면 서자 및 공사천(公私賤)중에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각자 양식을 준비하여 南北道에 들어가 방비하도록 하십시오. …(중략)… 응모자가 많도록 하고 兵曹에서 재능을 시험하여 보내십시오. 서자의 벼슬길을 터주고 천예(賤隸)는 면천하여 양인이 되게 하며, 私賤은 반드시 本主가 단자(單子)를 병조(兵曹)에 올린 뒤에 재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인을 배반하는 노예가 없도록 하고 그 대가는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골라 주십시오.

만일 무재(武才)가 없는 사람이라면 南北道에 곡식을 바치도록 하되 멀고 가까운 것을 기준으로 많고 적음의 수량을 정하고, 벼슬길을 터주는 것과 양민이 되는 것도 무시(武試)처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군사와 음식이 약간은 방어 준비에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이시애(李施愛)의 난에 賤人으로서 무기를 운반한 사람은 모두 양민이 되게 하였고, 서자로서 종군한 사람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은 세종대왕께서 때에 따라 시행하셨던 규례입니다.”¹⁹⁾

율곡이 제안한 방법은 이미 세조 때에 시행되었으나, 율곡의 이러한 방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회신분제도를 타파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은 양반의 자식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을 개혁하여서, 적서(嫡庶)를 불문하고 모두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良民이 될 수

18) 「粟谷全書」卷三, 「諫院陳時事疏」

19) 「粟谷全書」卷七, 「陳時事疏」

있다고 하고 있다. 율곡의 이 글은 48세 때인 宣祖 12년(癸未) 4월에 일이다.

당시 율곡은 홍문관대제학 겸 배 의정부우찬성(弘文館大提學 兼 拜 議政府右贊成)으로 있었다. 다음 해 정월, 율곡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그의 이상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율곡의 弊法 개혁은 民生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당시 국왕이던 宣祖도 비록 “여러 관직을 두고 여러 직분을 나누는 것이 단지 민생을 위한 것”임을 알았지만, 宣祖는 개혁에 뜻이 없었으니, 율곡의 이상이 실현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율곡의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에는 “薺에 들어오는 규칙은 士族과 서민들을 막론하고 다만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을 모두 들어오게 한다.”²⁰⁾ 하였고, 「東湖問答」에는 “군읍(郡邑)의 유생은 모두 정원이 있으니 …(중략)…만약 정원 외의 유생 중에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은 모두 軍額에 보충하여야 한다.”²¹⁾라 하였다.

「社會契約束」에는 “서인과 천민 가운데서 일을 맡길만한 사람을 뽑아서 장무 1인을 둔다. …(후략)…”, “士人을 敎訓으로 정한다. 교훈은 인근 庶人과 賤民 가운데서 글을 모르는 자”²²⁾라 하였다.

율곡은 이러한 사람들을 도태시켜 군역을 보충할 수 있다고 여겼으니, 이는 양반계급이 갖고 있는 군역 면책이라는 특권을 타파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율곡의 향약은 분명히 향민을 한 가족과도 같이 여기려는 것이었으며, 사족이나 서민도 모두 들어올 수 있게 하여서 공자의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²³⁾ 「有敎無類」라는 말처럼 평민도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율곡의 향약은 서천(庶賤) 역시 초급관리인이 될 수 있었으며, 사람을 가려 구별하여 그가 이해 못하는 글과 모르는 법을 가르치고 이끌었으니, 향약의 목적은 “나가도 들어올 때 서로 짝하며, 지키고 망블 때에 서로 도우며, 질병이 있을 때에 서로 붙들어주고 잡아주는 것이다.”²⁴⁾ 하였다.

3. 파주향약에서 선양후교 강조

「坡州鄉約序」 내용에서는 “백성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으니, 규약을 제정한 것은 바로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²⁵⁾ 라고 하고 있다. 이렇듯 향약은 ‘養과 ‘敎’를 모두 중시하였으며, 서민층과 천민층 등의 모든 백성이 윤리에 밝도록 예의가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도적도 본래는 착한 양민이기 때문에 감화시켜 양민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심은 무상하여 오직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므로 율곡의 사회관은 결코 왕이나 통치자 위주의 사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율곡은 民生을 중시하였는데, 민생이란 바로 공동체적 생명활동을 말하고 있다. 사회의 주체는 사람이고, 국가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로 본다. 한 나라의 백성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조직 또는 형식에 의하여 생

20) 「栗谷全書」卷一五, 「隱屏精舍學規」

21) 「栗谷全書」卷十五, 「東湖問答」

22) 「栗谷全書」卷一六, 「社會契約束」

23) 「栗谷全書」卷二五, 「聖學輯要」

24) 「孟子」 「滕文公上」

25) 「栗谷全書」卷一三, 「坡州鄉約序」

활하며, 한 나라의 통치자(국가원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료들에게 직분을 나누어주고 백성에게도 이치 있게 이해를 시켜서, 농사와 공업도 모두 그 이치가 있게끔 모든 관료들에게 사무의 일을 하게 하여야 한다. 성리학에서도 강조하는 天理이다. 사람과 동물이 천리를 하늘로부터 얻어 자신의 生理로 삼고 있다. 이러한 生理가 없다면 그 생물은 죽게 된다. 율곡은 “백성들의 생리가 다하였다”²⁶⁾ 말하며, 生理를 중시하고 있다.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기 때문에 王者는 여러 관리를 통솔하여 재화를 생산하여 백성을 소생시키는 일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백성들의 괴로움을 풀어주며, 백성들의 자산을 넉넉히 해주며, 천부적으로 받은 바를 용납하여 그 본연의 착한 마음을 보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고 호적을 정리하게 된다면, 양민은 양병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군역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된다면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국가는 보존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율곡은 먼저 기르고 뒤에 가르친다는 선양후교(先養後教)를 주장하고 있다. 만일 백성들이 그 자리를 잃는다면 상황은 도치되어, “애처로운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무껍질을 벗겨 먹고 풀을 뜯어먹어 산은 험벗고 들판도 붉게 될 것이며, 강한 자들은 분기하여 들고 일어나 도적이 되고 약한 자들은 죽어 골짜기를 메우게 된다.”²⁷⁾고 주장하고 있다.

율곡은 “백성을 기르는 것을 먼저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은 뒤에 해야 한다. 『경연일기(經筵日記)』를 소개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점차적인 순서가 있으니, 먼저 백성들의 거꾸로 매달린 것과 같은 곤경을 풀어준 뒤에야 禮樂을 바르게 할 수 있다.”²⁸⁾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기 위해 음식과 의복이 필요하다.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며, 의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도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율곡은 “무릇 몸을 닦아 천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理로써 氣를 수양하는 이기양기(以氣養氣)하는 사람이요, 섭생(攝生)해서 장수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氣로써 氣를 기르는 以氣養氣하는 사람이다. 以氣養氣하면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장수함을 얻을 수 있고, 以氣養氣하면 비록 장수함을 얻었을지라도 혹시 理에 해로울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병나기 전에 氣를 기르고 병이 난 뒤에는 병을 치료하여 순리에 맞게 생명을 잃지 않아야 함이, 의약의 방도란 것이다.²⁹⁾ 옥당논군덕사사차(玉堂論君德四事筭)에서는

“마음은 본성의 걸들레이고, 몸은 마음의 틀집(區宇)이다. 몸이 편안함을 얻은 연후라야 마음이 보양될 수 있고, 마음이 보양된 연후라야 본성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였다.³⁰⁾

위의 여러 인용문이 있듯이, 養은 섭생(攝生)이며 의약도 攝生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養身 또한 養心이기 때문에 마음이 길러지면 ‘본연의 착한 마음’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장수하고 요절하는 것은 氣의 數에 의한 것으로 기품(氣稟)이다. 그러나 養身 잘하면 타고난 목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율곡이 주장하는 以理養氣는 方士들이 주장하는 장생술과는 같은 의미

26) 「粟谷全書」卷五, 「陳海西民幣疏」

27) 「粟谷全書」拾遺 卷六, 「盜賊策」

28) 「粟谷全書」卷二九, 「經筵日記」(甲戌)

29) 「粟谷全書」拾遺 卷六, 「醫藥策」

30) 「粟谷全書」卷六, 「玉堂論君德四事筭」

가 아니다. 율곡의 敎에 관한 견해는 「聖學輯要」, 학교 교육, 서원의 학규 및 향약에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전통 유가가 표방하는 人道主義를 발휘하고자 한다. 「聖學輯要」를 통하여 ‘誠’을 세웠고, 학교(館學과 鄉校를 가리킴)나 서원을 통해 ‘忠孝仁愛와 王道思想’을 세웠고, 향약을 통해 ‘信’을 세움으로써 양반과 서인의 관념을 세워 전국민 교육의 사상을 열어놓았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모두 본연의 선한 마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효제충신을 가르치고, 사유(四維)를 가르치고, 나가고 들어갈 때는 서로 우애가 있으며 어려움을 당하여는 서로 돕는 것 등을 가르쳤다. 이와 같은 점을 통하여 율곡의 교육사상은 ‘忠孝仁愛誠信’의 교육이며 또한 ‘致中和’의 사회사상임을 알 수 있다. 율곡은 도적(盜賊)도 또한 백성이라 하면서 나라 안의 백성은 물론 외국에 대하여도 그렇게 생각하였으니, 북쪽 오랑캐인 女眞 또한 사람이며 양식을 요청한 남방 대마도의 일본 사람 역시 사람이다. 율곡의 「時弊七條策」을 통하여 율곡이 당시 요동인이 도망 나와 국경 안으로 들어온 것, 여진이 국경을 넘어와 사는 것, 남쪽에 일본 선박이 출입하는 것 등의 문제에 대하여 모두 중도를 얻어 적의한 득중합관(得中合官)의 태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의 사회사상은 한 국가를 국제관계에서도 공생공영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인애와 화해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고, 여러 이웃 나라들과는 ‘인애와 화해의 국제관계’인 공생공영의 이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4. 율곡의 철학관과 이기심성론의 전개양상은 지면관계로 간략히 논한다.

(1) 이율곡의 이기심성의 활동

율곡의 이기심성론에서는 율곡의 이기심성론에 관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理氣不離와 一而二, 二而一이다.³¹⁾

둘째, “理氣之妙에서 …(중략)… 理는 형체가 없으나 氣는 형체가 있으므로 理通氣局이다. 理는 움직임이 없으나 氣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氣發理乘이다. 형체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것이 형체도 있고 움직임도 있는 것의 主가 되니 理이다.”³²⁾

셋째, “理氣之妙 …(중략)… 理氣一源論氣가 유행하여 들쭉날쭉하고 가지런하지 않으면 理도 유행하여 들쭉날쭉하고 가지런하지 않게 된다. 氣는 理와 떨어져 있지 않고 理도 氣와 떨어져 있지 않으니 理氣는 하나이다.”³³⁾

넷째, “(理通氣局) 人性이 物性이 아닌 것은 氣局이기 때문이다. 人之理가 곧 物之理이니 理通이기 때문이다. 모난 그릇과 둥근 그릇은 같지 아니하나 그릇 가운데의 물은 마찬가지로, 큰 병과 작은 병이 같지 않으나 병 속의 공기는 마찬가지다. 氣가 근본이기에 하나 인 것이다. 그것은 理通 때문이며, 理가 만 가지로 다를 수 있는 것은 氣局 때문이다. 本體중에 流行이 있고, 流行중에 本體가 있다.”³⁴⁾

31) 「栗谷全書」卷二十, 「聖學輯要」

32) 「栗谷全書」卷七, 「答成浩源」

33) 「栗谷全書」卷十, 「答成浩源」

34) 「栗谷全書」卷九, 「答成浩源」

이상의 몇 가지 예는 율곡 이기론의 특색으로 몇 가지 소개한다.

1. 율곡은 ‘理氣不離’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理主(주재) 氣器(형기)’ 및 ‘氣發理乘’ 역시 이기의 ‘所以然과 所然의 의미’를 중요시한다.
3. ‘理通氣局’은 ‘理一分殊’와 ‘性同氣異’ 설을 종합하여 말하는 것이며, 특수명사로서 物性의 동이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주자는 理發과 氣發을 말하였고, 본체론의 측면에서도 또한 인식론의 측면에서도 말하고 있다. 율곡의 이기론은 천지의 변화와 만물생성 그리고 사람의 성정의 문제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율곡의 심성론에 중요한 점은 6가지 중에 6번째만 설명한다.

여섯째 설명은, “인심도 도심은 모두 氣의 발현이나, 氣가 本然之理에 순응하면 氣 또한 本然之氣이므로 理가 그 本然之氣를 타고서 도심이 되며, 氣가 本然之理에서 변한 것이 있으면 역시 本然之氣도 변하므로 理 또한 역시 변한 바의 氣를 타고서 人心이 되어 혹은 지나치기도 하고 혹은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人心과 道心은 모두 性에서 말하는데, 氣에 가리워진 것은 人心이요, 氣에 가리워지지 않은 것은 道心이다.”³⁵⁾

이상 여러 예문을 통하여 율곡의 심성론은 그의 이기론으로부터 유래하며, 우리 마음의 작용이란 곧 천지의 조화라는 것이다.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에 있어서, 율곡은 “情으로서 완전히 구비한 것은 사단보다 칠정이요, 情으로서 순수한 것은 칠정보다 사단이다.” 라고 한다, 이는 그의 독자적인 논리이다. 이 내용은 주자도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또한 마음이 발하여 “기에 가리워진 것은 人心이요, 氣에 가리워지지 않은 것은 道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주자와 같지 않은 논리이다. 율곡은 이기심성론에서 모든 사람이 이기심성의 원리로 살아갈 것을 논한다.

율곡은 養身과 養心을 똑같이 중요시 했다. “마음은 본성의 걸들레이고, 몸은 마음의 틀집 구우[區宇]이기 때문에, 몸이 편안함을 얻은 후에야 마음이 보양될 수 있고, 마음이 보양을 얻은 후에야 본성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현의 학문을 익힘에서는 그 뜻을 지니게 된 다음에 그 기운을 보양하여 혈기가 충만하고 완전하도록 하고 참된 원기가 손상당하지 않게 마음을 보양하는 효과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³⁶⁾ 養身은 양생인 攝生으로 ‘以氣養氣’이며, 養心은 몸을 수양하여 명을 기다리는 것으로 ‘以理養氣’이다. ‘以理養氣’는 음식과 의복 그리고 질병 등 물질상의 수요가 따르게 된다. 율곡 또한 “衣食이 풍족하게 된 후 예의를 안다. 의식족후지례의[衣食足後知禮義]”고 하였다. 사람의 의식문제는 인류의 생활 가운데 자연적으로 심리현상이 요청되는 문제이다. 養氣는 한 사람의 신체와 혈기가 충족되어 형체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하며 순수함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또 ‘以理養氣’란 이치에 타당하게 養氣함으로써 養心을 돕게 하는 것이다. 養心은 본연의 착한 마음을 보존하려는 것이다. 유가가 말하는 心, 특히 孟子, 程朱, 퇴계와 율곡 등 여러 유학자들이 말하는 心이란 道 본체의 마음인 것이다. 이 마음은 天理와 生理로부터 요청하게 하므로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해준다. ‘以理養心’하여 마음으로 일신의 행위를 주재한다면, 도덕적 理가 氣적 형체인 몸에 세워짐으로써 물질적 생명은 도

35) 「栗谷全書」卷十, 「答成浩源」: “人心道心, 俱是氣發, 而氣有順乎本然之理者, 則氣亦是本然之氣也……”

36) 「栗谷全書」卷六, 「玉常論君德四事疎」

덕적인 정신생명으로 승화되게 된다. 이러한 생명적 활동인 ‘命’은 천리로서, 천리는 孝·悌·忠·信·仁·愛 등의 여러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다. 율곡이 언급한 民生은 주로 우리의 자신의 본국백성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상황은 비교적 부유한 양반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려운 의식생활로써 유랑하는 백성들이었다. 율곡이 언급한 내용들은 바로 당시의 사회현상이었다. 백성이 恒産이 없고 衣食도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조정에 불만을 갖게 될 것은 당연지사였다. 조정에 대한 불만 역시 그들의 七情 가운데 있는 怒, 惡, 懼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었다. 만일 정치가 순조롭고 여러 관리들이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한다면, 모든 백성은 처신할 바를 얻고 안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할 것이다. 율곡이 폐법(幣法)을 개혁하여 民生을 구제하려고 한 것은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의 표현으로서 율곡 한 개인의 이기심성을 발현하여 표현한 것이다. 백성이 衣食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염치(廉恥)를 잊어버리게 되며, 그 본연의 착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율곡과 명도(明道)는 천하의 선악은 모두 천리라는 견해로 보는 것이다. 악이라 일컫는 것은 본래 악이 아니며, 단지 혹 과하거나 혹 모자라서 이같이 된 것이라 한다. 율곡은 “하늘이 하늘 된 소이와 사람이 사람 된 소이와 선한 것이 길(吉)한 소이와 악한 것이 흉(凶)한 소이는 모두 理가 그렇게 하지 않은 바가 없다.”³⁷⁾ 라고 하였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이른바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 생명을 도와주는 ‘호생지천덕(好生之天德)’ 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天理에 의거하여 살 때에 가치가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만 존엄할 수 있다. 공자가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보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율곡이 주장하는 更張과 革弊 그리고 천민을 양민화하거나 혹은 신분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들은 生理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람들의 행위가 모두 氣發理乘이나 理氣之妙에 의해 발휘되고 활동이 되도록 하려던 것이다. 이와 같이 되어야만, 사람의 생활과 행위에 가치가 있게 될 것이며, 생명과 인격과 존엄이 있게 된다는 점은 율곡이 주장하고 있는 일면이다.

IV. 결론 - 이기치묘의 발전적 원리와 현대적 관점

여기서는 기발이승(氣發理乘)이나 이통기국(理通氣局)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기치묘(理氣之妙)는 理와 氣가 오묘하게 합해져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기묘합(理氣妙合)의 준 말이다. 율곡이 처음 말한 것은 아니고, 중국 당나라 아부구공(亞父丘公)의 풍수지리설에서 사용한 것이다. 조선 초기에 정여창(1450-1504), 조광조(1482-1519), 송기수(1507-1581), 서경덕(1489-1546), 이황(1501-1570), 기대승(1527-1572)에 의해 사용된 말들이다. 그러나 율곡은 천지만물 모두가 理와 氣가 오묘하게 합해있다고 하고 있다. 형이상(形而上)과 형이하(形而下)가 하나의 존재모양으로 있다는 말이다. 율곡의 설명을 살펴보면 理와 氣가 어느 시간적 계기에

37) 성즉리(性卽理): 인간의 본성(本性)은 곧 천리라는 말, 논자 석사 논문 참고, 54p.

*『栗谷의 理氣論 研究』심성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논문, 2004.

서 합해진 것이 아니라, 본래 합해져 있다는 점에 강조를 한다. 그러므로 理와 氣는 시간적으로 선후(先後)가 없고 공간적으로는 조금의 간격도 없다는 것이다. 理는 형이상자요, 기는 형이하자로 서로 다른 둘인데, 하나의 존재양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존재양으로 있지만 그 속에서는 理는 理이고 氣는 氣로서 구별해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그는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一而二 二而一)’라고 하고 있다.

존재자체로 보면 理와 氣는 구별할 수 없는 하나로 있는데 그것을 가치관으로 나누어 보면 理와 氣는 엄연하게 구별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오묘한 관계를 율곡은 간략하게 그의 가치관의 조화를 말하고 있다. 理와 氣의 관계를 말하면 여기서 理는 윤리적, 정신적 가치를 말하고 있으며, 氣는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

또 理를 이상적인 윤리적 가치로 본다면 氣는 경제적, 현실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기지묘(理氣之妙)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 윤리와 경제의 조화 정신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조화는 단순한 합(合)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다. 서로 다른 理와 氣의 가치를 각각 양쪽의 주장이 온전하게 하나로서 소통되는 의미의 조화인 것이다. 율곡은 존재세계에서만 理와 氣를 말(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가치세계에서도 理와 氣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율곡의 균형잡힌 정신은 현대적 균형잡힌 시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유학에서 말한다면, 孔孟의 원시유학과 宋明理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理學에도 ‘心即理’와 ‘性即理’의 구분이므로 생각할 수 있다.

程朱의 ‘性即理’의 학문은 ‘理와 氣’라는 두 개념으로 천지의 변화와 만물의 생성과 사람의 심성문제를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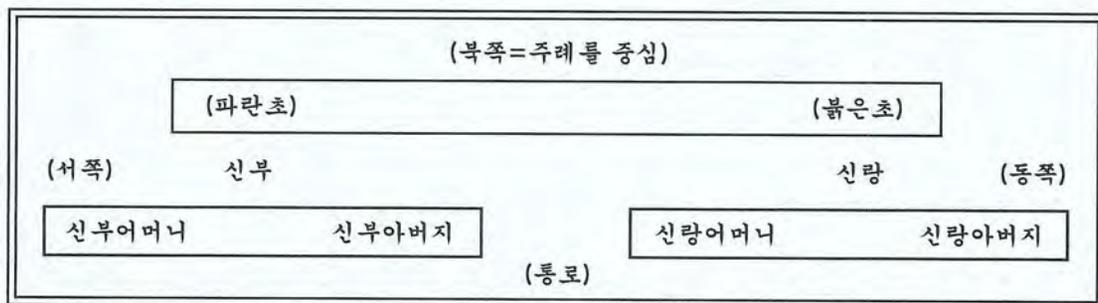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비록 주자의 이기사단칠정(理氣四端七情)문제에 관하여 같지 않은 견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효(忠孝)와 명륜(明倫)을 중심으로 ‘人愛’, ‘誠信’, ‘和合’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200여년 동안에 그 체제가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와 거주, 언론, 종교 등에 자유가 있게 하였으며 생존권, 근로권, 재산권이 있고 법으로 규정된 일련의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민주사상으로 부터의 ‘인권’ 중시는 1948년 UN에서 ‘인류 공통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려는 내용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제정하였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이 넘는 오늘날 우리는 율곡의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 동양유가의 경전과 후세 유학자의 저술에도 모두 보편적인 人道와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고 分明하게 자연스레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율곡 이기론 연구 (이기심성론적 전개) 참조요 p.61~74
- 「栗谷의 理氣論 研究」, 심성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논문, 2004.
- 율곡전서 1권, 2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혼인예식에서 신랑, 신부 올바른 위치도

김면기(파주문화원 이사·성균관 전례위원)



(신부 입장)



신부 아버지

(남쪽)

1. 혼인예식에서 신랑, 신부는 신랑이 동쪽이고, 신부가 서쪽이다.
2. 화촉을 밝히는 방법은 붉은초는 신랑어머니, 파란초는 신부어머니가 점화한다.
3. 신부가 입장할 때도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우측(동쪽)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인도해야 한다.
4.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도 주례 앞의 위치에서 그대로 돌아서서 내빈에게 인사하고 퇴장한다.
신랑이 동쪽, 신부가 서쪽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5.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지킨다.
6. 폐백을 올릴 때도 시아버지가 동쪽, 시어머니가 서쪽이다
*요즈음 신식혼인예식에서 신랑, 신부가 바뀌어서 죽은 사람위치에서 예식을 올리고 있으니 바로 잡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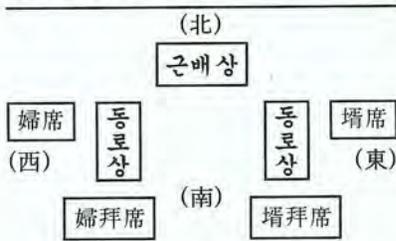
예식장의 업주는 자각하여 항상 붉은초는 동쪽, 파란초는 서쪽중심으로
신랑, 신부의 위치를 찾아 주자!!!

예절의 방위와 상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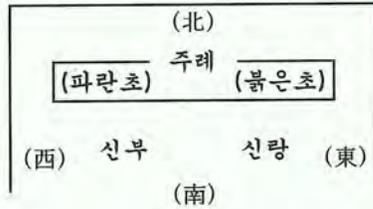
1. 혼인

1. 혼인예식에서의 신랑, 신부는 신랑이 동쪽이고, 신부가 서쪽이다.

· 전통혼인례



· 신식혼인예식



2. 화축을 밝히는 방법은 붉은초는 신랑어머니, 파란초는 신부어머니가 점화한다.

3. 전통혼인 및 신식혼인의 경우 주례가 있는 곳이 상석(북쪽)이므로 주례가 하객(남쪽)을 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동쪽)이 신랑, 오른쪽(서쪽)은 신부의 위치가 된다.

4. 상하석(上下席)의 기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나 예절행사를 할 때는 위계에 맞게 상하석을 찾아서 위치하고 좌석을 정해야 한다.

① 동쪽과 서쪽에서는 산 사람은 동쪽이 상석이고, 죽은 사람은 서쪽이 상석이다.

[生者以東爲上 死者以西爲上, 神位以西爲上 子孫以東爲上]

② 북쪽과 남쪽에서는 생사 모두 북쪽이 상석이다. [尊長南向爲席]

③ 중앙과 양단(兩端)에서는 중앙이 상석이다.

[中以爲上, 昭穆之序 丈夫席東 以西爲上 婦人席西 以東爲上]

④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는 높은 곳이 상석이다.

⑤ 편리한 곳과 불편한 곳에서는 편리한 곳이 상석이다.

⑥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에서는 안전한 곳이 상석이다.

⑦ 상석에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는 상석에 가까운 곳이 상석이다.

⑧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상석이다.

[男象天 則陽, 女象地 則陰]

⑨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은 문관이 상석이다.

[武凶器 凶則陰, 文東班 武西班 是爲兩班]

⑩ 위 기준이 상충될 때는 의식의 목적이 가까운 기준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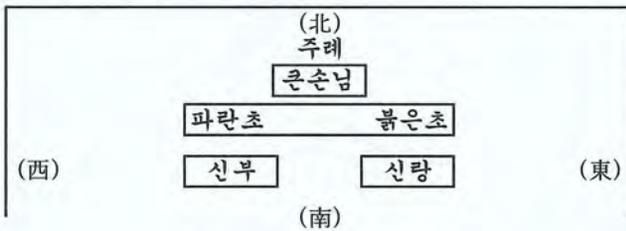
5. 좌석배치의 실제

① 혼인예식장에서의 신랑, 신부는 신랑이 동쪽이고 신부가 서쪽이다. [婿東婦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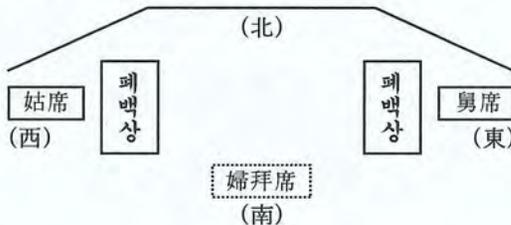
· 전통혼인례



· 신식혼인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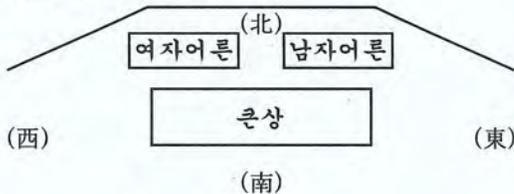


② 신부가 시부모에게 현구고례(見舅姑禮) 할 때는 시아버지가 동쪽이고, 시어머니가 서쪽이다. (舅東姑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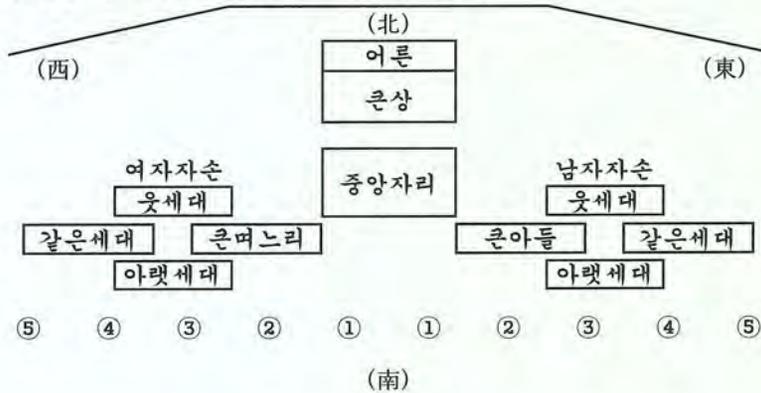
③ 수연(壽筵)에서는 남자어른이 동쪽이고 여자어른이 서쪽이다.

[丈夫處東 婦人處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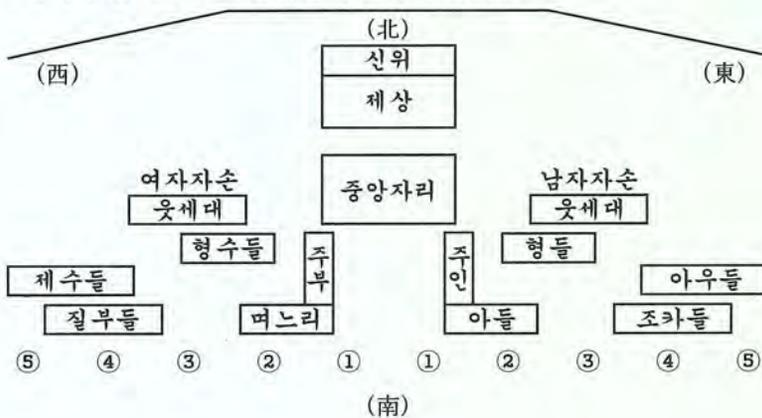


④ 자손이 어른에게 하례(賀禮)를 드릴 때나 제의에서의 서차(序次)는 가운데의 절하는 자리를 경계로 해서 남자자손은 동쪽에 위치하는데, 서쪽(중앙)을 상석으로 하고, 여자자손은 서쪽에 위치하는데, 동쪽(중앙)을 상석으로 하며, 남녀 모두 북쪽 앞쪽에 웃대, 남쪽 뒷줄에 아랫대가 열지어 선다.[男東席西上 女西席東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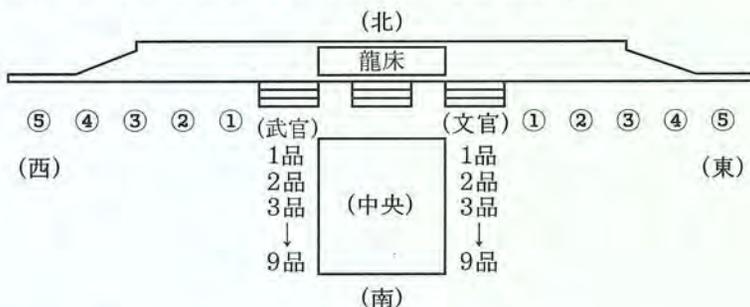
· 수연등 하례시 <※ 관계는 큰아들 중심임>



· 제의례 참례시 <※ 관계는 주인과의 관계임>



⑤ 조정에서 임금에게 조하(朝賀)를 드릴 때는 문관(文官)이 동쪽이고, 무관(武官)이 서쪽이며, 문무 모두 북쪽을 상석으로 한다.[文東武西 北上]



⑥ 지방·신주의 신위와 묘지의 시체는 남편이 서쪽이고 부인이 동쪽으로 한다.
 [神位以西爲上, 考西妣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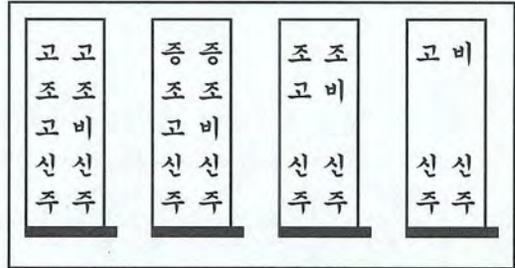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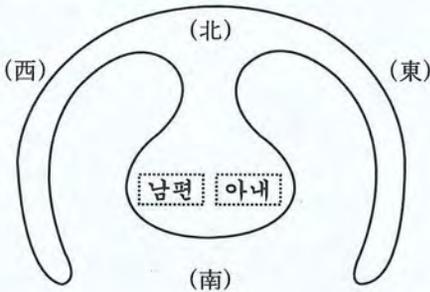
· 지방(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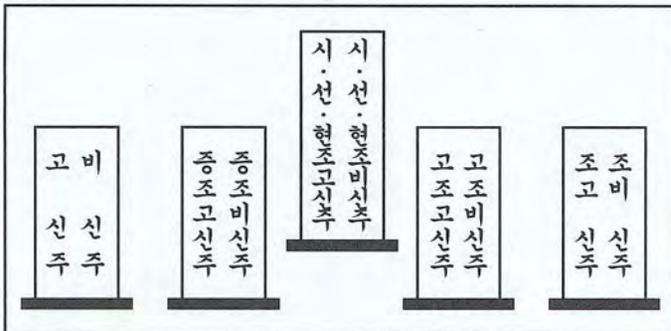
· 신주(北)



⑦ 한 사당에 고조까지 4대의 신주를 모실 때는 서쪽에서부터 고조, 증조, 조고의 순서로 모신다.[神位以西爲上]



⑧ 한 사당 시조·선조·웃대부조 지위와 고조까지를 모실 때는 시조·선조·불천지위(不遷之位)는 중앙 북쪽에 모시고 고조까지 4대는 소(昭)·목(穆) 순으로 모신다.[昭穆之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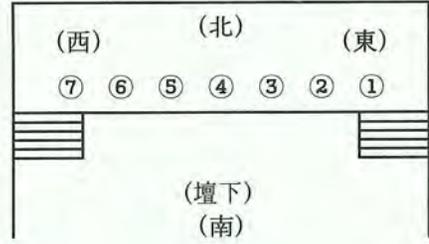


⑨ 행사장의 단상(壇上) 좌석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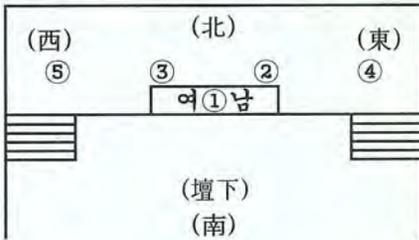
· 중앙이 상석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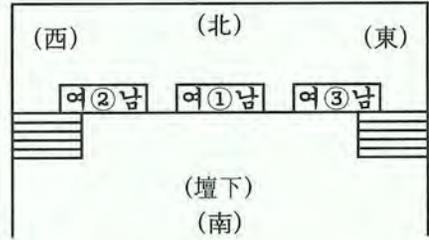
· 동쪽이 상석일 때



· 주변 1쌍만 부부동반일 때 <중앙이 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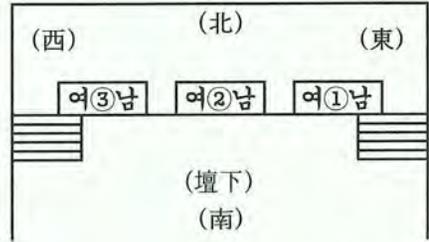
· 모두 부부동반일 때



· 주변 1쌍만 부부동반일 때 <동이 상석>



· 모두 부부동반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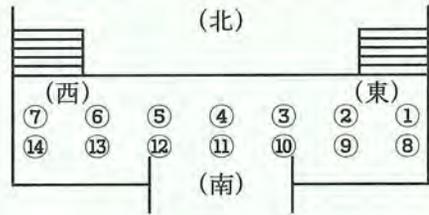


⑩ 행사장 단하의 좌석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중앙을 갈라 양편으로 앉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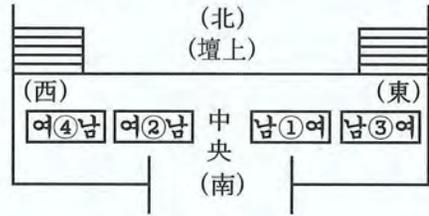
· 중앙이 없이 동쪽이 상석일 때



· 남녀좌석을 구분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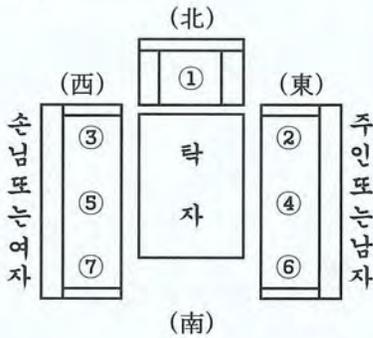


· 부부동반 중앙상석일 때



⑪ 응접셋트나 식탁에 앉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응접용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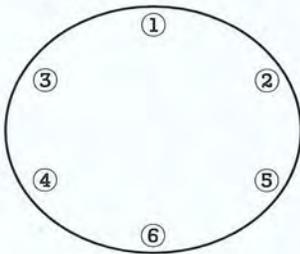


· 식탁에 앉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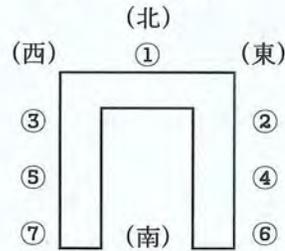


⑫ 회의장소의 좌석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원탁형



· ㄷ자형 <상석 1人>



· ㄷ자형 <상석 3人>



· 대좌형 <북이 상석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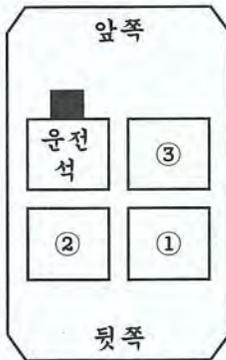


· 대좌형 <중앙이 상석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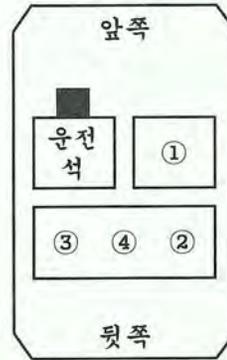


⑬ 승용차를 탈 때의 좌석배치는 다음과 같다.

· 타인운전일 때



· 자가 운전일 때



⑭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대중교통수단 [버스, 기차, 배, 비행기]을 이용할 때의 좌석 배치는 다음과 같다.

- 창쪽과 통로쪽은 창쪽이 상석이다.
- 가는 방향을 바라보는 쪽과 등지는 쪽은 바라보는 쪽이 상석이다.
- 안쪽과 출입문쪽은 안쪽이 상석이다.
- 안전하고 편리한 곳과 위험하고 불안한 곳은 안전하고 편리한 곳이 상석이다.

龍尾里(용미리)의 地名由來

이영복(파주문화원 이사·성사영당 유사)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龍尾里)의 地名 由來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미리란 지명이 언제부터 정해졌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용암사(龍岩寺) 석불이 고려 중엽에 세워진 역사로 미루어 보면 그전 고려초나 또는 더 이전에 정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용미리란 글자 그대로 용(龍)의 꼬리라는 뜻이니 ‘용(龍)에 꼬리가 있으면 용(龍)의 머리가 있어야 하며 용(龍)의 몸통은 어데인가?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정체를 찾아보기로 했다.

이곳 용미리에서 남쪽(서울방향)으로 약 5km쯤 가면 용본(龍本 : 지금의 대자리)이 있다. 이곳이 용에 중심이 되는 몸통이요, 그곳으로부터 약 5km쯤 남쪽(서울방향)으로 가면 용두리(龍頭里 : 용머리)라는 지명이 있으니 이곳이 용의 머리라는 뜻이다. 그리고 보면 용두리, 용본, 용미리는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고 할 수 있다.

옛날 선현들은 풍수지리(風水地理)를 보는 안목이 이처럼 발달하였음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일맥상통하도록 판단할 수 있었을까? 자못 신기하면서도 이해가 안된다.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여 헬리콥터를 타고 보듯 용의 형태를 알아냈으니 말이다.

그 밖에도 우리 부락에는 용과 관련된 지명이 더 있다. 옛날 지도에는 우리 부락이 구룡동(九龍洞)으로 되었으며, 지금도 오룡(五龍)굴이라는 지명이 있다.

옛날 지명은 그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 부락 리(汾水里)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경계의 한지붕에서 북쪽으로 떨어지는 빗물은 임진강으로 흐르고, 남쪽으로 떨어지는 빗물은 한강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분수리 지명에 물나눌 분(汾)자를 썼으니 옛날 선현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파주의 새들

이미영(파주 문화유산 해설사)



파주를 찾는 겨울철 새들을 살펴보면 시베리아, 몽골 등지에서 오고 있다. DMZ에 주로 서식하는 새들을 살펴 보자.

재두루미, 두루미, 청둥오리, 쇠기러기, 큰기러기,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황오리, 독수리 등이 주로 관찰된다. 이곳을 찾는 겨울 철새들은 이곳에서 월동을 하며 3~4월에 고향으로 가서 산란을 한다. 일부는 남쪽인 호주, 일본 등지로 날아가서 월동을 한다.

그럼 왜 철새들이 파주를 찾는 것일까?

그것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기수구역 때문이다. 우리나라 4대강에 기수역이 있었다. 옛부터 낙동강을 비롯해 많은 철새들이 날아 왔지만 지금 현재는 모든 강의 기수역(汽水域)이 무너졌고, 한 곳 남은 곳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곡릉천을 비롯 임진강 주변이다. 기수역은 제3의 물이 존재하는 곳으로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곳이다. 이런 곳에서 서식하는 종 다양성 때문에 새들이 찾아 오는 것이다. 이곳은 습지가 잘 조성된 관계로 여러 가지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세모고랭이, 나문재, 모새달 등의 기수성 식물과 다수 갑각류, 무척추동물 등이 습지를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어 새들에게 풍부한 먹이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부민통선의 습지지역은 범람과 퇴적을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진 드넓고 비옥한 농경지로 선사시대부터 사람과 동물이 살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가졌으며, 종 다양성은 이제 세계의 관심사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들로 인해 DMZ이 동북아 철

새들의 이동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로 미루어 볼 때 그 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아마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물류수송이나 차량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민통선 일원으로 몇해 전부터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 인삼밭이다. 매년 들어갈 때 마다 산등성이 하나가 잘려 나간다. 파주에서 개최하는 '개성 인삼축제'를 시작하면서 그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런 개발로 인해 조만간 이곳에서의 새 구경이 어려운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

자, 그럼 이곳 새의 특징을 살펴 보자. 우선 독수리를 들 수 있다. 독수리는 사냥을 못한다. 몽골이나 시베리아에서 날아오고 있으며 3년이 안된 유조들이 먹이사슬에서 밀려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날개를 다 뻗을때 길이가 2m가 되며 이보다 넘는 것도 있다. 어린것은 검은색이 짙으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색이 짙은 회색으로 나타난다. 후각과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 50km까지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독수리 월동지에서 최대 관찰된 것은 200여 마리이다.

다음으로 재두루미를 살펴 보면 재두루미는 가족단위로 움직인다. 3~4마리가 같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린 새와의 구별은 눈주위를 보아도 되고 목의 색깔을 보아도 된다. 어린새의 경우 눈주위의 피부가 어미새 보다 붉은색이 어리고 목선도 어미새보다 검은빛이 어린 것을 알 수 있다. 키는 100~120m 로 크며 암수 구별이 별로 없는 겨울 철새이다. 두루미도 이곳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마

리수는 재두루미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해마다 두 세 가족씩 오고 있다. 재두루미는 주로 농경지의 뿌리나 낱알을 먹는데 두루미는 갑각류도 같이 먹는 관계로 웅덩이가 있는 논에서 주로 관찰된다. 키는 재두루미보다 좀더 큰 130m이고 몸통도 좀더 통통하고 흰색의 우아함이 아마도 계급으로 따지면 한수 위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개체수도 더 적다. 이곳에 검은목두루미도 관찰되고 있으며 올해 관찰에선 1마리가 관찰되었다. 그 밖에 쇠기러기와 큰기러기, 청둥오리, 원앙, 황오리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오리류와 기러기류를 구별하는 방법은 날 때 알 수 있다. 일자나 브이자를 그리며 나는 것은 기러기류라고 보면 되고 그룹으로 천방지축 나는 것은 오리류로 보면 된다. 여기서 쇠기러기와 큰기러기의 구분도 알아 보자. 날 때 배에 아무 무늬가 없는 것은 큰기러기, 날 때 배에 검은 줄이 그어있는 것은 쇠기러기이다. 오리류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청둥오리이며 황오리는 주로 곡릉천 중류인 주공단지 위쪽으로 새로난 도로에서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궁금한 또 한가지!

새는 왜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새의 암수 구분이 심한 것은 매년 암컷을 바꾼다. 그래서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컷의 몸단장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혼인깃이라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청둥오리나 원앙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들은 짝짓기 철이 되면 화려한 색으로 몸을 치장하고 암컷을 유혹하는 것이다. 여기서 혼인깃을 띠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한평생 부부로 살아가는 종들이다. 더불어 혼인깃을 띠는 종들은 주로 어미가 새끼를 부양하는 반면, 혼인깃이 없는 종들은 부부가 같이 새끼를 부양한다. 두루미류가 평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쪽이 죽더라도 재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종이다.

또한 새들이 얼음판에 앉아도 발이 얼어붙지 않는 이유가 있다. 새들의 기관중에 원더네트(wonder net)란 기관이 있는데 우리의 발목 정도에 해당된다. 이곳에서 열을 차단하는 관계로 새들은

동상이나 얼음판에서도 견딜수 있는것이다. 또한 새들은 날개 쪽지에 기름샘이 있어 수시로 깃털에 기름을 바른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노는 새들을 보면 털 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열심히 기름을 바르고 있는 것이다.

서부DMZ일원에서 서식하는 조류는 2007년 12월 현재 조사하여 기록한 종만 총 14목 41과 167종에 이른다. 그 중 법적 보호종만 보더라도 멸종 위기 1급인 흰꼬리수리, 두루미, 저어새 등은 8종이며 멸종위기 2급인 개리, 재두루미, 독수리, 물수리, 뜸부기, 새홀리기, 붉은배새매 등 21종, 특정종인 파랑새, 청호반새, 피꼬리 등 27종으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원앙 등 22종, 총 56종으로 생태계의 보고(寶庫)라는 별칭에 손색이 없다.

또한 각종 맹금류들의 번식활동도 활발하여 대표적으로는 수리부엉이, 새홀리기, 황조롱이, 솔부엉이, 금눈쇠올빼미 등이 이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있다. 서부DMZ 일원의 야산과 농경지, 소하천, 둠벙 등지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여름 철새 피꼬리와 청호반새, 호반새, 파랑새, 흰눈썹황금새, 붉은배새매 등도 이곳에서는 흔하게 보는 새들이다.

이와 같이 서부DMZ일원은 그동안 분단의 상황 속에서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자연 스스로 복원되어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생태환경은 점경지 생물권으로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는 생물종들이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한반도의 허리는 생태계의 복원이라는 녹색 생명 벨트로 인식되고 있다. 서부DMZ일원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는 진정한 생명의 평화지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세대는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말아야 할 것이다.



君主役割論을

中心으로 考察한 孔子의 政治思想

이상원(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과정)

〈目次〉

I. 序論

II. 本論

1. 春秋末期의 時代狀況

- (1) 武의 崇尚과 禮의 崩壞
- (2) 刑罰에 의한 暴壓政治
- (3) 實踐보다 巧言을 앞세운 世態

2. 孔子의 君主役割論

- (1) 君主의 他位와 役割
- (2) 君主의 條件와 役割

(3) 君主의 權力와 役割

(4) 君主의 職務와 役割

(5) 君主의 行爲와 役割

3. 孔子의 君主役割論이 남긴 그림자(暗)

- (1) 君主爲主의 思想
- (2) 政治를 道德의 從屬變數로 看做

4. 孔子의 君主役割論이 남긴 빛(明)

III. 結論

I. 序論

孔子는 큰 政治를 펼쳐보고 싶어했던 政治思想家이다. '論語'에 담긴 孔子의 思想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出師表에 다름아닌 政治學原論이다.

孔子가 꿈꿔왔던 理想社會의 모습은 聖人의 경지에 도달한 君主가 北極星처럼 우뚝하게 體制의 頂點에 앉아 모범을 보이고, 君子의 勸諭를 거친 官吏들이 그를 보좌하고, 그 아래로 社會의 구성원들이 각자 제 役割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¹⁾ 따라서 社會의 秩序와 繁榮은 피라미드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는 君主의 役割에 달려 있다.²⁾

君主가 우아한 德性으로 百姓들을 감동시키고, 모든 百姓이 君子가 되는 품위있는 社會, 이것이 孔子의 理想이다. 이것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 즉 君主의 德性으로 움직이는 政治다.

기본적으로 孔子는 百姓 위주의 思想家라기 보다는 統治者 위주의 사상가이다. 또한 德化니 道德政治니 하는 것이 품격과 능력을 갖춘 聖人君主의 출현여부에 달려 있다고 한 점에서도 孔子의 政治思想은 다분히 君主本位이다. 물론 爲民이니 重民이니 해서 百姓을 重視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百姓들의 位相을 높이 評價한 것도 아니고, 百姓들이 當代의 政治問題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다. 단지 바람과 풀의 비유³⁾를 들어 가며 어떻게 百姓들에게 널리 고무 德을 베풀고, 더 나아가 百姓들이 人格的 完成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고 구상했을 뿐이다.

孔子가 正名을 주장하고 堯舜임금의 德化政治를 강조한 것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位階秩序의 頂點에서 있는 君主에게 제 役割을 다해줄 것을 요청

하는 強力한 메세지인 것이다. 孔子는 당시 亂의 原因이 君主를 비롯한 統治階層의 문란함에 있다고 진단하고 始終一貫 統治者의 입장에서 問題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 백성들이 下意上達式으로 政治問題에 참여해야 한다고 선동하거나 市民的 政治意識을 부추기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 意味에서 君主役割論을 中心으로 孔子의 政治思想을 考察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 本論 部分에서는 孔子가 살았던 春秋末期의 時代狀況과 論語에 나타난 孔子의 君主役割論을 일별하고 君主役割論이 우리에게 남긴 明暗을 살피고자 한다.

II. 本論

1. 春秋末期의 時代狀況

(1) 武의 崇尚과 禮의 崩壞

孔子가 살았던 春秋時代 末期는 귀족들간의 상호 침략과 철기 농기구의 보급으로 인한 生産力의 發達로 말미암아 周 初期의 宗法制·分封制·井田制가 붕괴되면서 政治·社會·經濟的 측면에서 급격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즉, 諸侯國들은 월등한 經濟力과 軍事力을 바탕으로 天子國에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약소한 諸侯國을 침략하는 등 霸諸侯로 군림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현상을 孟子는 “세상이 쇠하고 道가 隱微해져 邪說과 暴行이 일어났다. 臣下로서 임금을 시해하는 자가 있었고 子息으로서 그 아버지를 죽이는 자가 있었다.”⁴⁾ 고 묘사하였다.

春秋에 기록된 魯나라 隱公으로 부터 哀公 14년까지 240년간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 사건이 36차례나 되었으며, 子息이 아버지를 弑害한 일도 적지

1) 論語, 爲政 1, “...爲政以德, 譬如北長, 居其所, 而衆星, 共之.”

2) 조광수 저, 「論語」, 책세상, 2003, 176쪽.

3) 論語, 顏淵19,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 心偃.”

4) 孟子, 滕文公下, “世變道微, 邪說暴行有作, 臣弑其君, 子弑其父者有之.”

않았던 사실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諸侯가 天子를 능멸하고, 大夫가 諸侯에게 반기를 드는 등 宗法制가 무너져 버림으로써 天子는 겨우 명목상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실질적인 權力은 제후에게로 넘어갔으며, 諸侯들의 권력도 大夫에게로 넘어간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禮의 崩壞로 인해 大夫가 天子나 諸侯만이 사용할 수 있는 禮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魯나라의 季氏와 齊나라의 管仲이라 하겠다.⁹⁾

결국, 禮의 崩壞는 정치에서 禮治가 사라지고 힘에 의존하는 政治가 실현됨을 의미한다. 이에 孔子는 諸侯와 大夫들이 자신의 權力과 武力만을 믿고 天子와 諸侯들을 능멸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속에서 禮秩序의 회복이 절실함을 느꼈던 것이다.

(2) 刑罰에 의한 暴壓政治

孔子 당시의 諸侯들은 對外的으로는 覇權을 추구하고, 對內的으로는 백성을 가혹한 刑罰로 위협하는 暴壓政治를 일삼았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魯나라의 政治 實權者인 季康子가 孔子에게 “만일 無道한 者를 죽여서 道가 있는 데로 나아가게 하면 어떻습니까?”⁶⁾라고 質問한 것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孔子는 이러한 刑罰萬能主義를 타파하고 德과 禮에 입각한 政治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孔子가 당시의 刑罰主義를 비판한 이유는 첫째로, 指導者의 善선수범이 전제되지 않은 채 백성들에게 刑罰을 과하는 것은 그 자체가 暴政으로서 결국에는 刑罰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孔子는 德으로 감화시키는 정치와 禮로 질서를

잡는 政治를 회귀하였으며,⁷⁾ 刑罰은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孔子가 당시는 刑罰主義를 비판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 刑罰이 公平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⁸⁾ 禮樂이 무너진 시기에 刑罰도 公平(的中)하지 못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刑罰이 公平하게 시행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데, 더욱이 公平하지 못한 형벌은 百姓들에게 桎梏을 가할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孔子는 이상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 당시의 刑罰主義를 비판하였다.

(3) 實踐보다 巧言을 앞세운 世態

孔子가 살았던 당시는 實踐보다는 말만을 앞세우는 경향이 강하였다. 더 나아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어질다고 여기는 풍조가 있었던 것 같다. 孔子는 “祝鮀와 같은 말재주와 宋나라 公子인 朝의 미모를 갖고 있지 않으면 患亂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⁹⁾ 라고 하였다. 또 孔子는 “말을 교묘하게 잘 둘러대고 얼굴 빛을 좋게 하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이 드물다”라고 巧言과 색을 강하게 비판하였다.¹⁰⁾

이처럼 孔子가 말재주를 싫어한 것은 實踐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¹¹⁾ 사람(人)의 말(言)이 곧 믿음(信)이 된다.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孔子는 실천이 결여된 巧言을 비판하고 訥言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2. 孔子의 君主役割論

(1) 君主의 他位와 役割

孔子의 君主役割論은 위와 같은 時代狀況下에

5) 김영호 외 저, 논어의 종합적 고찰, 심산, 2003, 152쪽~153쪽.)

6) 論語, 顏淵19, “如殺無道, 以就有道, 何如.”

7) 論語, 爲政3, “道之以政, 齊之以德,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8) 論語, 子路3, “禮樂不與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9) 論語, 壺也14, “不有祝鮀之佞, 而有宋朝之美, 難乎免於今之世矣.”

10) 論語, 學而3, “巧言令色, 鮮矣仁.”

11) 論語, 憲門29, “君子, 恥其言而過其行.”

고민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孔子는 기본적으로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政事를 펴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선 지위와 역할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¹²⁾ 그런 후에 “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는 말로 각 地位에 상응하는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¹³⁾ 君主의 地位에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을 다해야만 君主의 資格이 있는 것이고 臣下와 아버지와 子息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資格을 가진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뜻이다.

孔子가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名分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한 正名도 결국은 이 간단한 理致가 지켜지기를 希望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孔子는 이렇듯 각자가 제 위치에서 제대로 役割을 수행한다는 전제 아래 天子·諸侯·卿大夫·士·庶人의 다섯 계층으로 나뉘어 있던 당시 계층 구조의 位階秩序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天下의 政治는 옹당 위계질서의 頂點에서 있는 天子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政治가 그 아래의 諸侯들에 의해 좌우되거나 더 내려가 大夫 계층에서 장악한다면 곧 體制의 崩壞가 초래될 것이라고 警告한다.

이렇듯 孔子는 君主다운 군주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일단 군주의 지위와 존엄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君主의 地位를 인정한 것은 단지 君主의 社會的 責任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지 군주의 지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神聖視해서가 아닌 것이다.

(2) 君主의 條件과 役割

孔子가 말한 君主의 條件은 道德性과 統治能力, 두가지이다.

먼저 道德性에 대해 말하자면 공자가 강조한 도덕성의 내용은 한마디로 仁이다. 仁은 사람다움이다. 사람다움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愛情에서 시작하여 言行은 공손하고 진지하게 하며 용서하고 적어도 自身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¹⁴⁾ 仁이란 恭敬·忠恕·剛毅 등의 모든 德目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孔子가 平生 자신을 닦은 끝에 도달한 경지이고, 孔子가 흠모해 마지않았고 그래서 君主의 模範으로 칭송했던 堯舜임금이 도달한 수양의 극치이다.

다음으로 統治能力에 대해 말하자면, 孔子가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用人能力이다. 다행하게도 君主가 상당한 수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훌륭한 政治로 이어지려면 賢明하고 有能한 官吏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다. 孔子는 舜임금과 湯임금이 이상적인 政治를 펼 수 있었던 것은 高요와 이윤같은 人材를 發用한 덕분이라고 말하며 이상적인 政治도 결국은 用人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¹⁵⁾ 공자가 이상적인 정치라고 여겼던 無爲의 政治는 사람(人材)을 볼 줄 아는 君主가 南面하여 큰 政治인 ‘統’의 작업을 하고 行政이나 管理의 영역인 ‘治’의 작업은 군주가 선발한 有能하고 賢明한 재상과 관리들이 맡아 하면서 실현되는 것이다.

(3) 君主의 權力과 役割

우리가 認定을 하든 하지 않든 權力은 政治生活의 基本要素이다. 어떠한 社會도 권력현상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孔子의 統治思想에서 권력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다. 論語의 어디에도 왕권신수니 계약이니 하는 君主權力의 起源에 관한 언급이 없고 군주의 권리로서의 權力行使에 대한 언급도 없다.

12) 論語, 憲問27, “不在其位, 不謀其政.”

13) 論語, 顏淵11.

14) 論語, 衛靈公23,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15) 論語, 顏淵22, “…舜有天下, 選於衆, 舉皐陶, 不仁者遠矣, 湯有天下, 選於衆, 舉伊尹, 不仁者遠矣.”

다만 막중한 君主의 職務遂行에 권력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마지못해 권력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기껏해야 兵權과 관련된 統帥權이나 統의 작업과 관련해서 대강의 나라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권이나 賞罰權 등을 조심스럽게 용인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必要惡인 君主의 權力行使의 제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孔子는 君主란 하나부터 열까지 陣頭에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北極星처럼 제 자리에서 못 벌을 비취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¹⁶⁾ 孔子는 어떻게든 道德이 權力을 대신하게 해서 군주의 권력남용이나 오용으로 인한 副作用을 줄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꼭 바깥에서 強制力이 더해져야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内部的으로 秩序가 유지되는 그런 政治가 孔子의 목표였다. 孔子는 힘으로 밀어 부치는 政治(爲政以力)가 아니라 德으로 감동을 주는 政治(爲政以德)를 중지로 삼았다. 그는 德과 힘, 또는 德과 勢 중 분명히 德에 치우쳐 있었다.

君主의 權力에 대한 논의 이전에 孔子는 이미 역할 수행과 관련된 權利와 義務 사이에서도 의무쪽에 치우쳐 있었다. 그는 君主에 대해 말할 때도 君道를 강조했고 말을 할 때마다 반드시 堯舜禹 등 君道の 모범이 되는 임금들의 德을 칭송했다. 孔子의 政治思想에는 의무관념만 있지 권리관념은 없다.

요컨대 孔子는 권력을 道德政治의 보조 수단 정도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¹⁷⁾

(4) 君主의 職務와 役割

孔子가 말한 君主로서 응당 해내야 하는 職務는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가 百姓의 安全을 지켜 주는 保民이고 둘째

가 百姓을 먹여 주는 養民이며, 셋째가 百姓을 가르치는 教民이다. 孔子가 이중 가장 重要視한 것이 가르치는 것(教民)이다.

먼저 君主의 保民職務부터 살펴보자.

孔子는 足食과 함께 足兵이 되어야만 百姓들이 믿고 따른다고 했다. 그는 名分없는 침략 전쟁 등 무분별한 무력 동원에는 분명히 反對했지만 방위를 목적으로 한 軍事訓練이나 침략에 대항하는 應戰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孔子는 保民이라는 職務遂行에 있어서 두가지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人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百姓들을 평소에 잘 훈련시킬 것과 훈련이나 동원시 當時의 주된 經濟活動인 農事に 지장을 주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¹⁸⁾

다음으로, 君主의 養民職務에 대한 孔子의 견해는 군사문제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그는 이해관계란 小人들이나 貪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자주 말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君主가 책임져야 할 대다수의 백성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대 관심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¹⁹⁾ 孔子는 義를 추구해야 할 군주에게는 배부름과 안락을 추구하지 말고 근검절약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 주라고 하는 한편 이해관계에 얽매어 사는 백성들에게 이로운 政策을 펼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養民論의 核心은 富民보다는 均民, 즉 균등한 분배였다.

끝으로 教民의 職務는 孔子가 요구한 君主의 職務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孔子는 政治가 '바를 정(正)' 이라고 했다.

그리고 政治는 名分을 바로 세우는(正名)작업부

16) 論語, 爲政1,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衆星共之.”

17) 조광수지, 논어, 책세상, 2003, 189쪽.

18) 論語, 學而5, “...使民以時.”

19) 論語, 里仁16,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正倫, 즉 道德의 秩序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²⁰⁾ 이것이 孔子 思想의 核心으로서 敎民의 方法으로는 말로만 하는 ‘言敎’ 보다는 君主가 몸소 모범을 보여 주는 ‘身敎’를 주장했다. 백성이 풀과 같은 존재라면 군주는 바람이다. 풀은 바람이 부는 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²¹⁾ 그러니 군주가 반듯하면 군이 命을 내려 시위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알아서 따르고, 위에 있는 君主가 의롭고 믿음직 스러우면 백성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孔子의 생각이었다.²²⁾

(5) 君主의 行爲와 役割

君主의 行爲란 군주가 본분에 맞게 갖추어야 할 基本態도와 行動을 말한다. 孔子는 군주에게 君師父一體의 役割을 기대했다. 즉, 百姓의 임금이자 스승이자 어버이로서의 君主를 기대했다. 군주가 臣下와 百姓의 道德 教科書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군주에게 이런 저런 요구도 많았다.

君主의 模範은 堯舜禹 임금이었다. 이들 理想的 君主가 세워 놓은 표준과 孔子가 君主에게 기대한 태도 및 행동거지의 내용은 아랫 사람을 禮로 대할 것, 검소하고 절약할 것, 마음을 크게 먹고 의연하되 교만하지 말 것,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 보며 행동하는 것을 生活化 할 것 등이었다.

3. 孔子의 君主役割論이 남긴 그림자(暗)

(1) 君主爲主의 思想

孔子의 君主役割論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지적되는 것은 그가 百姓의 位相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군주 위주의 사상은 결국 東洋의 政治·文化를 服從型의 소극적 문화로 고착시켰고, 그만큼

市民의 政治意識의 출현을 더디게 했다. 사실 孔子는 제대로 된 政治는 君主·官吏·百姓이라는 세 주체의 협조와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백성들을 政治의 主體로 여기지는 않았다. 百姓이란 小人들의 集團, 즉 愚民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염치와 예의를 가르치려고는 했지만 직접 정치에 참여하라고 선동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市民社會의 형성을 더디게 한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君主에게만 無限責任을 요구한 孔子의 君主論은 그 무한 책임이 無限支配慾이나 無限權力慾으로 돌변하는 그순간 獨裁로 돌변해 버릴 함정을 안고 있기도 했다.

(2) 政治를 道德의 從屬變數로 看做

다음으로 지적되는 孔子의 君主役割論의 어두운 면은, 道德의 영역과 政治의 영역을 뒤섞어 놓아서 정치의 영역이 그 자체로 발전되는 것을 저해했다는 점이다.

政治에 대한 孔子의 처방과 구성은 지나칠 정도로 낭만적이다. 孔子는 政治의 惡性도 잘 알고 있고, 當代의 君主들이 小人이다 못해 盲인만큼 속이 좁은 형편없는 존재들이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²³⁾ 그런데도 적나라한 政治의 問題를 政治의 論理로 풀려고 하기 보다는 政治를 道德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道德의 論理로 풀려고 했다.

政治의 論理로 푼다는 것은 人性의 善함을 인정하든 안하든 權力作用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형식으로도 權力을 制度化해서 政治의 惡性を 방지하려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孔子는 기본적으로 政治의 獨自의 位相을

20) 論語, 子路3, “...必也正名乎...名不正則言不順...”

21) 論語, 顏淵19,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 必偃.”

22) 論語, 子路6, “...其身正, 不令而行...”

23) 論語, 子路20, “...噫, 斗筭之人, 何足算也.”

인정하고 制度로써 政治의 惡性を 防止하려 하기 보다는 政治를 道德의 從屬變數로 삼아 道德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無理를 범한 것이다.

4. 孔子의 君主役割論이 남긴 빛(明)

孔子가 처했던 時代 狀況을 살펴 보면 그후의 東洋의 專制政治를 孔子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孔子는 나름대로 最善을 다했다. 身分秩序가 지배 하던 사회에서 貴族 中心의 教育 대신 능력 위주의 平民 教育을 몸소 시행했고, 성취도에 따라서 누구든 政治에 參與할 수 있다는 성취 지향의 모형을 제시했다. 그의 생각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統治者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役割과 責任으로 볼 때, 統治者가 百姓보다 더 重要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그렇다고 一般 百姓의 成就 可能性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상향 유동자체를 봉쇄한 것은 아니었다.

政治를 道德의 從屬變數로 삼아 도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孔子도 나름대로 君主의 道德的 訓練을 도와 줄 여러 方案을 제시했다. 비록 도덕적 수양 과정이 平生에 걸친 어려운 공부이긴 하지만 先王들의 行적을 들어 教科書로 삼을만한 本을 제시했고, 수신 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론도 제시하였다. 게다가 最惡의 경우에는 革命도 可能하다고 하였으니 君子로서는 최선을 다한 셈이다.

III. 結論

序論에서 부터 강조한 바와 같이 孔子는 百姓 위주의 思想家라기 보다는 統治者 위주의 思想家이다. 德化니 道德政治니 하는 것이 品格과 能力을 갖춘 聖人 君主의 출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한 점에서도 孔子의 政治 思想은 다분히 君主 本位다.

따라서 본 考에서는 君子의 이상과 꿈을 君主 役割論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君主의 地位·條件·權力·職務·行爲로 나누어, 이와 관련하여 孔子가 熱情的으로 말한 君主 役割論을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고 이를 근거로 孔子가 남긴 思想의 明暗을 고찰하였다.

동전에만 兩面이 있는 것이 아니고 哲學이나 思想에도 양면성이 있을 수 밖에 없듯이 現수에 이르러서도 孔子의 思想과 行적은 評價의 양극단을 모두 받고 있다. 오늘날 中國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것 저것 가릴 것 없이 모두 孔子의 탓이라는 ‘批孔’이나 ‘打倒孔子店’의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오늘날 中國을 포함한 東아시아가 압축적인 高速 成長을 하고 있는 것은 孔子를 教主로 하는 儒教資本主義의 文化가 배경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評價도 있다. 두 평가가 모두 一理가 있다.

그러나 사실 孔子가 남긴 빛은 그림자보다 더욱 돋보인다. 孔子가 그토록 熱望하였던 君子와 지식인 의 투철한 소명의식은 현실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해왔고, 知識과 教育을 중시하는 主知主義的 傳統은 東洋의 文化의 폭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參考文獻〉

1. 김영호 외 지음, 논어의 종합적 고찰, 도서출판 심산문화, 2003.
2. 공자의 문도들 위음, 조광수 옮김, 논어, 책세상, 2007.
3. 이기동 역해, 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파주시의 역사와 인물 문화

기진오(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도의 서북쪽에 자리한 파주시는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를 끼고 감악산과 앵무봉 및 심학산 등이 둘러싼 비옥한 평야 지대에 위치한 평화의 도시이다.

조선조 말 고종 32년(1895) 구 파주군에 파평현을 합쳐서 파주군을 두었다.

경의선과 통일로 및 자유로가 관통하여 편리한 교통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눈부신 성장과 도약을 하고 있다. 시 승격 10년 만에 인구가 배로 증가하여 2007년 7월 이후 30만명이 넘는 규모로 급성장한 것이다.

통일 조국을 향한 힘찬 건설과 함께 향토 문화의 보존과 계승은 물론 고귀한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 뿌리를 알고 더욱 힘찬 전진을 해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본고는 오늘날 파주시의 역사를 연혁과 인물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주된 참고 자료는 1929년 조선 방문사에서 간행한 '조선 각도 읍지(전)'을 옮겨 엮었으며 충신, 효신, 열녀 등에 관한 내력과 우화, 일사 등도 수록된 곳을 정리하였다.

1. 파주시의 연혁

조선조 말에 경기도는 12부(한성, 개성, 광주, 이천, 죽산, 수원, 부평, 남양, 인천, 장단, 강화,

교동)과 3목(여주, 안주, 파주), 11군(양근, 안산, 안성, 고양, 영평, 근천, 교하, 가평, 삭녕, 마천, 연천) 및 12현(양지, 지평, 음죽, 과천, 진위, 양천, 용인, 김포, 시흥, 양성, 적성, 풍덕) 및 1진(영중)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파주시는 이 중 1개 부(장단), 1개 목(파주), 1개 군(교하), 1개 현(적성)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파주군이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통일 안보와 문화·예술 및 학술 관광의 도시로, 교하와 운정 신도시로 급성장하여 2읍 8면의 군 단위에서 6동(검산, 금릉, 금촌, 맥금, 아동, 야동), 5읍(교하, 문산, 법원, 조리, 파주) 9면(광탄, 군내, 월릉, 장단, 적성, 진동, 진서, 탄현, 파평)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 중에 장단, 진동, 진서의 3개 면은 휴전선(민통선)지역에 속하여 금후 커다란 개발을 기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하겠다.

1) 파주목

동으로 양주목, 남으로 고양군, 서로 교하군, 북으로 장단부와 경계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80리의 거리에 있다.

파평현의 이름에서 파주의 명칭이 지어졌다. 본래 고구려의 파해평사 현이었는데 석봉이라고도 불렀다. 신라 경덕왕이 파평이라고 고쳐 내소군에 편입되게 하였고 고려 현종 때에 장단현에

1) 조선 각도 읍지(전)은 목록 28면, 읍지 681면의 국한문 혼용체 활판으로 조선 박문사에서 저작 발행(정가 3원50전, 소화 4년 4월 간)으로 1978년 태학사에서 영인본을 내었음.

편입하였고, 문종 때에 개성부에 속하게 하였다가 예종이 감무(監務)를 설치, 조선조에 이르러 파평현으로 되었다.

서원군은 본래 고구려의 술미심홀 현이니 이일 작미라 하기도 하였다. 신라가 다시 복성이라 하여 교하군에 속한 현으로 하고, 고려 현종 때에 양주에 속하게 하였다가 명종이 감무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후에 다시 서원현으로 고쳤다가 조선 태조 때에 와 서원과 파평을 합하여 원평군이라 개칭하였다. 태종 때에 교하현에 속하게 하였다가 천 가호 이상으로 커지자 군을 부로 승격하고, 교하현으로 두었다가 부가 천호 미만이 되어 군을 강등하니, 관리와 백성이 다시 상소하여 세조 때에 이르러 파주목으로 승격하였다.

연산군 때에 파기하여 나들이 장소로 삼아 분할하였다가 중종 때에 복귀되었다. 1895년에 파주군이 되었다가 1914년에 교하군을 합하였다.

2) 교하군(郡)

동으로 파주, 남으로 김포, 서로는 풍덕, 북으로 장단과 경계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90리 거리에 있다.

고구려의 천정구현이니 굴화군이라고도 한다. 신라 경덕왕이 교하라 고치고 군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때 양주에 속했다가 조선 태조 때에 감무를 설치하기 시작, 한양에 속한 심악현,²⁾ 부평에 속한 석천향(石淺鄉)으로 교하군에 속하게 하였다. 태종 때에 석천은 원평부에 속하게 하고 심악은 고양현에 속하게 하였다. 후에 다시 함께 교하에 속하게 하여 현감을 두었고, 숙종 때 죄인 태생의 읍으로 파주에 속하게 되어 없어졌다가 다시 교하현으로 복귀되었다. 영조 때에 장릉³⁾이 옮겨지게 되자 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었다.

3) 적성현(縣)

동으로 마전, 남으로 양주, 서로는 장단, 북으로

마전을 경계로 하며 서울에서 120리 거리이다. 고구려의 칠중성, 내별이라고도 이른다. 신라 경덕왕이 중성을 고쳐 내소군에 속한 현이 되게 하였고, 고려 초에 다시 중성을 쌓아 현종 때에 장단현에 속하게 하였다. 문종 때에 개성부에 예속하게 하고 예종이 감무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으며 조선 태종 때에 현이 되어 현감을 두었다.

4) 장단부(府)

동으로 삭녕, 남으로는 파주, 서로는 풍덕, 북으로는 금산을 경계로 하며 서울에서 147리 거리이다.

삼한 시대 단천군이니 고구려에 장천성 현이 되었고 야야 혹은 야모라 부르기도 하였다. 신라 경덕왕이 장단으로 고쳐 우봉군에 속한 현이 되게 하였고, 고려 목종때에 시종 한언공의 고향으로써 단주로 승격하였다. 현종 때에 다시 장단 현령을 두어 상기군에 소관이 되게 하였다. 문종 때에 개성부에 직속하게 하고 조선 태종때에 와서 임강현과 병합하여 장림현이라 이름하였다. 후에 장단으로 임진에 병합하여 임단현으로 이름하기도 하였다. 세종이 다시 장단현으로 삼고 세조 때에는 장단을 임진에 속하게 다시 임강 임진으로써 장단에 속하게 하였다. 정희왕후의 3세 선영이 그곳에 있으므로 군으로 승격하고 예종 때에 군을 부로 승격하고 광해조에 방어사로 다스리게 하였다. 현종 때에 토포사가 겸하게 하고 영조 때에 방어사를 파주에 옮기고 후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부로 환원되었다.

임진현, 임강현, 송림현은 폐하였으나 모두 장단부에 통합되었다.

임진현은 본래 고구려의 위하홀로 부르는 임홀현이다. 신라가 임진으로 고쳐 개성군에 속한 현이 되게 하였다. 고려 현종 때에 장단현에 속하고 문종 때에 개성부에 직할이 되었다. 공양왕 때에 감무를 두기 시작하고 조선 태조 때에 현감을 두었다.

2) 심악현(深岳縣)은 본래 보신향(寶薪鄉)으로 고려 현종때 현이 되어 한양에 속했음

3) 장릉(長陵)은 조선조 16대 인조의 왕후 한씨의 능으로 탄현면 갈현리에 소재함.

다시 장단에 합쳐 임단이라 이름하고 세종 때에 다시 임진현감을 두었다가 세조 때에 다시 본군으로 되었다.

임강현은 고구려 장항현이니, 고사야홀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라에 임강으로 고쳐 우봉군에 속한 현이 되게 하고 고려 현종 때에 장단현에 속했고 문종 때에 개성 부에 직속되었다. 공양왕 때에 감무를 두기 시작하였고 조선 태종 때에 장단에 합하여 장림이라 하였다. 현감을 두었다가 세조 때에 본군에 속하게 되었다.

송림현은 본래 고구려의 약지번지 현이니, 지단 혹은 삭두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신라에 여량으로 고쳐 송악군에 현이 되었다가 고려초에 송림이라 고쳐 부르고 현종 때에 장단에 속하였다. 문종 때 개성부에 직속하였다가 감무를 다시 두었고, 조선 태종 때에 임강에 직속되어 폐현이 되었다.

2. 파주시의 역사 인물

파주의 역사적 인물로 파평 윤씨와 교하 노씨의 족벌이 저명하고 이이와 황희, 성수침 등의 자취가 남아 있다. 파평산 북쪽의 용연에 파평 윤씨의 시조인 태사공 윤신달의 탄생지인 용연이 있고, 교하읍의 정정공파 묘역에는 조선조 영의정을 지낸 분의 묘가 네 곳을 포함 많은 역대 묘가 산재해 있다. 조선초 영의정을 지낸 노사신이 교하 태생이며 역시 명 재상으로 청렴결백의 표상이던 황희가 만년을 보낸 곳도 임진강 하구의 반구정에 자취가 남아 있다. 선조 때 성수침을 모신 파산서원이 세워지고 효종때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광해조 때 세워진 이율곡의 제사를 모시는 자운서원이 신사임당과 이이 등이 모셔진 선영에 세워져 유학의 자취를 빛내고 있다.

1) 윤 관 장군

고려 태조때 개국 공신인 윤신달의 후예로 과거 급제후 태보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문신 출신의 명장으로 추밀원 부사, 어사 대부, 이부 상서

등을 거쳐 예종2년(1107) 여진족 정벌의 전공을 세웠다. 별무반과 특공대를 갖추어 17만 대군의 원수가 되어 여진을 정벌하고 함주, 길주 등 9성을 쌓음으로써 조선초의 김종서와 함께 동북면 개척의 공을 세웠다. 윤관 장군의 묘역이 광탄면에 사적으로 보존되어 통일 조국의 염원을 굳게 하며 민족의 기상을 높이고 있다. 후손이 번창하였다.

또한 광탄 면사무소 내에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금릉동에는 일제말기 한글 운동가 정태진의 기념비도 세워져 파주가 민정 정기가 살아 있는 고장임을 증명하고 있다.

2) 파평 부원군

부원군은 조선조 왕비의 친아버지에게 주는 작위로 정일품 공신에 해당한다. 조선 개국공신 윤근, 세조비인 정희왕후의 아버지인 정정공 윤번이 파평부원군으로 영의정을 지냈다. 이후 문벌이 번성하여 파평군 윤엄, 파주부원군 윤사근, 영평군 윤계겸, 영원부원군 윤거, 중종반정 때 윤장은 양성군에 봉해졌고, 문정왕후의 부 윤지임, 명종 때 영의정을 지낸 권신 윤원형, 을사사화에 사약을 받은 윤임의 부 윤여필 등이 교하읍의 윤씨 묘역에 자리잡고 있다. 윤필상도 영의정을 지냈으나 연산 갑자사화에 피살되는 등 사화로 인한 부침이 적지 않았다.

3) 문성공 율곡 이이

조선조 선조 때의 명신이자 대유학자로 아명 현룡, 자는 숙헌, 호가 율곡이다. 덕수 이씨로 충무공 이순신과도 동관이다. 호조, 이조 형조 판서를 지냈으나 자주 관직에서 물러나 후학을 길러 기호학파의 거두가 되었다. '성학 집요', '학규', '격몽요결' 등을 지었고, 동서 당쟁의 조정, 향약을 만들어 민생에 전력하며 이황의 이기 이원론을 이기일원론으로 대치하였다. '고산구곡가'와 많은 한시가 전하며, '사서' 언해도 지었다. '율곡전서'가 전하며 문성공의 시호를 받고 자운서원

에 배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사임당과 이이 선후대의 묘가 그곳에 있고, 숙종 때에 이이의 성리학을 계승한 사계 김장생, 현석 박세채도 같이 배향하였다.

4) 우계 성혼

조선 명종 때 조광조의 문인으로 기묘사화를 피해 파주에 낙향하여 후학을 기른 성수침의 아들로 율곡 이이와 4단7정론을 논한 성리학자이다. 성수침은 문정공의 시호를 받고 파산서원에 배향되어 성리학과 기호학파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우계(셋골 현 금곡)에 은거한 부친을 이어 학문과 교육에 전심하였다.

'우계집', '주문지결', '위학지방도', 등의 저서가 전하며 좌의정에 추증되고 문간공의 시호를 받았다. 당쟁 사회에 어지러운 때에 성리철학의 학행이 높아 고결한 성품으로 제자를 기르는데 전념하였다.

5) 보진재 노사신

조선 단종 때 문과에 급제, 대제학, 영의정을 지낸 문신, 학자다. 교하 노씨로 호가 보진재다. 학문에 조예가 깊어 세종때 '경국대전'의 호전을 편찬하였고, 성종때는 '삼국사절요', '향약집성방', '동국여지승람' 등을 편찬하는데 공적을 이루었다. 우의정을 지낸 노한의 손으로 세조의 총신, 훈구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집현전 학사로 출발하여 동문신을 지어 바치고 성종 때에는 동국여지승람 50권을 임금에게 지어 바치니 당대까지의 지리, 역사, 문화, 시문의 총집대성이 되었다.

참익재 좌리공신으로 성성부원군에 봉해졌으며 문광공의 시호를 받았다. 그의 아들 노공필도 문과에 올라 영중추부사를 지냈으며 교성군에 봉해졌다.

연산군 때 파평부원군 윤상필과 함께 김종직이 '조의제문'으로 세조를 비방했던 죄를 물어 무오사화가 일어나고 사림파가 훈구파에게 숙청되게 하였다.

6) 방촌 황희

조선조 초기의 명 재상으로 조선의 법제와 국기를 세운 청백리이다. 본관은 장수요 고려말 개경에서 났다. 26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관이 되었으나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하였다. 태조 때에 6조 판서를 두루 거쳤다. 세자의 폐출, 책봉 등에 반대의 직간을 하다 서인이 되어 교하로 유배되었다. 세종 때 복직되어 영의정에 올라 18년간 재임하며 문물제도의 정비에 힘쓴 원만 청렴의 명상이다. 세종의 묘정에 배향되고 임진강 하구에 방촌 영당을 세워 치적을 기르고 있다. 반구정은 그가 갈매기와 벉하며 실의의 날을 보낸 정자이며 시조 몇 수도 전한다. 관직에서 물러나 유유자적하던 풍모를 알 수 있다. 시호는 익성공이다.

3. 파주시의 총신, 호자, 열녀

총신 호자 열녀가 살던 동네에는 정문을 세워 기리고 추모하여 교훈을 삼는데 옛 파주에는 정려가 많았다.

1) 파주 목의 총신 호자 열녀

총신 허락은 인조 병자호란 때 순안 현령으로 김화에서 6전 끝에 전사하였다.

호자 우홍준은 홍필형, 조만석, 박춘남, 한수철 등이 정려에 올랐다.

열녀 노씨는 임진왜란 때 왜적을 꾸짖어 해를 입어 열녀가 되고, 문씨는 남편이 왜적에게 죽자 상을 치르고 자결하여 정려에 들었다. 열녀 송씨, 민씨, 노씨 등도 임진란, 병자란 때에 분사하여 정려에 올랐다.

2) 교하군의 총신 호자 열녀

호자 정교택은 효행이 향당에 자자하였고 그의 아들 정명익도 효자로 칭송되었다. 정명환의 아들까지 3대가 모두 효행으로 이름난 가문이었다.

이번은 효자로 정려에 모셔졌다.

열녀 괘사는 기호선의 처로 병자호란에 절개를 지키다 죽어 병부인으로 추증되고 정려에 들게 되었다.

3) 적성 현의 충신 효자 열녀

남을진은 고려말 침지 문하부사라고 조선 태조가 여러 차례 벼슬로 불렀으나 감악산에 피해 들어가 생을 마쳤다.

홍춘경은 단수 석벽 위에 집을 짓고 김안로를 배척하여 귀향하여 집거하였다.

이준은 침평난공신인데 광해군 때 벼슬을 내놓고 귀향하였다. 최숙정은 임진란 때 노계의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윤홍은 무과에 올라 부총관이 되었으나 광해군의 폐모 사건에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홍서봉은 영의정으로 정사공신이라 익년부원군으로 공의 시호를 받았는데 벼슬을 놓고 학곡에 머물렀다.

그의 자부 이씨는 병자호란 때 두 아들과 함께 순절하여 강화에 정려를 세웠다. 홍명형도 승지로서 병자호란 대 아내 성씨와 함께 강화에서 순절하여 이조판서 의렬공으로 추증되고 정려에 모셨다. 홍치후는 영의정 총장공으로 추증되었는데 병자호란때 척화신으로 오대산에 쫓겨나 있다가 복직되었다. 홍씨 가문에서 충신이 줄을 이어 나오고 억울한 귀양살이 끝에 죽고난 뒤 신원된 이가 많았다. 홍진원, 진구주, 박준, 이민, 양월태, 광태의, 김성연 등 많은 효자가 부모의 봉양을 극진히하여 정려에 올랐다.

이일의 처 최씨, 정태문의 처 심씨, 이득대의 처 김씨 등은 남편이 죽자 자진하여 죽으니 열녀로 이름이 나고 칭송이 되었다.

4) 장단부의 충신 효자 열녀

이심원은 연산군 때에 직언 상소하다가 주살당하여 정려에 든 충신이다.

이제길도 왕족으로 광해군 때에 항소하여 거제도 유배되고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적을 무찌르니 정려에 오른 충신이다.

홍인우, 이관, 남덕일, 김유, 김천익, 김세원과 그의 자손, 김천익과 그의 자손, 박명유 등은 이름난 효행으로 정려에 들어간 효자들이다.

허침의 처 류씨는 연산군 때에 3년 극행하여 정려에 오른 열녀이다. 박설의 처 우씨는 임진왜란 때에 왜적에게 치욕을 겪지 않고 죽어 정려에 들었다. 김태석의 처 김씨는 병자호란 때 세 딸과 함께 강에 투신하여 열녀로 정려에 올랐다.

남편이 죽게 되자 따라서 목숨을 끊은 애절한 사랑의 열녀도 끊이지 않았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옛 파주에는 인물이 많이 나고 국가의 위난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충의와 효행, 정절을 다한 이들이 줄을 이었다. 현재 파주시에는 미수복지역인 장단, 진동, 진서, 군내의 네 개 면이 있어 통일의 비원을 간직하고 있거니와 선조들의 나라 사랑, 가정의 도리를 지킨 분들의 뜻을 되살려 인의와 평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윤관과 같은 복진 개척의 장군, 노사신과 황희 같은 훌륭한 정치가, 율곡이이나 성혼과 같은 대 학자들이 파주에 터를 잡았던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파주, 교하, 적성, 장단의 옛 고을들이 합쳐져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평화의 도시, 학문과 예술의 도시, 세계화의 산업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도 더욱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파주 시민은 우리 고장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며 창조적 발전을 거듭해 나갈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자랑스럽게 전진해 가야 하리라 본다.

| 파주문화 2007 부록 |

파주문화원 발간 책자 안내



20여년간 파주의 문화와 역사를 정리해온 파주문화원 발간 책자 총 16권의 내용과 목차를 소개합니다.

- _ 울곡이이의 삶과 사상(2006)
- _ 파주문화재 대관(2006)
- _ 파주의 역사와 문화(2005)
- _ 우리고장 파주(2005)
- _ 파주전투사지(1995)
- _ 파주의 인물(2005)
- _ 파주문화유적지(1994)
- _ 30가지 테마로 떠나는 파주 역사·문화 기행(2003)
- _ 역사속의 임진강(2002)
- _ 찬란한 파주의 역사와 문화(2003)
- _ 파주금석문대관-신도비편(2000)
- _ 파주지명유래와 전설(1997)
- _ 파주의 역사와 문화(1995)
- _ 파주민요론(1997)
- _ 파주노래선집(1993)
- _ 의례해설전서(1990)
- _ 파주실록(2001)

큰 스승 율곡 이이의 삶과 사상



- 발행년월 : 2006년 12월

- 내 용

파주가 낳은 조선시대의 대학자이자 경세가이신 율곡 이이 선생의 삶과 사상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책.

목차

I 1부 | 율곡의 생애

- | | |
|---------|--------|
| 1. 어린시절 | 2. 청년기 |
| 3. 장년기 | 4. 말년 |

I 2부 | 율곡의 사상

- | | |
|-----------------|----------|
| 1. 율곡사상의 배경 | 2. 철학 사상 |
| 3. 정치 사상 및 역사의식 | 4. 경제사상 |
| 5. 교육사상 | |

I 3부 | 율곡의 글모음

- | | |
|--------------|----------|
| · 율곡의 주요저서 | · 자경문 |
| · 천도책 | · 서원 향약 |
| · 만언봉사 | · 동거계사 |
| · 구용첩에 대한 발문 | · 인심도심도설 |
| · 학교모범 | · 고산구곡가 |

I 4부 | 율곡과 관련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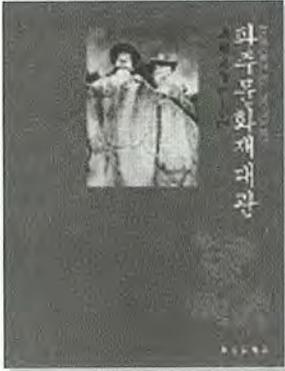
- | | |
|-----------------------------|---------------------|
| · 율곡리의 유래 | · 화석정 이야기 |
| · 자와 호 | · 율곡은 어떤 벼슬을 역임했을까? |
| · 아홉 번 장원 급제한 조선 제일의 천재, 율곡 | |
| · 율곡이 금강산에 간 까닭은? | · 오죽헌은 율곡의 외가인가? |
| · 율곡 선생의 묘소 | · 율곡의 사랑 이야기 |
| · '십만 양병설' 에 대해 | |

I 부록 I

연보 / 저작 목록

I 참고문헌 I

파주문화재 대관



- 발행년월 : 2006년 12월

- 내용

파주에 있는 문화재 모두를 다양한 구도의 사진으로 담아냈으며, 이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설해 놓은 책.

목차

1부 | 국가지정문화재

- 용미리 석불입상(제93호)
- 공효공 박중손 묘역 내 장명등(제1323호)
- 덕은리 주거지 및 지식묘 군(제148호)
- 장릉(제203호)
- 파주 삼릉(공릉/순릉/영릉)(제205호)
- 윤관장군묘(제323호)
- 오두산성(제351호)
- 소령원(제358호)
- 수길원(제359호)
- 가월리 주월리 구석기 유적(제389호)
- 칠중성(제437호)
- 해음원지(제464호)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제250호)
- 적성 물푸레 나무(제286호)
- 궁시장 유영기(제47호)

2부 | 도지정문화재

- 화석정(제61호)
- 보광사 대웅전(제83호)
- 마애사면석불(제156호)
- 금산리 민요(제33호)
- 이이선생 묘(제15호)
- 황희선생 묘(제34호)
- 성훈선생 묘(제59호)
- 윤곤선생 묘(제106호)
- 교하 다울리 당하리 지식 묘 군(제129호)
- 심지원 묘 및 신도비(제137호)
- 김덕함 묘 및 신도비(제144호)
- 춘곡 정탁 묘(제173호)
- 교하 물푸레나무(제183호)
- 자운서원 묘정비(제77호)
- 이회선생 신도비(제121호)
- 보광사 승정칠년명동종(제158호)
- 신사임당 묘(제14호)
- 황희선생 영당지(제29호)
- 자운서원(제45호)
- 이세화선생 묘(제60호)
- 허준선생 묘(제128호)
- 정연 묘(제139호)
- 자유의 다리(제162호)
-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제182호)
- 유향 한수 묘(제187호)

파주문화재 대관

- 월릉산성지(제196호)
- 교하향교(제11호)
- 파주향교 대성전(제83호)
- 용재 성현 묘(제130호)
- 파산서원(제10호)
- 반구정(제12호)
- 사재 김정국 묘(제122호)
- 읍내리 석조여래입상(제139호)

13부 1 시지정문화재

- 용주서원(제1호)
- 적성향교(제3호)
- 봉서리 충신열녀문(제5호)
- 청풍김씨 열녀비(제7호)
- 최흥원 묘 및 신도비(제9호)
- 상서대(제11호)
- 화평옹주, 박명원 묘 및 신도비(제13호)
- 화원옹주 및 정치달 묘(제14호)
- 서곡리 고려벽화 묘(제16호)
- 파주리 당간지주(제18호)
- 성사영묘(제20호)
- 정주이씨 상원군 이세령 가문 충신열녀정려편액(제21호)
- 미수 허목선생 친필 암각문(제22호)
- 격쟁문서(향토자료 제1호)
- 전통 쇠납 제작 연주기능 조병주(무형문화유산 제1호)
- 전통 짚풀공예 제작기능 심경임(무형문화유산제2호)
- 파주향교(제2호)
- 김석몽 처 남평문씨 열녀문(제4호)
- 이이선생 신도비(제6호)
- 감악산 (제8호)
- 파평옹연(제10호)
- 이주, 이광정묘 및 신도비(제12호)
- 정태진 묘(제15호)
- 성임 묘 및 신도비(제17호)
- 황정욱 묘 및 신도비(제19호)

14부 1 등록문화재

- 구 장단면 사무소(제76호)
- 구 장단역지(제77호)
- 경의선 증기기관차 화통(제78호)
- 경의선 죽음의 다리(제79호)

15부 1 전통사찰

- 금단사(제40호)
- 보광사(제41호)
- 용암사(제78호)
- 용상사(제79호)

1 부 록 1

파주3현, 지정문화재 현황, 읍면별 문화재, 유형별 문화재

파주의 역사와 문화



- 발행년월 : 2005년 12월

- 내용

파주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대한 개론서적 성격의 책자로 다양한 파주의 모습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목차

I 제1장 | 자연환경과 연혁

제1절 _ 자연환경

1. 위치와 면적 2. 지형 3. 지질과 토양 4. 기후 5. 생태

제2절 _ 연혁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강점기 5. 현대

I 제2장 | 파주의 역사

제1절 _ 선사시대의 파주

1. 구석기시대 2. 신석기시대 3. 청동기시대

제2절 _ 고대의 파주

1. 백제의 성장과 파주 2. 고구려의 남하와 파주
3. 신라의 성장과 파주

제3절 _ 고려시대의 파주

1. 고려전기 문벌귀족사회의 파주 2. 고려후기 파주의 사회변동

제4절 _ 조선시대의 파주

1. 파주의 통치조직 2. 파주의 사회와 경제 3. 파주향약
4. 임진왜란과 파주 5. 교하천도 계획

제5절 _ 한말의 파주

1. 제도개혁과 지방질서의 재편 2. 사회경제적 변화
3. 반봉건 반외세 운동

제6절 _ 일제강점기의 파주

1. 식민지 지배체제의 확립과 민족해방운동
2. 일제의 수탈강화와 민족해방운동
3. 일제파쇼체제 구축과 민족해방운동

제7절 _ 현대의 파주

1. 해방과 대한민국정부 수립 2. 농지개혁 3. 6·25전쟁

I 제3장 | 파주의 인물

제1절 _ 고려·조선시대 인물

파주의 역사와 문화

제2절 근대인물

I 제4장 | 문화재와 민속

제1절 _ 문화재

1. 지정문화재

- 1) 국가지정문화재 2) 경기도 지정문화재 3) 파주시 지정문화재
4) 등록문화재 5) 전통사찰

2. 비지정문화재

- 1) 선사유적 2) 불교유적 3) 유교유적
4) 조선시대 묘역 5) 관방유적 6) 기타유적

제2절 _ 파주의 민속

1. 전통민속

- 1) 문산 도당굿과 호영산 호대감놀이 2) 금산리민요와 두레놀이
3) 용미리 진대굿

2. 지역축제

- 1) 울곡문화제 2) 장단콩축제 3) 개성인삼축제 4) 파주예술제

I 제5장 | 지명유래와 전설

제1절 _ 지명유래

- | | | |
|---------------------------|---------|--------|
| 1. 문산읍 | 2. 파주읍 | 3. 법원읍 |
| 4. 교하읍 | 5. 조리읍 | 6. 월릉면 |
| 7. 탄현면 | 8. 광탄면 | 9. 파평면 |
| 10. 적성면 | 11. 금촌동 | |
| 12. 군내면 · 장단면 · 진동면 · 진서면 | | |

제2절 _ 전설과 설화

- | | |
|--------------------|---------------------|
| 1. 장자뭇의 전설 | 2. 두류봉 황새 명당 |
| 3. 호대감 이야기 | 4. 심학산에 얽힌 전설 |
| 5. 파평윤씨 용연 | 6. 신화동과 쇠곳나루에 얽힌 전설 |
| 7. 금성리에 얽힌 전설 | 8. 검산리와 조음발동의 유래 |
| 9. 임진나루의 뱃사공 | 10. 봉서산에 얽힌 전설 |
| 11. 옥석동의 유래 | 12. 오금리에 얽힌 전설 |
| 13. 얼음실 한장굴에 얽힌 전설 | 14. 거북바위에 얽힌 전설 |
| 15. 덕암산가재굴의 채동지 | 16. 반석나루에 얽힌 전설 |
| 17. 사근절의 유래 | 18. 의마총에 얽힌 전설 |
| 19. 혜음령 고개에 얽힌 전설 | 20. 진대박이에 얽힌 전설 |
| 21. 처사바위에 얽힌 전설 | 22. 양녹골 연자방아의 전설 |
| 23. 궁터에 얽힌 전설 | 24. 장계와우계에 얽힌 전설 |
| 25. 두지리에 얽힌 전설 | 26. 갯바위에 얽힌 전설 |

우리고장 파주



- 발행년월 : 2005년 12월

- 내용

청소년들이 우리고장 파주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풀어 쓴 향토사 학습 참고도서

목차

파주시 주요 문화재 안내지도

I 제1장 I 우리가 살고있는 파주

1. 파주의 자연환경
 - 1) 우리 고장의 위치
 - 2) 우리 고장의 지형
 - 3) 우리 고장의 기후
 - 4) 우리 고장의 생태계
2. 파주의 생활환경
 - 1) 인구의 변화
 - 2) 생활환경의 변화
 - 3) 우리 고장의 주요산업

I 제2장 I 파주의 역사

1. 유물로 본 파주의 역사
 - 1) 선사시대의 파주
 - 2) 고대의 파주
 - 3) 고려 · 조선시대의 파주
 - 4) 근 · 현대의 파주
2. 파주의 인물
 - 1) 파주3현
 - 2) 고려 · 조선시대 인물
 - 3)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
3. 전설과 지명유래
 - 1) 전설
 - 2) 지명유래

I 제3장 I 파주의 자랑거리

1. 문화유산이란?
2.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3. 유형문화재
4. 무형문화재
5. 문화 관광 자원
 - 1) 통일 관광 자원
 - 2) 문화 예술 명소
 - 3) 문화 예술 행사
6. 파주의 특산물

I 제4장 I 통일의 길목, 파주

1. 분단의 산물, 대성동과 통일촌
2. 대립과 화해의 현장, 판문점
3. 평화통일의 희망, 임진각
4. 통일로 가는 길목, 파주
 - 1) 통일로와 통일공원
 - 2) 통일동산과 자유로

우리고장 파주

3) 도라산역

4) 통일체험학습장

Ⅰ 제5장 Ⅰ 파주의 현재와 미래

1. 파주의 사람들

2. 파주의 미래

1) 자연 그대로의 녹색도시

2) 통일한국의 중심도시

3) 첨단 정보산업 도시

4) 문화 예술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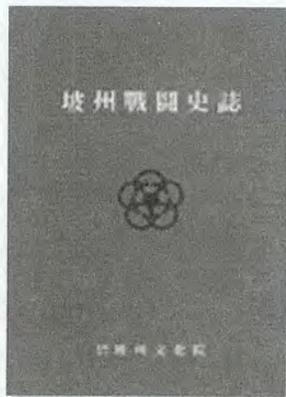
Ⅰ 부록 Ⅰ 1. 공공기관과 문화예술기관

1) 공공기관

2) 문화예술기관

2.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파주전투사지(坡州戰鬪史誌)



- 발행년월 : 1995년 9월 30일

- 내용

지리적 입지의 특성상 삼국시대 이래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파주에서의 전투 현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했다.

목차

- 고대 파주지역 전란사(삼국시대 · 고려 · 조선조)
- 일제치하 독립투쟁사
- 미 군정과 6·25 전쟁사
- 애국지사 정화 추진사업
- 전적 기념물 현황

파주의 인물



- 발행년월 : 2005년 12월

- 내용

우리민족의 역사를 빛내신 선현들 중 파주에서 태어나시거나 거주하시는 등 연관을 맺었던 인물들의 자료를 모아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목차

I 제1장 | 고려 조선시대 인물

- | | | | | | |
|----------|----------|----------|----------|----------|-----------|
| 1. 강경서 | 2. 강공망 | 3. 강대호 | 4. 강섬 | 5. 강옥 | 6. 강잠은 |
| 7. 경구 | 8. 경래운 | 9. 경보 | 10. 경복흥 | 11. 경부 | 12. 경선행 |
| 13. 경성희 | 14. 경성희 | 15. 경세인 | 16. 경세창 | 17. 경숙 | 18. 경연 |
| 19. 경유근 | 20. 경의 | 21. 경정 | 22. 경준 | 23. 경지 | 24. 경취 |
| 25. 권근 | 26. 경취 | 27. 길재 | 28. 김광수 | 29. 김근배 | 30. 김남중 |
| 31. 김덕함 | 32. 김만수 | 33. 김문기 | 34. 김박연 | 35. 김복경 | 36. 김사철 |
| 37. 김설 | 38. 김심 | 39. 김인정 | 40. 김연 | 41. 김영① | 42. 김영② |
| 43. 김우석 | 44. 김위남 | 45. 김응순 | 46. 김인후 | 47. 김장생 | 48. 김재찬 |
| 49. 김정국 | 50. 김정후 | 51. 김중서 | 52. 김주도 | 53. 김중성 | 54. 김중원 |
| 55. 김진 | 56. 김행 | 57. 김효성 | 58. 김흔 | 59. 김희철 | 60. 남금 |
| 61. 노공필 | 62. 노사신 | 63. 노진섭 | 64. 노한 | 65. 도선 | 66. 민신 |
| 67. 민암 | 68. 민영달 | 69. 박린 | 70. 박명원 | 71. 박사정 | 72. 박석명 |
| 73. 박세무 | 74. 박세채 | 75. 박승질 | 76. 박영문 | 78. 박은 | 79. 박응복 |
| 80. 박인 | 81. 박중발 | 82. 박중손 | 83. 박필건 | 84. 박필기 | 85. 박훤 |
| 86. 배전 | 87. 백동준 | 88. 백유함 | 89. 백인걸 | 90. 봉석주 | 91. 사요 |
| 92. 서명서 | 93. 서명선 | 94. 서문중 | 95. 서일수 | 96. 서종태 | 97. 성간 |
| 98. 성개 | 99. 성근 | 100. 성달생 | 101. 성담수 | 102. 성대영 | 103. 성문잠 |
| 104. 성문준 | 105. 성백 | 106. 성삼문 | 107. 성석웅 | 108. 성세명 | 109. 성세순 |
| 110. 성세창 | 111. 성수중 | 112. 성수침 | 113. 성순 | 114. 성순호 | 115. 성엄 |
| 116. 성염조 | 117. 성은석 | 118. 성의석 | 119. 성이호 | 120. 성임 | 121. 성자제 |
| 122. 성정호 | 123. 성준 | 124. 성준영 | 125. 성지신 | 126. 성지행 | 127. 성직 |
| 128. 성필영 | 129. 성항 | 130. 성현 | 131. 성훈 | 132. 성희 | 133. 송거신 |
| 134. 송익필 | 135. 송진명 | 136. 신경 | 137. 신구중 | 138. 신민일 | 139. 신사임당 |
| 140. 신석조 | 141. 신영희 | 142. 신유정 | 143. 신윤문 | 144. 신인손 | 145. 신자건 |
| 146. 신장 | 147. 신제현 | 148. 신치복 | 149. 신태동 | 150. 신후담 | 151. 신후평 |
| 152. 심덕부 | 153. 심령 | 154. 심수편 | 155. 심순경 | 156. 심운 | 157. 심유 |
| 158. 심의겸 | 159. 심의신 | 160. 심종 | 161. 심종침 | 162. 심지원 | 163. 심한 |
| 164. 심회 | 165. 안목 | 166. 안송신 | 167. 양진용 | 168. 염신약 | 169. 염제신 |
| 170. 오두인 | 171. 왕후 | 172. 우인열 | 173. 우현보 | 174. 유경창 | 175. 유복명 |
| 176. 유색 | 177. 유영립 | 178. 유윤창 | 179. 유의 | 180. 유정수 | 181. 윤강원 |
| 182. 윤경 | 183. 윤계겸 | 184. 윤근 | 185. 윤관 | 186. 윤근수 | 187. 윤금강 |
| 188. 윤기적 | 189. 윤돈신 | 190. 윤면오 | 191. 윤백원 | 192. 윤번 | 193. 윤보① |
| 194. 윤보② | 195. 윤비경 | 196. 윤사분 | 197. 윤사유 | 198. 윤사흔 | 199. 윤상계 |
| 200. 윤선거 | 201. 윤선좌 | 202. 윤세기 | 203. 윤세유 | 204. 윤수민 | 205. 윤승례 |

파주의 인물

- | | | | | | |
|---------|---------|---------|---------|---------|---------|
| 206.윤신달 | 207.윤안숙 | 208.윤안인 | 209.윤암 | 210.윤언이 | 211.윤여필 |
| 212.윤여해 | 213.윤육 | 214.윤원로 | 215.윤원필 | 216.윤원형 | 217.윤인침 |
| 218.윤지임 | 219.윤집형 | 220.윤척 | 221.윤춘년 | 222.윤필상 | 223.윤형 |
| 224.윤호 | 225.윤홍 | 226.윤홍립 | 227.윤환 | 228.윤홍 | 229.이기 |
| 230.이건명 | 231.이경여 | 232.이경중 | 233.이관 | 234.이관명 | 235.이관징 |
| 236.이광 | 237.이광정 | 238.이광하 | 239.이구령 | 240.이군생 | 241.이기설 |
| 242.이녹생 | 243.이담 | 244.이돈서 | 245.이명신 | 246.이명웅 | 247.이문전 |
| 248.이민서 | 249.이봉 | 250.이빈 | 251.이사관 | 252.이상질 | 253.이서 |
| 254.이성① | 255.이성② | 256.이성윤 | 257.이성중 | 258.이세유 | 259.이세화 |
| 260.이숙 | 261.이숙함 | 262.이우 | 263.이육 | 264.이원수 | 265.이유길 |
| 266.이유징 | 267.이의석 | 268.이이① | 269.이이② | 270.이이명 | 271.이인신 |
| 272.이입신 | 273.이정보 | 274.이정신 | 275.이정제 | 276.이종성 | 277.이종호 |
| 278.이주 | 279.이준민 | 280.이지역 | 281.이진경 | 282.이창정 | 283.이천 |
| 284.이침 | 285.이추 | 286.이행 | 287.이현영 | 288.이회① | 289.이회② |
| 290.이후백 | 291.이휘지 | 292.이흠 | 293.장사길 | 294.장순손 | 295.정근수 |
| 296.정근 | 297.정분 | 298.정숙도 | 299.정언 | 300.정치달 | 301.정탁 |
| 302.정홍 | 303.정효상 | 304.정효전 | 305.정효항 | 306.조감 | 307.조경 |
| 308.조경망 | 309.조광원 | 310.조극관 | 311.조근 | 312.조복양 | 313.조봉원 |
| 314.조석문 | 315.조연 | 316.조영석 | 317.조온 | 318.조위한 | 319.조유인 |
| 320.조익 | 321.조일 | 322.조찬환 | 323.조희일 | 324.지해관 | 325.최경 |
| 326.최경창 | 327.최산립 | 328.최수진 | 329.최순립 | 330.최영호 | 331.최운해 |
| 332.최윤조 | 333.최흥원 | 334.필부 | 335.한공의 | 336.한리 | 337.한상질 |
| 338.한서구 | 339.한서룡 | 340.한수 | 341.한승순 | 342.한약 | 343.한언공 |
| 344.한중손 | 345.허금 | 346.허로 | 347.허조 | 348.허중 | 349.허준 |
| 350.허침 | 351.허형순 | 352.홍길민 | 353.홍낙성 | 354.홍량 | 355.홍석주 |
| 356.홍여방 | 357.홍춘경 | 358.황보인 | 359.황선 | 360.황수신 | 361.황정욱 |
| 362.황준 | 363.황치신 | 364.황혁 | 365.황희 | | |

I 제2장 I 근·현대 인물

- | | | | | | |
|--------|--------|--------|--------|--------|--------|
| 1.강홍문 | 2.경구현 | 3.경현수 | 4.권중삼 | 5.김남산 | 6.김선명 |
| 7.김수덕 | 8.김수민 | 9.김영도 | 10.김은중 | 11.김정환 | 12.김창실 |
| 13.남동민 | 14.노동식 | 15.박영준 | 16.박원선 | 17.박찬익 | 18.반학연 |
| 19.백영현 | 20.백종렬 | 21.번석봉 | 22.성낙형 | 23.송금중 | 24.송창석 |
| 25.신후승 | 26.심상각 | 27.엄규호 | 28.유광렬 | 29.유극로 | 30.유연원 |
| 31.유화진 | 32.윤기섭 | 33.윤복영 | 34.윤학수 | 35.이기하 | 36.이문섭 |
| 37.이병의 | 38.이봉철 | 39.이영진 | 40.이용현 | 41.이인욱 | 42.이중혁 |
| 43.이진구 | 44.임명애 | 45.장경춘 | 46.정갑석 | 47.정봉화 | 48.정용대 |
| 49.정천화 | 50.정태진 | 51.정훈준 | 52.조무쇠 | 53.조소양 | 54.최창섭 |
| 55.최홍주 | 56.황인수 | 57.황장연 | | | |

I 부록 I 인물 일람표

파주문화유적지(坡州文化遺跡誌)



- 발행년월 : 1994년 12월 1일

- 내용

파주의 문화재와 충신 효자 열녀실태조사, 독립유공자 열람표, 관내·관외 인물 유적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목차

| 문화재 조사현황 |

(국가문화재, 경기도문화재, 파주군문화재, 문화원문화재)

| 충신 효자 열녀 조사현황 |

(충신 실태 현황, 효자 실태 현황, 효부, 열녀 실태 현황, 파주군 독립유공자 열람표)

| 관내 인물 유적 현황 |

| 관외 인물 유적 현황 |

| 부록 |

- 고려 공양왕2년 경기도 영현표
- 조선 태조3년 경기도 영현표
- 유현연원도(전고대망 참조)
- 기호학과 예학의 계보(서인계)
- 영남학과 예학의 계보(남인계)
- 성리학과 분열과 당쟁

30가지 테마로 떠나는 파주 역사 · 문화 기행



- 발행년월 : 2003년 12월 30일

- 내용

고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문화유산의 보고, 파주의 다양한 모습을 테마별 기행문으로 정리했다.

- 저자 : 이윤희

목차

I 제1장 | 역사의 숨결, 문화의 보고 속으로

(왕릉, 원(園), 향교, 사찰, 산성, 선사유적, 불교유적)

I 제2장 | 파주인의 정신, 그 뿌리를 찾아

(파주3얼, 서원, 사우, 충신·열녀비, 독립운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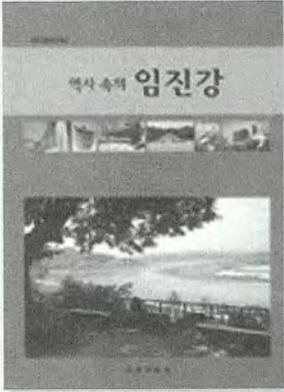
I 제3장 | 선현의 발자취를 따라

(선현묘역 순례)

I 제4장 | 문향 파주의 뒤편길

(문향, 옛국도 1호선, 전설, 민속마을, 박물관, 비무장지대, 통일, 생태 기행)

역사속의 임진강



- 발행년월 : 2002년 11월

- 내용

파주의 대동맥인 임진강의 역사적 의미와 임진강을 중심으로 피어난 문화적 자료를 집대성했다.

목차

- 임진강에 대하여
- 역사속의 임진강
- 생활속의 임진강 (어로, 교역, 민속, 환경)
- 임진강 관련 논문
- 임진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 임진강유역의 역사인문지리, 임진강 유역의 민속문화
- 파주에 전해오는 임진강 관련 전설

찬란한 파주의 역사와 문화



- 발행년월 : 2003년 12월 30일

- 내용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파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게 기술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지역학습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목차

- 역사속의 파주 (인문 · 자연환경, 연혁, 역사)
- 찬란한 문화유산 (문화재, 비지정문화유산, 지명유래와 전설)
- 파주를 빛낸 인물 (파주3열, 고려 · 조선시대 인물, 독립운동가)
- 파주의 문화와 예술 (전통민속, 지역축제, 문화예술 정보)

파주금석문대관 - 신도비편 (坡州金石文大觀 - 神道碑篇)



- 발행년월 : 2000년 12월 30일

- 내용

파주에 산재한 신도비 51개의 사진과 원문을 수록하고 번역문을 덧붙였다.

- 발행처 : 파주시 · 파주문화원

신도비문 수록 인물

경복흥, 구봉서, 권수평, 권 재, 김덕함, 김연경, 노사신, 노 한, 박명원, 박은, 박응복, 박중손, 성달생, 성세창, 성엄, 성임, 성직, 성훈, 송거신, 숙빈최씨, 신민일, 심순경, 심의겸, 심지원, 심희, 윤계겸, 윤곤, 윤관, 윤번, 윤사훈, 윤우, 윤지임, 이광정, 이녹생, 이빈, 이세화, 이수, 이이, 이주, 이창정, 이천, 이희, 이후백, 장사길, 정효상, 조광원, 최운해, 최흥원, 황수신, 황정욱, 황 희(가나다순)

파주지명유래와 전설



- 발행년월 : 1997년 12월 30일

- 내용

개발과 변화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파주지역의 지명에 담긴 유래와 전설을 집대성하여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 저자 : 이기현

목차

- 파주지역의 연혁
- 파주시 읍면리동 지명유래
- 장단군의 연혁
- 장단군 면리동 지명유래
- 각 읍면동별 유래와 전설
- 산천, 고개, 나루, 정자 유래
- 파주지역 문화유적

I 제7절 | 현대의 파주

1. 해방과 대한민국정부수립 2. 농지개혁 3. 한국전쟁

I 제2장 | 현대사회

제1절 _ 정치

1. 지방자치제도의 실현 2. 선거와 투표 3. 정당

제2절 _ 행정

1. 행정개황 2. 실 · 과행정
3. 각급 행정 · 사법기관 4. 재정

제3절 산업

1. 농업 2. 축산업 3. 어업 4. 임업 5. 광업 6. 공업
7. 상업 8. 금융 9. 교통 10. 통신 11. 관광 · 레저

제4절 사회

1. 파주사회의 변화 2. 사회운동 3. 복지 · 보건
4. 환경 5. 주한미군과 파주사회

제5절 문화

1. 교육 2. 종교 3. 예술 4. 언론 · 방송
5. 체육 6. 문화기관 · 단체 및 문화행사

I 제3장 | 읍 · 면의 역사와 문화

- | | |
|------------|------------------------------|
| 제1절 _ 금촌읍 | 제2절 _ 문산읍 |
| 제3절 _ 파주읍 | 제4절 _ 법원읍 |
| 제5절 _ 월롱면 | 제6절 _ 탄현면 |
| 제7절 _ 교하면 | 제8절 _ 조리면 |
| 제9절 _ 광탄면 | 제10절 _ 파평면 |
| 제11절 _ 적성면 | 제12절 _ 군내면 · 장단면 · 진동면 · 진서면 |

I 附錄 인물 I

제1절 _ 고려 · 조선조 인물

경연, 경흔, 김덕함, 노사신, 노한, 박명원, 박세채, 백인결, 성수증, 성수침, 성현, 성훈, 송익필, 신사임당, 심의겸, 심지원, 윤관, 이경여, 이세화, 이유길, 이이, 이종성, 이회, 이후백, 장사길, 장순손, 정관수, 정탁, 조석문, 회흥원, 한약, 허조, 허준, 홍낙성, 홍석주, 황보인, 황수신, 황희

제2절 _ 근대인물

경현수, 김남산, 노동식, 박원선, 박찬익, 반하경, 심상각, 정태진, 정흥준, 최흥주

I 지정문화재 일람표 I

I 참고문헌 I

I 찾아보기 I

I 후기 I

파주민요론 (坡州民謠論)



- 발행년월 : 1997년 2월 5일

- 내용

옛부터 파주지역에 구비전승 되어오는 다양한 민요를 채집·기록하여 한권의 책과 cd로 엮었다.

- 저자 : 이소라

목차

1. 내고장의 노래
2.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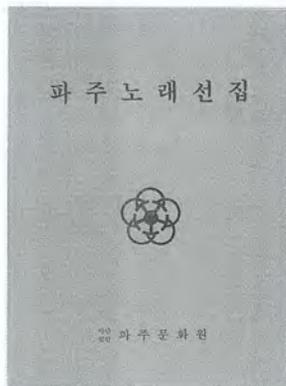
2_1. 배경	2_2. 녹음, 조사지역	2_3. 농사일정
2_4. 민요의 개념	2_5. 민요의 분류	
3. 파주민요의 특색
4. 파주 금산리 농요
5. 모찌는 소리와 파주

5_1. 모찌는 소리 출현시기의 상한선	5_2. 모찌는 소리의 종류
5_3. 파주의 모찌는 소리	
6. 모심는 소리와 파주

6_1. 벼농사의 기원	6_1. 모심는 소리의 종류	6_1. 파주의 모심는 소리
--------------	-----------------	-----------------
7. 경기도의 논맴소리와 파주
8. 논김 양산도와 논맴 양산도
9. 논김 방아타령 방아타령 방아소리
10. 헤이리 考
11. 오돌독과 오돌또기 및 오독떼기
12. 우야소리 考
13. 용두레질소리, 풀나무 깎는 소리, 소부림말 등
14. 지경소리
15. 동요
16. 흥민요
17. 의식요

17_2. 비손, 고사반, 축	17_3. 널 액막음 소리	17_4. 행상소리
17_5. 회방아소리	17_6. 용미리 상부소리	

파주노래선집



- 발행년월 : 1993년 12월 20일

- 내용

우리 고장의 선조들이 불러온 민요와 대중가요, 국경일의 노래, 건전가요, 동요, 지역별 산천과 풍경으로 작사·작곡된 각급학교의 교가를 수집하여 편찬한 책이다.

목차

- 발간사
- 국경의 노래
- 전통민요
- 대중가요
- 각급학교 교가
- 축간사
- 건전가요
- 어린이동요

가요의 기원과 민족성, 아리랑은 최고의 가요인가, 방아타령에 얽힌 사연, 설화로 본 양산도의 유래, 신민요

금촌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월릉면, 탄현면, 교하면, 조리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졸업가

의례해설전서(儀禮解說典書)



- 발행년월 : 1990년 9월

- 내용

파주에 소재한 문화유적의 향사(享祀) 예의(禮儀) 및 일반가정에서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 관한 전통예법을 간추려 편찬하였다.

目次

- 四禮 (冠婚喪祭) 由來
- 釋奠祭 笏記 解說
- 官內 鄉校 書院 影廟 壇 沿革 現況
- 官內 文化財 享祀 祝文 解說
- 喪禮, 祭祀, 移葬, 其他 祝文 解說 等

파주실록(坡州實錄)



- 발행년월 : 2001년 11월 15일

- 내용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파주 관련 사료를 발췌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정리하여 파주의 생활상, 시대적 상황, 지역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 발행처 : 파주시 · 파주문화원

목차

I 1장 | 파주의 연혁

1. 제도개편 2. 지리 3. 군사제도 4. 파주에 왔던 관리

I 2장 | 파주의 사회상

1. 고변, 참서 2. 살인, 절도 3. 강상죄
4. 금표 5. 전염병 6. 자연재해, 이변

I 3장 | 파주의 경제상

1. 농업 2. 조세 3. 구휼

I 4장 | 임진왜란 · 병자호란과 파주

1. 임진왜란과 파주 전투상황 2. 명나라 군사의 주둔 3. 파주산성

I 5장 | 외국사신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는 파주

1. 명의 사신증, 그리고 파주 2. 청과의 외교

I 6장 | 파주의 인물

1. 청백리, 충신 2. 호자, 호부, 열녀 3. 파주에 머문 사람

I 7장 | 파주의 유적

1. 행궁 2. 순릉 3. 공릉 4. 영릉
5. 장릉 6. 희릉 7. 소령원

I 파주실록 연표 I

I 찾아보기 I

2007 임진강 민속축제



민속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통일도시 파주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대보름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연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프로그램으로 짜여진 '2007 임진강 민속축제'가 3월31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펼쳐졌다.

'연날리기 한마당'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전문가들에게 연을 배우고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며 창작연 경연대회, 연 높이·멀리 날리기 등의 시합이 치러지는 동시에 아름다운 모기연과 대형연이 하늘을 수놓았다.

또한 팽이 돌리기, 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비롯해 풍물놀이와 태권무 공연 등 전통민속 공연이 열렸으며, 대보름 음식과 부럼 판매장, 떡 메치기 체험 등 다양한 먹거리마당이 준비되어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행사장내 전시장에서는 관내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짚과 풀로 만들어 '짚·풀 문화공예품 공모전'에 출품한 멍석, 맷방석, 가마니 등 다양한 전통 짚·풀 문화공예품이 전시돼 우리의 전통문화도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어르신들이 직접 짚·풀 문화공예품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전시작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했다.

정월대보름 전통민속음식인 오곡밥, 진채식 등의 전통음식 판매장과 호두, 땅콩, 잣, 밤 등 부럼을 판매하는 먹거리장터가 개설되었으며, 파주시중합자원봉사센터의 전통음식 판매장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북한어린이들에게 결핵약을 보내는 성금으로 사용되었다.

:: 짚·풀 문화공예품 공모전



임진강 민속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짚·풀 문화공예품 공모전'에서 '왕골돛자리'를 출품한 성낙연(월릉면 위전리)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재환씨의 '도래멍석'이 금상을 차지했으며 '짚신'을 출품한 원태복씨와 '도래멍석'을 출품한 김명기씨, '짚 향아리와 맷방석'을 출품한 김영균씨가 은상을 수상하는 등 40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왕골자리'는 전통을 충실히 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무늬를 살린 솜씨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날줄을 모시풀로 일일이 손으로 비벼 꼬아 짚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았다.

심사를 맡은 인병선관장(짚·풀생활사박물관)은 "심사는 전통공예를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기교보다 전통에 충실한 작품을 우선했고 대상을 받은 '왕골돛자리'는 전통공법에 충실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파주시 전역에서 14개 노인정 14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으며 짚신, 둥구미, 싸리비 등 다양한 종류의 짚·풀 문화공예품 300여점이 출품됐다.

수상작품들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되는 임진강 민속축제 행사장에서 전시된 후 농업기술센터 내 농경유물관에 보관되었다.

본원 신춘범 원장 제23회 파주문화상 시상



본원의 신춘범 원장이 제23회 파주시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파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장 유화선 시장)는 올해 문화상 수상자로 신춘범 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최고 권위의 상인 문화상 수상자의 영예를 안은 신 원장은 지난 2000년 3월, 이기현 원장 후임으로 파주문화원장에 취임한 이래 7년 동안 파주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공존을 위해 여러 사업을 성료 시켰다.

울곡문화제와 임진강 민속축제 등을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로 자리잡게 한 공헌자이며, '파주실록', '파주연구' 등 향토사료를 발굴, 책으로 출간해 향토문화 발전에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울곡문화제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울곡사상 국제 학술회'를 개최하여 울곡사상을 심도있게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향토문화연구소, 문화유산해설사회 등 문화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원내에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향토유적답사, 서예 등 문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문화된 문화인력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지역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노력은 지난 2001년 열린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우수상을 받을 것을 비롯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소년민속축제에서 교하두레풍물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상은 모든 문화인들의 기쁨"이라며 "체계적인 연구로 파주문화를 후대에게 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신 원장은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파주군 내무과장, 부천시 원미구청장 등을 역임한 공직자 출신이다. 시상식은 4월 28일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파주시민화합체육대회'에서 가졌다.



2007 파주 어린이 책잔치



'2007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가 5월 4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출판도시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출판도시문화재단 이기웅 이사장,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

유화선 파주시장, 김형필 파주시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개막식에 이어 약 1시간 동안 테마 전시관 등 행사장을 둘러봤다. '온 몸으로 만나는 어린이 책 세상'이라는 주제로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50여개의 출판사가 참여해 각종 어린이책을 전시·판매했다.

또한 출판 과정 견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 복사본을 관람한 뒤 자신만의 직지책을 만들어볼 수 있는 고인쇄체험전도 열렸으며, 그래픽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작품을 활용한 설치물을 아이들이 직접 직접 만지고 그 안에서 뛰놀 수 있는 '그림책 놀이방'이 마련되며 감미로운 재즈 선율로 동요를 연주하는 'Jazzkid's' 등의 공연도 펼쳐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출판도시를 산책하듯 여유롭게 돌아보며 북카페, 인형극, 독서 퀴즈대회, 종이의 발전사 전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체험하는 북시티 프롬나드가 있으며, 테마전시회로 "시각 이미지로 살펴 본 우리나라 어린이 책의 역사"에서는 원본 도서 600여 점 ('소년' 지 이후 현재까지), 우수표지와 일러스트레이션, 토탈 그래픽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전시되었다. "그래픽 아티스트가 만들어 놓은 그림책 놀이방(시각체험) 전시와 어린이책에 관한 이슈를 제공하고 이를 공정하게 이끌어줄 지성을 초청하여 강연하는 심포지움도 마련되어 진지한 모색이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은 파주어린이책잔치는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로, 2003년부터 도시를 알리고 어린이책 관계자들의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로 파주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열려왔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손님들은 행사가 다양한 어린이 책을 알리고 부모와 어린이들이 즐길 '잔치'를 마련한다는 본디 취지에서 멀어져 해마다 점점 볼 게 없어진다는 지적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어린이 책 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국제적인 행사로 잔치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어린이 책 시장이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하여 국제도서전에서 상을 받는 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어린이도서전인 파주어린이책잔치가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참여해 책에 관심을 갖는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책도 널리 알리는 열린장이 될 수 있도록 출판계 저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잔치 관계자는 "올해 어린이책잔치는 어린이날 다녔던 사람들이 2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오랜 행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린이 책의 시각 이미지 변천사를 짚어보는 올해 테마전시처럼 꼭 필요한 전시를 보여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경기민요보존회 파주지부 “경기민요 한마당”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전통공연마당인 “경기민요한마당”이 2007년 6월 30일 17시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비단타령, 살풀이, 사물놀이 등 전통공연을 선보였다.

(사)경기민요보존회 파주지부가 주최한 이번공연은 전통 문화 예술의 맥을 이어나가는 무형문화재 이춘희(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예능보유자) 선생과 경기민요 이수자, 경기민요보존회 파주지부 회원들이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청춘가, 태평가, 창부타령을 선보였으며, 서민의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가락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의 비단 이름을 총망라하여 해학적으로 풍자한 ‘비단타령’ 과 여인들의 한이 담겨있는 ‘살풀이’, 농민들의 ‘농요’ 와 어부의 노래인 ‘배치기’ 등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노래로 풀어낸 옛 선조의 풍류를 느끼게 해 준 시간으로 시민의 호응이 높았다.

민요는 같은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 공동체의 음악언어이며, 민요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이해력과 포용력을 넓히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특별한 맛과 멋이 살아 있으며, 삶의 애환과 희노애락이 녹아 있는 경기민요의 흥겨운 가락과 진솔한 내용이 시민들에게 애항심과 자부심을 키워주는 기회가 되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공연을 통해 경기민요보존회 파주지부는 경기민요의 계승과 재창조는 물론 국악의 발전과 우리의 아름다운 가락과 멋을 나누는 흥겨운 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제11회 파주미술협회전

(THE 11TH PAJU FINE ARTS ASSOCIATION EXHIBITION 2007)



제11회 협회전을 통해 파주미협 회원들의 작품을 5월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했다.

파주미술협회전은 지역 사회적 무관심과 열악한 전시장 여건 속에서도 창작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파주의 미술인들이 소수를 위한 미술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미술을 하고자 하는 작가정신을 가지고 시민과 호흡하고 생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11회까지 진행되었다.

임제철 예총 회장은 “그동안 미협 파주지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미술 발전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회원들의 부단한 창작활동을 통해 매년 훌륭한 작품들을 발표해 오고 있는 상황이며 예술인들의 이러한 노고는 파주가 예술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전에는 고경순, 김동배, 김병걸, 김영은 등 지역의 48명의 작가가 작품을 출품하여 시민의 미술적 감성을 자극했다.

2007 파주시합창단 기획연주회 “아름다운 선율, 즐거운 댄스”



오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5월 25일(금) 오후 7시 30분에 시작,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전야제로 파주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무용과 합창이 어우러진 연주회는 '아름다운 선율, 즐거운 댄스'를 주제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레퍼토리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김성경 SBS아나운서가 사회를 보았으며, 오케스트라단의 '오페라의 유령'을 시작으로 파주시합창단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러시아국립무용단의 발레 '백조의 호수', 한류 열풍을 몰고 온 B-Boy팀의 역동적인 댄스, 신나고 즐거운 춤 연기를 보여준 탭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은 시민의 문화욕구와 문화 시민 의식을 충족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제9회 거리예술제



파주 예술인들의 기량과 시민이 함께 하는 '제9회 파주예술제'가 5월 23~24일 금촌 문화로, 명동로와 시민회관에서 펼쳐졌다.

올해 예술제는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와 연계하여 열렸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공연과 체험행사를 제공, 재미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했다.

첫날에는 문화로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주부들의 노래솜씨를 뽐내는 '파주시 주부가요제', 한울무용단의 공연과 재즈댄스, 발리댄스 등이 열렸으며, 유화선 시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하는 개막식에 이어 파주시 합창단과 윈드오케스트라의 협연이 펼쳐졌다.

둘째 날에는 김은희 무용단 공연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과 끼를 펼쳐 보이는 파주 청소년무용단 공연이 특설무대에서 열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트로트 공연과 그룹사운드 DMZ의 공연이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았다.

이밖에도 문학, 미술, 음악 등 각 장르별 다양한 전시회와 비누방울 가족체험놀이, 케리커처 그리기, 도자기 체험, 퍼즐게임, 미니자동차 체험,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거리 곳곳에서 펼쳐졌다.

파주장단콩축제



국내 유일의 콩 축제이면서 파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파주장단콩 축제'는 1997년부터 매년 11월 콩 수확시기에 맞춰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파주장단콩축제'는 매년 관람객이 급증하면서 올해에도 약 75만여명이 찾아와 장단콩 8천가마를 판매했다.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계속된 이번 축제는 장단콩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알콩마당', 장단콩과 관련된 각종 음식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달콩마당', 꼬마메주 만들기, 두부만들기, 전통 가마솥 순두부 체험, 콩떡 만들기 등 가족 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 '놀콩마당'을 비롯해 한국 공학회 학술발표회, 불꽃놀이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어울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장단콩축제는 DMZ 관광투어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외국 관람객들에게도 파주장단콩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파주장단콩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콩 파종부터 수확, 선별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생산이력제를 실시했으며, 판매된 콩에 대한 소비자 리콜서비스 및 생산자인 파주장단콩연구회의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구매한 물품을 주차장까지 무료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



다양한 야생화와 초화류로 꾸며진 '심학산 돌꽃이 꽃마을축제'가 5월 26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돌꽃마을에서 열려 연인과 가족 나들이객 등 관광객 2만여명이 찾아 늦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꽃·책, 그리고 자연'이란 주제로, 시골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야외 꽃잔치인 이번 축제는 마을 곳곳과 15만여평의 들판을 물들인 양귀비, 수레국화, 유채꽃, 금영화 등形形色색의 꽃들이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150여종의 야생화가 심어진 2만여평의 꽃대궐 언덕과 꽃잔디로 덮인 3만6천여평의 다락논 꽃밭, 튤립과 철쭉 등으로

차장한 1만5000평의 시골마당, 정원 및 전통 먹거리 장터에서 장단공 등 지역 특산품이 준비되었다.

더불어 심학산에서는 3.5km, 5km, 7km 3개 코스로 나눠 꽃대궐과 해발 194m의 산 정상까지 가족과 함께 오르는 '심학산 돌꽃이 가족걷기대회'도 열려 성황을 이뤘다.

인근 북시티에 입주한 250여개 출판사들이 발간한 어린이 책 판매와 유명작가들의 친필사인회, 플라워아트(Flower Art) 콘테스트에 출품된 원예작품, 다도(茶道)시연, 러시아국립무용단과 유진박이 함께하는 '소리·몸짓의 하모니' 공연, 최신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꽃밭시네마, 열기구 행글라이더 등의 부대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남경주 등 국내 대표 뮤지컬배우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과 청소년들의 끼를 엿볼 수 있는 댄스가요 페스티벌, 사생대회, 꽃마을 백일장, 미8군 군악대의 락(Rock) 공연, 송승환의 난타공연, 레이저쇼 등의 공연이 닷새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모두 4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개막행사인 꽃차 퍼레이드에 2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을 비롯, 미국과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필리핀 등 세계 13개국 주한외교사절단과 가족들, 자매결연 도시인 호주 투움바시(市)와 칠레 랑카과시에서 온 축하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꽃축제를 즐겼다.

그러나 휴일을 맞아 한꺼번에 몰린 관광객들과 갓길에 무단 주차된 차량들 탓에 행사장 초입, 출판단지과 서울로 향하는 도로 양 방향이 교통혼잡을 빚었으며 햇빛을 피할 그늘과 휴식 공간이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유화선 시장은 "돌꽃마을과 심학산은 철따라 야생화와 초화류가 피어 사시시절 찾아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이번 축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청정한 환경을 바탕으로 파주를 친환경 도시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6회 파주단오축제



경기일보파주지사가 주최하고 파주단오축제위원회(위원장 강석우)주관하였으며 파주교육청, 농협 등이 후원한 가운데 제 6회 파주단오축제가 6월 16일 법원을 금곡리의 쇠골마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에는 이재창 국회의원을 비롯 송승한 교육장, 임제철 파주예총지부장, 임우영 도의원, 정현모 경기도교육위원, 김영기시 의원과 2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하였으며, 창포로 머리감기, 허브 떡메치기, 창포투호, 농부 지게지기, 그네뛰기, 씨름 등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식전행사로 웅담초등학교 브라스밴드와 율곡고 취타대, 보덕솔국악연구소의 국악한마당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연주와 민속놀이가 어우러졌다.

오후에는 어린이 씨름대회, 떡메치기 단체대회, 가족 지게지기 릴레이대회, OX퀴즈대회, 단오사생대회, 백일장대회, 막걸리 마시기 대회,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 노래자랑에서 김민혁(대상 · 와석초 · 3학년), 손재원(금상 · 청암초 · 3학년), 서새미(은상 · 천현초 · 5학년) 등이 각각 교육장상과 경기일보사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단오 씨름대회에서는 김도윤(천현초교), 현민혁(법원초교), 김민재(마지초교)가 각 1,2,3등을 차지했으며 단오그네뛰기 대회는 강수진, 김민혁, 김건호 어린이가 각각 1,2,3등을 차지했다.



어르신들의 젊은 끼 '시니어거리예술제'



파주시노인복지회관에서 10월 26일 금촌 로데오 분수광장에서 열린 '시니어거리예술제' 공연 모습. 배너에는 '파주시니어 한마당'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은 10월 26일 금촌 로데오 분수광장에서 임우영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노인회장, 파주방송사장, 한국복지관협회장, 시의회 부의장, 문화원장, 어머니회장, 파주시 시민지원국장 등 내빈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시니어 거리 예술제'를 열었다.

시민들이 가족과 모인 분수광장 무대 위에서 댄스스포츠 자이브, 합창, 우리춤체조, 장구, 포크댄스, 경기민요 등 어르신의 실력이 선보였다. 금촌새싹어린이집이 라틴댄스 공연을 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부대행사로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가훈 써주기, 즉석사진, 사진전 등 무료 이벤트가 진행됐다. 부대행사의 판매수익과 후원금은 독거 어르신 돕기에 쓰였다.

올해 3회를 맞는 '시니어 한마당'은 그동안 가족들만 참석해 내부에서만 치러졌으나 주민과 함께 즐기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외부에서 공연을 해 좋은 평가와 성원을 얻었다.

‘동의보감’ 구암 허준묘소 일반인에게 개방

민통선 지역인 진동면 하포리에 있는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 묘(기념물 128호)가 일반에 개방된다.

파주시는 7월 24일부터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허준 선생 묘 등을 돌아보는 안보견학 관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왕복 4시간(왕복거리 45.6km)이 소요되는 안보관광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 인솔을 받아 하루 한차례씩 한정, 실시하며 매일 오후 1시 임진각에서 출발한다.



파주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광 코스** : 도라산전망대 - 제3땅굴 - 허준선생묘 - 동파리 해마루촌

* **소요 시간** : 4시간(왕복거리 : 45.6km)

* **관람방법** : - 일일 1회 시범실시 : 13:00시에 임진각 출발

- 개인 : 셔틀버스이용

- 단체인 경우 임진각 매표소(031-954-0303)에 사전 예약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 인솔하에 일일 1회 13:00시 운영

- 코스운영상 제3땅굴 관람은 도보관람만 가능

- 관광수요가 점차 증대될 경우 확대운영

* **요금** : - 성인 : 9,000원(셔틀버스요금 포함)

- 어린이 청소년 : 7,000원(셔틀버스요금 포함)

- 경로 : 6,200원(셔틀버스요금 포함)



메뚜기와 함께한 파주농산물축제



임직각에서 10월 6~7일 양일간 개최된 '메뚜기와 함께 자란 파주농산물축제'에 15만여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는 친환경농업실천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연예인 축하공연과 임진강 청정지역에서 오리와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농법의 임진강쌀을 비롯해 농경역사 사진, 메뚜기 및 세계 곤충, 바이오 감자, 농산물 가공품 등을 전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농경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농경역사 사진전과 누에의 생태와 활동을 알게 해주는 핑크누에 전시전이 높은 호응속에 진행되었으며, 체험행사로 진행된 메뚜기잡기, 뱀장어잡기, 참게잡기 등의 프로그램은 농촌체험의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또 곤충 표본만들기, 탈곡기 등을 이용한 가을걷이, 콩, 감자, 고구마 구워먹기를 비롯하여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무료 시식 코너, 임진강쌀, 메뚜기 튀김, 뱀장어, 떡, 산머루 등 지역 특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판매장도 개설됐다.



농산물 축제는 어려운 농촌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문화를 알리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제20회 율곡문화제



파주가 낳은 선현이신 율곡(栗谷) 이이(李瑋)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파주시민의 화합을 위한 제20회 율곡문화제가 10월 11일 전국율곡서예대전 개막식과 율곡사상 국제 학술대회, 파주심포니오케스트라 전야경축공연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자운서원과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추향제례, 율곡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전통다례 등과 장원급제 퀴즈대회, 전통혼례, 서원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돼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올해 ‘율곡문화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예술축제로 격상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마련됐다.

‘서원(書院)으로 떠나는 가을 소풍’을 주제로 열린 율곡문화제는 선생의 묘소가 있는 자운서원을 중심으로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열렸다.

전야제인 11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파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는 서현석 지휘로 박지현, 우주호 등 유명 성악가가 출연, 서도민요와 가곡 등을 불렀으며, 부대행사로는 태평12지놀이와 마당놀이 ‘흥부네 박 터졌네’, 줄타기 공연이 펼쳐졌으며 13일에는 서원음악회가 열렸다.

또한 사생대회와 휘호대회, 전국 한시백일장, 율곡 백일장이 열렸으며, 12일부터 20일까지 출판단지 갤러리 아이오에서는 ‘한중 조각 교류전’,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율곡서예대전 작품전시회가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체험행사로 전통다례시연, 파주3현 유적지 순례, 전통혼례 시연, 장원급제 퀴즈대회 등이 곳곳에서 열려 율곡 선생의 유덕을 기렸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문수 도지사는 “율곡 이이 선생은 파주가 낳은 성현이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위대한 분”이라며 율곡문화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2007 실버문화사랑축제 6070 실버들, 문화리더로 '인생 2막'



**2007 1·2·3세대 문화놀이예
실버문화사랑축제**

2007. 10. 20(토) - 22(일)
일산호수공원 내 '꽃 전시장'

*** 실버문화사랑축제 *...**

“문화는 문화의 향유(享受)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화의 생산(生産)’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문화적 역동성이 발휘되어 사회의 질적(質的)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의 문화정책을 통해 활기 차게 흥겨우고, 노년(老)의 활력을 증진(增進)시켜 줄 수 있다.”

2007 실버문화사랑축제 1·2·3세대 문화놀이예 프로그램

- 1. **지역문화공연** : 송악민요, 풍물놀이, 아리랑, 판소리, 전통무용, 사물놀이, 민중무용 등
- 2. **전통문화체험** : 한지, 민화, 풍선아트, 전통놀이, 전통음식, 전통예능, 가요제, 나팔기, 나팔대 등
- 3. **노년문화공연** : 노인합창단, 노인악기합주단, 노인연극단, 노인무용단, 노인연가제 등
- 4. **문화리더대상** : 비서양문화, 전통문화, 민중문화, 현대문화, 문화리더대상 시상식(이벤트) 개최, 시상식 등
- 5. **문화리더교류**
 - 지역문화 : 문화리더대상 시상식, 문화리더대상 시상식
 - 문화리더 : 문화리더대상 시상식, 문화리더대상 시상식
 - 문화리더 : 문화리더대상 시상식, 문화리더대상 시상식
 - 문화리더 : 문화리더대상 시상식, 문화리더대상 시상식

일시	1·2·3세대 문화놀이예 2007 실버문화사랑축제
일시	2007년 10월 20(토) ~ 22(일) 10:00 ~ 18:00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소	일산호수공원 내 꽃전시장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 02-312-1111, 02-312-1112

한 국가의 문화가 총체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문화가 지역민들에게 뿌리내리는 것은 물론 내용적으로도 독창적이어야 한다.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은 이를 감당해낼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0월 20~22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내 꽃전시장에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한미당 축제가 열렸다.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용태)가 주최하는 '2007 실버문화사랑축제' 행사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 행사엔 전국 76개 지방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땡땡! 실버문화학교' 수강생 등 실버세대 5천여명이 참가했다.

기존의 노인대상 복지 행사나 실버산업전 등과 차별성을 띠는 이 행사는 실버세대의 문화를 아트마켓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국내 유일의 실버문화축제다. 실버 세대를 단순히 복지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문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행사에 참가한 실버 세대들은 각 지역의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실버 문화학교에서 평소 같고닮은 자신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강원 평창문화원의 '아리리 난타', 경남 진해문화원의 '실버 뮤지컬', 부산 동래문화원의 '전통탈 체험' 등 실버 세대 특유의 문화를 선보였던 것. 지방문화원이 주축이 돼 실버세대가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 한자리에 모여 꽃을 피운 행사였다.

소외와 배려의 대상에 머물러 있던 노령층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생산해내는 '문화실버족'으로 거듭나게 된 데는 지방문화원의 '땡땡! 실버문화학교'가 단순히 노령층에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 후 사회활동에 참여해 봉사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각 지역의 문화원을 통해 보다 많은 실버세대가 문화리더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행사에는 파주시의 박정희 할머니의 35분의 할머니들이 참관했다.



2007파주개성인삼축제



10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임진각에서 열린 '2007 파주개성인삼축제'에 65만명의 방문객들이 몰려 올해 출시된 파주개성인삼 6년근이 전량 판매가 되는 등 21억원 상당의 인삼 28톤과 약 40억원 상당의 파주농특산물이 판매되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축제에는 파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칠레 랑카과시 시장 일행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사관 직원 등 외국인들도 100여명이 참여해 인삼 캐기와 인삼주 담그기, 인삼요리, 인삼우유 마시기 등의 체험행사를 통해 파주개성인삼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파주개성인삼요리경연 전국대회에 예선을 거쳐 엄선된 30여팀이 축제당일 요리경연을 벌여 관람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으며, 올해 생산된 6년근 가운데 최고 수작을 뽑는 인삼명인선발대회도 열렸다.

축제장 한편에 인삼, 이끼 등으로 만든 2.5m 높이의 인삼 조형물, 인삼동산과 전통인삼밭을 조성했으며, 개성인삼 재배와 교역의 일등공신인 주세봉 황해도 관찰사와 보부상 행상 행렬을 재현한 길놀이와 각 읍면마다 특색있는 길놀이를 펼쳤다. 무엇보다 파주개성인삼은 일교차가 큰 파주시 일대 모래참흙에서 재배되어 항암효과가 있는 사포닌 함량이 풍부하고 잔뿌리와 세밀한 뇌두 조직에서 향과 맛, 색깔이 진하게 풍기는 것으로 유명한 고품질의 6년근 개성인삼이다.



경기도 문학상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경기도 지회가 제정하고 경기도지사가 수여하는 2007년 제16회 경기도문학상 시상식이 2007년 11월 26일 오후 6시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3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도문학상은 경기도 문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신작 발표 등 문인들의 문학 활동 전반을 심사해 선정하는 경기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이전에 문인협회 파주지부(지부장 권오영)의 이동문 고문 등이 수상했다.

올해 '제16회 경기도문학상'에는 문인협회 파주지부에서 회원으로 활동중인 장기숙씨가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최봉희 회원이 공로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경기신인문학상에는 신현임 회원이 시부문에 당선됐다. 우수상 수상자 장기숙 회원은 서울에서 출생해 2003년 '열린 시학 열린 시조'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봉희 회원은 현재 파주공고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시조문학', '문예사조' 신인상으로 문단에 들어와 고블 맹사성 전국시조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신인상을 받은 신현임 회원은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제16회 경기도문학상' 대상에는 남해출신 소설가인 김진희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평윤씨 정정공파 교하향사 이전



파평윤씨 정정공파 교하향사 이전 준공식이 10월 23일 김형필 시의회 의장, 신춘범 문화원장 등 문화관계자와 파평윤씨 증중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하읍 당하리에서 열렸다.

신도시 개발로 이전하게된 교하향사는 파주에서 1천년을 내려온 파평윤씨의 정신적 지주터로 이 일대에 있는 20여 만평의 파평윤씨정정공파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 제182호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신춘범 문화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곳 문종땅 40만평에 골프장을 만들자는 주장에 반대하여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교하문중 원로님들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 문화재심사위원회에 의뢰하여 심사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했다”고 고경기도 문화재 지정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심사위원들이 전국의 문종땅 중 이렇게 넓은 터에 문화재가 있는 곳은 유일무이하여 야외박물관으로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중을 이루는 파평윤씨는 고려 태조를 도와 삼국 통일에 공을 세우고 벽상공신으로 삼중대광태사에 오른 윤신달을 시조로 4대손 관이 문종때 문과에 급제한 뒤 1107년 정벌군의 원수가 되어 여진을 평정한 공으로 추충좌리평용척지진국공신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 지군국중사에 오른 뒤 영평현(파평의 다른이름) 개국백에 봉해짐으로써 후손들이 파평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정정공파 교하증중은 고려말 시조 14대손인 판도판서 윤승례가 조선초기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교하땅에 은거하다가 친자 15세손 정정공 윤번(세종대왕의 사돈으로 세조의 부원군)이 1448년 별세하자, 세종대왕이 제례에 와 교하리, 당하리, 다울리, 와동리 일대 임야 180여정보를 하사하여 그후 정정공파 교하문중을 이루게 되었으며 현재 전국 각지로 흩어졌지만 파주에 700여세대 3천여명이 살고 있다.

사패지에는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의 부, 파평부원군 윤번, 증중의 왕비 장경왕후의 부, 파원부원군 윤여필, 증중의 왕비 문정왕후의 부, 파산부원군 윤지임 등 부원군과 정승, 판서, 승지, 참판, 대소벼슬의 분묘를 포함한 600여기의 묘소가 있어 경기도 기념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파평윤씨 묘역에는 부원군 3기, 정승 7기, 판서 9기, 승지 12기 등 600여기의 묘소가 있어 조선의 사대부 집안 묘역이 한 곳

에 있어 묘역 연구와 석물 등이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 받고 있다.

파평윤씨증중의 이름난 학자나 충신 등의 공적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제례를 지내는 사당인 교하향사를 새로 짓게 된 것은 2004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수용되자 작년 2월 철거하고 9억원 예산으로 사당, 제실, 관리사, 외삼문, 내삼문 등 향사를 원래 모습대로 복원시키고 교하문중을 이룬 정정공, 양평공, 윤사훈, 공양공, 윤계겸, 윤향, 정평공 윤지임 등 5분의 신주를 모셨다.



제1회 미래 상상 페스티벌



교하신도시에 조성된 친환경 테마공원과 세계 최대 규모의 '유비파크'에서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1회 미래 상상 페스티벌'이 열렸다.

대한주택공사와 파주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상천외한 동화 속과 만화 속의 캐릭터를 재현하는 코스프레 콘테스트와 온 가족이 참여하는 상상별 찾기 이벤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코스프레 콘테스트에서는 기존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일본식 코스프레를 탈피, 참여자의 개성과 창작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진행되며 코스프레를 전문으로 하는 '코스어'들의 무대공연, 포즈 쇼를 비롯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포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아리 무대공연 콘테스트로 구성돼 있다.

또한 현장에서 무료 대여가 가능한 코스튬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추후심사를 통해 입상작을 가리는 코스프레 사진 콘테스트도 열렸다.

온 가족이 참여하는 '상상별 찾기' 이벤트에서는 후크선장이 납치한 상상별을 찾으러 간다는 설정을 두고 길목 길목에 숨은 깜짝 이벤트를 즐겼다.

팡팡 불 대포 소기, 위풍당당 백마타기, 울룩불룩 성벽타기, 흔들다리 건너기, 보물상자 속 상상별 찾기, 나만의 토끼피리 만들기 등의 행사와 어린왕자, 백설공주, 후크선장의 코스튬을 입고 기념 촬영하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전문 힙합 공연팀 소울색터의 비-보이 공연과 금관악기에 코믹 요소를 더하여 클래식, 재즈 등의 음악을 연주하는 조이밴드,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와 '어린 왕자' 등이 공연되 호응을 얻었다.



2007 문산거리축제



문산의 대표적 문화축제인 2007문산거리축제가 '사랑해요 문산, 함께해요 거리축제'란 테마로 개최되었다.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문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문산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개막식을 비롯 임진강가요제, 문산읍노래자랑, 오케스트라, 보컬, 마술, 태권도시범, 발레, 재즈댄스, 유치원 재롱잔치, 불꽃놀이 등이 준비되었다.

참여마당은 네일아트,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가훈써주기, 골판지공예, 거리홀라후프, 과일깎기, 맥주빨리먹기, 우유빨대로 먹기가 예년과 같이 무료로 진행되었고, 무료 맛보기 코너로 삼겹살, 붕어빵, 전통떡, 막걸리, 생맥주가 준비되어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그러나 우천으로 인해 많은 행사들의 진행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해 시민들의 아쉬움을 샀다.





함께 하는 삶의 흥이 녹아있는 우리소리 '파주금산리 민요소리들' 정기공연



파주 금산리 민요보존회는 11월 10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7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로 경기도 서북부 지방 농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금산리 민요는 학계에서도 보존가치를 높이 살 만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농사일에 불려졌던 논농사 소리와 상여소리, 달구소리 등이 전래되고 있고, 특히 두레공동체를 통해 불려졌던 모찌는 소리, 김매기 소리, 방아타령, 헤이리소리, 몸돌소리 등 농사소리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의 농요와 달리 한 두사람의 선가자(先歌者)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선소리꾼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산리는 예로부터 서민의 정서와 문화가 잘 나타나 있는 다양한 농요를 보유하고 있는 고장이며 마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금산리민요보존회는 다양한 전통민속공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정기공연은 금산리 민요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승해줄 소중한 문화전통임을 일깨우는 흥겨운 자리가 되었다.

:: 금산리 민요보존회 일본 공연

금산리 민요보존회가 해외 우호도시 교류 일환으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하다노시에서 열리는 농산물 축제 '하다노 담배축제'에 참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금산리 민요보존회는 하다노시 담배축제 60주년 축하 공연에서 예로부터 농사일에 불려졌던 논농사 소리와 상여소리, 달구소리 등 다양한 민요를 선보였으며, 특히 두레 공동체를 통해 불려졌던 모찌는 소리, 김매기 소리, 방아타령, 헤이리 소리, 몸돌 소리 등 다양한 농사소리로 일본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축하공연은 파주시의 해외 우호도시인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하다노(秦野)시의 니노미야 다다오(二宮 忠夫) 시장이 지난해 장단콩축제 개막식에 참석, 유화선 시장에게 하다노시의 농산물 축제인 '하다노 담배축제'와 '파주 장단콩 축제'의 농산물교류를 제안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하다노시는 가나가와현 중서부에 위치한 약 17만 명의 중소도시로 도쿄에서 60km 떨어져 있으며, 파주시와는 96년부터 양 시의 의회를 중심으로 민간교류를 실시해 왔으며 2005년 우호도시 제휴에 대한 의향서를 교환함으로써 양 도시 및 시민간 광범위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7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생활문화의 배움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가 2007년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전에 내외귀빈을 모신 수료식을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가졌다. 파주시민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생활속의 문화를 정착시켜 문화의 대중화와 시민정서 함양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파주문화원 문화학교는 7기생을 배출하여 올해의 74명 수료생을 포함하여 현재 총 500여명의 수료생이 기량을 닦고 갈았다.

개설강좌는 문예창작의 기초 및 습작을 지도하는 문예창작반, 기초한자 및 논어, 맹자를 강독하는 경서강독반, 지역내 유적지를 답사하는 향토유적답사반, 각 서체를 배우고 익히는 서예반, 플룻연주를 배우는 플룻반, 가이드 전문가 과정 강의인 문화유산가이드반, 매월 넷째주 토요일 유적 현장을 답사하는 향토문화체험반으로 각 강좌는 지연희, 박찬근, 이윤희, 임제철, 백인선, 권혁노, 이윤희, 김순자 선생님이 지도했다.



제3회 자연속 맑은 콘서트



농협문화복지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메세나협회의회가 주관하는 제3회 '자연 속 맑은 콘서트'는 농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농업인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 20개 시군에서 공연되었다. 파주시 파주시민회관에서 11월2일 열린 공연에서는 오창현 매직쇼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간! 신세대 미술사가 펼쳐 보이는 환상적인 미술의 세계! 미술이 단순한 눈속임이라는 편견을 벗고, 환상적인 버라이어티 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신기하고 환상적인 비둘기 미술, 미술사의 빈 손에서 눈이 날리는 눈쇼(Snow Show) 등 미술사가 다채로운 미술 이야기를 펼쳤다.

뒤이어 진행된 '암모암모 콘서트'는 '아이들이 떠들어도 화내지 않는 음악회!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치로 객석을 들썩이게 하는 형식파괴 코믹 음악회'를 표방하며, 가족들을 즐겁게 했다.

암모암모 콘서트는 진지하고 어려운 클래식 음악에 개그맨 전유성씨의 연출을 접목한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로 2002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연 100여회 이상의 공연을 성황리에 이어가고 있으며, 새롭고 재미있는 레퍼토리와 성악가들의 재치 있고 능청스러운 연기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장포 김행 묘역, 평도공 박은 묘역

파주시 향토유적 지정



조선시대 문신이며 학자인 '장포 김행 묘역(문산을 내포리 산 24-10번지, 사진)'와 조선시대 문신

'평도공 박은 묘역(문산을 당동리 산57-1)'이 파주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됐다.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유화선 시장은 최근 진흥위원회를 열고 향토유적지정을 신청한 안건을 심의, '장포 김행 묘역'을 향토유적 제24호, '평도공 박은 묘역'을 향토유적 제25호로 각각 지정했다.

장포 김행(長浦 金行, 1532~1588)은 자(字)는 주도(周道), 호는 장포(長浦)이며 본관은 강릉김씨(江陵金氏)로 아버지는 국평(國禎)이며 어머니는 거창신씨 극효(克孝)의 딸이다.

관직으로는 성균관 전적, 형조·호조좌랑, 예조정랑, 한성부서윤을 지냈으며 외직으로 무장현감, 고양군수, 서천군수, 양주목사, 광주목사 등을 지냈다. 사후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겸 경연참찬 춘추관 수찬관, 예문관 직제학 상서원정 통훈대부를 증직 받았다.

휴암 백인걸 선생과 청송 성수침 선생으로부터 수학하였으며 월릉면 덕은리 용주서원(龍洲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묘역 내에는 김행과 전주이씨·파평윤씨 두 부인의 합장묘가 쌍분으로 조성되었고 두 봉분 중앙에 상석과 향로석이 배치되고 봉분 한 단 아래 좌우로 문인석 2기가 세워져 있다. 묘역의 좌측으로 묘갈비를 세웠는데 인조 14년(1636) 10월에 세운 비로 총높이 205cm, 비신 121cm, 폭62cm, 두께24cm의 규모이며 조인(趙寅)이

찬(撰)하고 김광현(金光炫)이 전(篆)을 썼다. 묘역 아래 우측에는 1974년에 건립된 장포선생영당(長浦先生影堂)이 위치하며 영당 내부에는 김행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평도공 박은(平度公 朴暎, 1370~1422)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 자(字)는 양지(仰之), 호는 조은(釣隱)으로 고려말 학자인 상충(尙衷)의 아들이다.

1397년(태조 6) 사헌시사(司憲侍史)를 거쳐 1401년(태종 1) 형조·호조·병조·이조의 4조 전서(典書)를 두루 역임한 후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오르고 반남군(潘南君)에 봉해졌다. 그 후 강원도관찰사, 한성부윤, 승추부제학을 역임하고 전라도관찰사, 사헌부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를 거쳐 1416년(태종 16) 5월 우의정, 같은 해 11월 좌의정 겸 판이조사, 1418년(태종 18) 세자사에 올랐다. 부원군(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시호는 평도(平度)이다.

묘역내에는 가장 상단의 박은과 부인 장흥주씨(長興周氏)와의 합장 묘를 중심으로 그 아래로 아들 참판공 박규(參判公 朴葵)묘, 박규의 부인인 원주변씨(原州邊氏)묘, 학생공 박홍기(學生公 朴弘基)묘 등 4기의 묘역이 상하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박은 묘역내에는 원형의 합장봉분 정면으로 묘비와 상석,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봉분아래 좌우로 문인석이 두 쌍씩 모두 4기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묘역 중앙에 사각의 장명등을 세웠는데 옥개석 부분은 도난당해 새로 조성했다. 봉분 우측에는 원래의 묘표와 새로 세운 묘표 2기가 세워져 있다. 묘역 입구에는 1971년에 세운 박은 신도비가 조성되어 있다.

한편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난 2002년 파주시 무형문화유산 제3호로 지정됐던 전통 짚·풀 공예제작기능 보유자 오석철옹이 타계함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했으며, '2007년도 문화예술사업계획'과 '파주시문화예술기금 조성계획'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신사임당 5만원권 화폐 인물 선정



2009년 상반기에 새로 나온 인물에 신사임당이 선정됐다. 현재 법원을 동문리에 위치한 자운서원에 율곡 이이선생과 더불어 모친인 신사임당의 묘소가 있어 파주시에서는 더욱 환영할 만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전통시대 대부분의 여성과는 달리 신사임당은 생물연대가 확실하다. 신사임당은 1504년 10월 29일(연산군10

년)에 강릉에서 태어나 1551년(명종 6년) 서울에서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 사람인 아버지 신명화(申命和)와 강릉 사람인 어머니 용인 이씨의 둘째 딸로 태어난 신사임당은 1522년 서울 사람 이원수와 결혼하여 4남 3녀를 낳았다. 조선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이 그녀의 셋째 아들이고, 16세기 또 하나의 여성 예술가 매창(梅窓)은 그녀의 맏딸이다. 그리고 막내 아들 우(隅)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그림과 글씨, 거문고에 능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사임당에 관한 기록은 율곡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후 노론이 집권하면서 서서히 등장했는데,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학문 일체를 주자(朱子)를 근간으로 하면서, 동유(東儒)로는 이이를 제일로 삼았다. 사임당의 난초 그림에 송시열이 발문을 썼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듯한데, 글의 취지는 자연과 혼연일체가 된 그림에서 “부인의 어머니됨과 선생의 아들됨이 실로 근원과 즐거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로부터 100여년 후에 나온 ‘연려실기술’에서는 “부인은 성품이 곧고 조용하며 강직하고 방정하며 문장에 능했고, 또 그림에도 해박했다. 규문법도가 심히 엄하였고, 움직일 때에는 여칙(女則)에 맞게 했으니 공(율곡)의 학문은 태교에서 얻은 것이 많았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사임당이 남긴 그림은 초충도(草蟲圖) 22점, 포도 3점, 화조(花鳥) 2점, 화조어죽(花鳥魚竹) 4점, 매화 14점, 지수초충도 8점 등이며, 그녀의 풍부한 감수성을 담은 몇 편의 시조가 전한다. 사임당은 뛰어난 작품을 남긴 작가였고, 게다가 율곡의 어머니로서 가족생활 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중세기의 한국에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자기표현의 영역을 만들어간 여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심씨 두 종중의 400년 분쟁 종결



조상의 무덤 자리를 놓고 조선시대 명문 집안인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두 문중 사이에 400년 가까이 끌어 온 산송(山訟·묘지에 관한 다툼)이 화해와 타협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및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는 심의 후 두 문중간의 화해정신을 기리고 두 종중의 타협안을 존중하여 묘지 이전을 가결하여 두 집안의 400년 갈등이 종결되었다.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대종회는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의 윤관(尹瓘) 장군묘(국가 사적 제323호) 위쪽에 조성되어 있는 조선시대 영의정 심지원(沈之瀛) 묘(경기도 기념물 제137호) 등 청송심씨 종중묘 10여기, 신도비 등을 파평윤씨 문중에서 제공하는 8천여 제곱미터 토지로 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400년을 이어온 두 집안의 묘지 다툼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고려시대 이후 한국의 대표적 명문가로 상징되는 두 문중의 산송은 16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 효종 임금 당시 영의정을 지낸 청송 심씨 문중의 심지원은 그해 부친의 묘를 파평 윤씨 윤관장군의 묘역 바로 위에 조성했으며 44년 뒤인 1658년 영의정에 올라 국가에서 이 일대 땅을 하사받아 청송심씨 문중 묘역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이후 청송 심씨 문중에서 1662년 이 곳에 심지원의 묘를 조성하였다. 심지원은 윤관 장군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채 부친을 안장하고 청송 심씨 문중묘역을 조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문중은 조선시대 왕비를 각각 4명, 3명씩 배출한 외척 가문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조가 “윤관 장군 묘 위에 모셔진 심지원 묘를 그대로 받들고 윤관 장군 묘도 그대로 받들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파평 윤씨 문중 일부 사람이 “산소 뒷부분을 누르고 있는 심지원 묘는 반드시 이장해야 한다”며 왕명에 반발하다 매를 맞고 죽는 참사가 빚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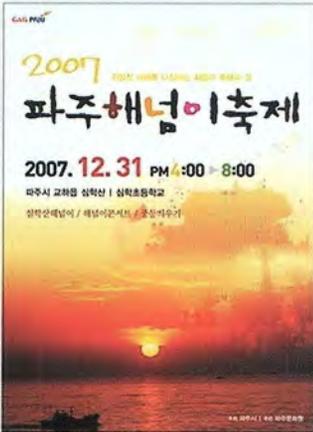
영조 임금의 절충안으로 두 문중의 산소는 현재도 그 자리에 후손들에 의해 모셔지고 있으나, 윤관 장군 묘와 심지원의 묘는 3미터 남짓 떨어져 있고 윤관 장군 묘역에 2미터 높이의 돌담이 설치되어 심지원 묘소의 앞을 가리는 등 두 문중 간에는 최근까지도 돌담 설치, 조망권, 산소 훼손 문제 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산송 문제가 2005년 두 문중 후손들에 의한 극적인 화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화해의 내용은 청송 심씨 문중에서 윤관 장군 묘역 내에 조성된 심지원 묘 및 조상의 분묘 10여기를 인근 부지로 이장하기로 하고, 파평 윤씨 문중에서 이장에 필요한 부지 8천여 제곱미터를 제공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경기도 및 중앙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심지원 묘의 이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나, 개발의 이익을 얻기 위해 문화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400여년 간 계속되어온 두 종중의 갈등을 대화와 화해로써 해소하고 새로운 화합의 문화를 정립하였다는 의미와 현 상태로 문화재를 유지한다면 두 문중의 갈등의 심화로 인해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지원 묘의 이전 신청을 가결하였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심지원 묘에 대하여 철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원형을 살려 이전하도록 하였다.



해님이축제



한해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고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2007 해님이 축제'가 12월의 마지막날인 31일, 오후4시부터 교하읍 심학산과 심학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시가 주최하고 파주문화원이 주관하는 축제는 심학초교에서 두레풍물보존회의 풍물한마당 공연으로 막이 오르고 일몰시간에 맞춰 심학산 정상에서 해님이 행사를 가졌다.

붉게 물들어 가는 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해님이 행사에서는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와 일몰에 맞춰 심학산 등산로에 설치된 청사초롱을 점화하는 시간, 한해의 소망을 적은 소원종이를 풍선에 달아 하늘로 날리는 '소원풍선 날리기' 등이 진행되었다.

이어 심학초교에서는 '해님이 콘서트'가 열려 7080세대에게 낯이 익은 '사랑과 평화'와 '건아들'이 출연했으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만일' 등을 부른 민중가수 출신 안치환이 출연,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파주문화원은 해님이 축제를 시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의식행사와 음악회 등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특성화시키는 등 시민들의 연말 테마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천상병(千祥炳) _ 1930~1993



_ 천상병시인 포스터



_ 천상병시인

경기북부와의 관련성

- 1980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거주하면서 제3시집《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외 다수의 시집을 발표하였다.

주요업적

- 시인·평론가. 본관은 영양. 호는 심온(深溫). 일본 효고현(兵庫縣) 히메지시(姫路市)에서 아버지 천두용과 어머니 김일선 사이에서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 해방후 귀국하여 마산에 정착하면서 마산중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 문단 활동은 마산중학교 5학년 때인 1949년 7월 《죽순 竹筍》에 시 〈공상 空想〉외 1편을 처음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중에는 송영택, 김재섭 등과 함께 동인지 《신작품 新作品》을 발간, 여기에 시를 발표하였다. 이어 1952년 《문예 文藝》지에 시 〈강물〉·〈갈매기〉 등으로 추천을 받았고, 1953년 같은 잡지에 평론 〈사실의 한계-허윤석론(許允碩論)〉, 1955년 《현대문학》에 〈한국의 현역대가(現役大家)〉 등을 발표하였다.
- 1964년 김현옥 부산 시장의 공보 비서로 약 2년간 재직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유일한 공직근무 기록이었다. 1967년 7월 소위 '동베를린공작단사건'에 연루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가난·무직·방탕·주벽 등으로 많은 일화를 남기며 그는 우주의 근원, 죽음과 피안, 인생의 비통한 현실 등을 간결하게 압축한 시를 썼다. 1971년 고문 후유증과 심한 음주로 인한 영양실조로 거리에서 쓰러져 행려병자로 서울 시립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행방불명, 사망으로 추정되어 문우(文友) 민영, 성춘복 등의 노력으로 유고 시집 《새》가 발간되었다. 이로써 살아있는 시인의 유고 시집이 발간되는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1972년 친구 목순복의 누이 동생인 목순옥(睦順玉)과 결혼하여 비로소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 뒤 지방으로 죽기 전까지 부인의 지극한 보살핌에 힘입어 왕성한 창작 활동을 보였다.
- 그 뒤 제2시집 《주막에서》(1979)와 제3시집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1984), 제4시집 《저승 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1987), 제5시집 《요놈 요놈 요이쁜 놈》(1991)을 펴냈다. 그의 시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서정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순수성을 되비쳐 보여준다. 동시에 가까운 이러한 순진성은 가난과 죽음, 고독 등 세상사의 온갖 번거러움을 걸러내고 있으며 일상적인 쉬운 말로 굳더더기 없이 간결 명료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그밖에 저서로 중광, 이외수와 함께 3인 시집 《도적놈 셋이서》(1989), 시선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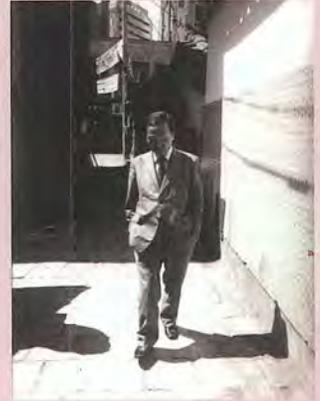
《귀천 歸天》(1989)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1991), 문학선 《구름 손짓하며는》(1985), 산문집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1990), 동화집 《나는 할아버지다 요놈들아》(1993) 등이 있다. 유고집으로 시집 《나 하늘로 돌아가네》(1993)와 수필집 《한낮의 별빛을 너는 보느냐》(1994)가 있다.

- 그는 1988년 만성 간경화증으로 춘천 의료원에 입원하여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기적적으로 소생하였고, 1993년 4월 28일 오전 11시 20분 의정부 의료원에서 별세하였다. 2003년 정부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추서하였고 2004년부터는 '천상병 예술제'가 개최되고 있다.

주요 현상사업

- 사업명 : 천상병예술제
 - 주최/주관 : 경기문화재단/천상병기념사업회
 - 최초개최년도 : 2004년
 - 개최시기 : 4월중
 - 축제의 유래 및 특성
 - : '문단의 마지막 순수시인' 또는 '문단의 마지막 기인(奇人)'으로 불리던 우리세대 누구보다도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던 천상병 시인, 그 천진난만 했던 시인의 삶과 아름다운 시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행사임.
 - 기대효과
 - : 우리시대의 마지막 순수시인인 천상병예술제를 개최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
 - : 향후 연례적 행사를 통해 의정부 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의 대표적인 문학예술축제로 정착
 - 축제행사종목

: 천상시화전	: 천상무용제 '귀천'
: 천상백일장대회	: 시인과의 만남
: 천상음악회	: 기타 부대행사



_ 천상병시인



_ 천상병시인과 묵순옥 여사

《참고문헌》 '새'의 懊惱-천상병론(金聖旭, 詩文學 13, 1972.8.), 순결과 객관의 미학(金禹昌, 창작과 비평 51, 1979.3.), 새로운 가능성의 시(洪起三, 세계의 문학 13, 1979.9.), 우리시대의 괴짜 천상병과 박봉우(하인두, 월간중앙 159, 1989.4).

※ 자료제공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임창순(任昌淳) _ 1914~1999. 4. 12



_ 임창순 포스터



_ 임창순

- 1963년 11월 3일 태동고전연구소를 설립하여 동양학 한국학 분야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1974년 태동고전 연구소(지곡서당)를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로 옮기어 후학양성에 힘쓰.
- 한학자·금석학자·서예가·역사학자. 호는 청명(靑溟), 본관은 풍천.
- 충북 옥천군 청산면 법화리(法禾里)에서 아버지 임원재(任元宰)와 어머니 김영례(金永禮)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4세 때 조부 임경호(任敬鎬)로부터 천자문을 배웠고, 가난한 살림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가 14세 때 보은의 서당 관선정(觀善亭)에 들어가 겸산(兼山) 홍치유(洪致裕)선생에게 6년간 한학을 수학하였다. 이후 대구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해방 후 중등교원 자격시험에 응시, 국사·국어 두 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경북중학교·경북고녀(경북여중)의 교사를 거쳐 대구사범 동양의학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1954년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되었다.
- 성균관대학교 재직 중에 4·19가 일어나자 '4·25 교수데모'를 주도해 성명서에 "대통령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문구를 넣을 것을 주장하고,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 글씨를 직접 썼다. 4·19 이후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에 통일방안 심의위원으로 참가해 활동하였다.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이 단체에 참가한 것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해직되었다. 1964년에는 '인민혁명단'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한차례 옥고를 치렀다.
- 1963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동에 한문교육기관인 '태동고전연구소'를 창설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문강좌를 개설하였다. 1974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로 태동고전연구소(지곡서당)를 옮기어 후학 양성에 힘썼다. 1976년부터 매년 10명씩 선발해 3~5년간 매월 장학금을 주고 한문교육을 시켰다. 1985년에는 태동고전연구소 부지와 서적 등 일체를 한림대학교에 기증하고, 연구소의 운영을 학교에 맡겼다. 이로써 한림대학교 부설 태동고전연구소로 발족하고, 1999년 4월 12일 작고할 때까지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연구인재를 배출하였다. 태동고전연구소에서 배출한 인재는 180여명으로 이 중 40여명이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80여명의 박사가 배출되어 대학과 연구기관 박물관등에서 연구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 1971년 문화부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1997년 사임하기까지 두 차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서지학회를 재창립해 두 번에 걸쳐서 회장을 맡아 계간 《서지학보》를 발행하였다. 세 차례 서예전시회를 가졌으며, 1990년도 제2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 《한국금석집성 韓國金石集成》을 비롯해 금석학에 대한 저술을 남겼으며, 《한국의 서예》 등 서예 및 서예사에 관한 여러 편의 저술을 남겼다. 《당시정해

15월 문화인물 |
임창순(任昌淳) _ 1914~1999

唐詩精解》·《한문강좌 漢文講座》를 저술했고, <무술오작비소고 戊戌塲作碑少考> 등 한국사 관련 논문과 약 30여 편의 해제를 썼다. 민족문화추진회 고전번역사업에 참여해 《동문선 東文選》 등을 공역했으며, 《국역성호질서》 등을 감수하였다.

- 작품으로는 경북궁 건순각(健順閣)현판, 경북 직지사 대양문(大陽門)현판 등이 있다.
- 1979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199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으로부터 명예문학박사를 받았다. 1998년에는 사재를 모두 출연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통일운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명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_ 임창순

《참고문헌》 이 사람이 사는 법-학자 임창순씨-(이이화, 샘이 깊은 물 1986년 4월 호), 4·25교수데모에 앞장선 한학·금석문의 대가(이이화, 역사비평 1992년 여름호), 特別企劃 元老書藝家探訪-靑溟 任昌淳 先生-(沈載榮, 書通 26, 1991년 9월호), 학의 몸짓으로 높이 멀리(청명선생추모사업회, 한길사, 2000).

* 자료제공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최영(崔瑩) _ 1316(충숙왕 3)~1388(우왕 14)

경기북부와와의 관련성

-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에게 잡혀 고향인 고봉현(高峯縣 : 지금의 경기도 고양)으로 유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묘소 소재

주요업적

- 고려 후기의 명장·재상. 본관은 창원(昌原). 평장사(平章事) 유청(惟淸)의 5세손, 사헌규정(司憲糾正) 원직(元直)의 아들이다. 풍채가 괴걸하고 힘이 뛰어났다.
- 처음에 양광도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 휘하에서 왜구를 토벌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워 우달치(于達赤 : 司門人)가 되었다. 1352년(공민왕 1)에 안우(安祐)·최원(崔源) 등과 함께 조일신(趙日新)의 난을 평정하여 호군(護軍)이 되었고, 1354년에 대호군이 되었다. 당시 원나라에서 고려에 원병을 청하자 유탁(柳濯)·염제신(廉悌臣) 등 40여 명의 장수와 함께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원나라에 갔다. 그 때 원나라의 승상(丞相) 탈탈(脫脫) 등을 쫓아 중국 가오유(高郵) 등지에서 싸웠다. 1355년에는 회안로(淮安路)에서 적을 막았으며 팔리장(八里莊)에서 싸워 몽명을 떨친 뒤 돌아왔다. 이듬해부터 고려가 배원정책(排元政策)을 쓰게 되자 서북면병마부사(西北面兵馬副使)로 서북면병마사 인당(印棠)과 함께 원나라에 속했던 압록강 서쪽의 8참(站)을 공격하여 파사부(婆娑府 : 九連城) 등 3참을 쳐부수었다. 1357년 동북면체복사를 거쳐 이듬해 양광전라도왜구체복사(楊廣全羅道倭寇體覆使)가 되어 배 400여 척으로 오예포(吾義浦)에 침입한 왜구를 복병을 이용해 격파하였다.
- 1359년 흥건적 4만 명이 침입하여 서경(西京)을 함락시키자, 여러 장수와 함께 생양(生陽)·철화(鐵和)·서경·함종(咸從) 등지에서 적을 무찔렀다. 이듬해 평양윤 겸 서북면순문사를 거쳐 그 이듬해 서북면도순찰사(西北面都巡察使)·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가 되었다. 1361년에 흥건적 10만 명이 다시 침입해 개성을 함락시키자, 이듬해 안우·이방실(李芳實) 등과 함께 이를 격퇴하여 개성을 수복하였다. 그 공으로 훈(勳) 1등에 도형벽상공신(圖形壁上功臣)이 되었고 전리판서(典理判書)에 올랐다. 이어 양광도진변사(楊廣道鎭邊使)를 겸하였다가 도순문사를 겸하였다.
- 1363년에는 김용(金鏞)이 공민왕을 시해하려 했던 흥왕사(興王寺)의 변(變)을 평정시켰다. 그 공으로 훈 1등에 진충분의좌명공신(盡忠奮義佐命功臣)이 되었고, 이어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거쳐 찬성사(贊成事)가 되었다.
- 1364년 원나라에 있던 최유(崔濡)가 덕흥군(德興君 : 충선왕의 셋째아들)을 왕으로 받들고 군사 1만 명으로 압록강을 건너 선주(宣州 : 평안북도 선천)에 웅거하였다. 이에 서북면도순위사(西北面都巡慰使)로서 이성계(李成桂) 등과 함께 수주(隨州 : 평안북도 정주의 달천(獺川)에서 싸워 물리쳤다. 또, 연주(延州 : 평안북도 운산)에 침입한 동녕로만호(東寧路萬戶) 박백아대(朴伯也大)를 장수를 보내 격퇴시켰다. 이듬해 교동(喬桐)·강화(江華)에 왜구가 출몰하자 동서강도



최영장군 포스터



최영장군 묘소
(경기도기념물23호,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16월 문화인물 |
 최영(崔瑩) _ 1316~1388

지휘사(東西江都指揮使)가 되어 동강(東江)에 나가 지켰다. 이 때 신돈(辛旽)의 참소로 계림윤(鷄林尹)으로 좌천되었다가 귀양길에 올랐다. 1371년 신돈이 처형되자 6년 만에 풀려나 다시 찬성사가 되었다. 1373년에는 육도도순찰사(六道都巡察使)로 있으면서 군호(軍戶)를 편적(編籍)하여 전함(戰艦)을 만들게 하였다. 또,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들로부터 쌀을 거두어 군수(軍需)에 보충함으로써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도 하였다.

- 1374년 경상·전라·양광도도순문사가 되었을 때, 육도도순찰사 시절에 6도를 혼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대사헌 김숙명(金續命) 등의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도리어 김숙명이 파면되고 진충분의선위좌명정란공신(盡忠奮義宣威佐命定亂功臣)의 호가 하사되었다. 그 해 명나라가 제주도의 말 2,000필을 요구하였는데, 제주도의 목호(牧胡)이 300필만 보내왔다. 이에 제주도를 치기로 하고, 양광·전라·경상도도통사(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가 되어 도병마사 염흥방(廉興邦)과 함께 전함 314척과 군사 2만 5,600명을 지휘, 제주도를 평정하였다. 그리고 1375년(우왕 1)에는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올랐다.
- 1376년 연산(連山) 개태사(開泰寺)에 침입한 왜구에게 원수(元帥) 박인계(朴仁桂)가 패배하자, 민심이 흉흉하였다. 이 때 왜구를 이끌고 출정하기를 자원하여 홍산(鴻山 :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으며, 그 공으로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377년에는 도통사가 되어 강화·통진(通津) 등지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한편, 왕으로 하여금 교동·강화의 사전(私田)을 혁파하여 군사(軍資)에 충당하게 하였다. 이 무렵 왜구가 침입하여 개성을 위협하므로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군사로서 굳게 지킬 것을 주장하고 이를 반대하였다. 1378년 왜구가 승천부(昇天府 : 지금의 淵德)에 침입하자, 이성계·양백연(楊伯淵) 등과 함께 적을 섬멸하고 그 공으로 안사공신(安社功臣)이 되었다. 1380년에는海道도통사(海道都統使)가 되어 동서강(東西江)에 나가 왜구를 막다가 병에 걸렸다. 이 때 왕은 공을 기록한 철권(鐵券)과 공을 치하하는 교서를 내렸다. 이듬해 아버지에게는 순충아량염검보세익찬공신(純忠雅亮廉儉輔世翊贊功臣)·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판문하사(判門下事)·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상호군(上護軍)·동원부원군(東原府院君)이 증직되고, 어머니 지씨(智氏)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이 되었다. 그 자신은 수시중(守侍中)이 되었다가 이어 영삼사사(領三司事)를 지냈고, 1384년 문하시중을 거쳐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에 올랐다.
- 1388년 다시 문하시중이 되어 왕의 밀령(密令)으로 부패와 횡포가 심하던 염흥방·임견미(林堅味)와 그 일당을 숙청하였다. 그 해 그의 딸이 우왕의 비(寧妃)가 되었다. 이 때 명나라가 철령위(鐵嶺衛)의 설치를 통고하고 철령 이복과 이서·이동을 요동(遼東)에 예속시키려 하였다. 이에 요동정벌을 결심하고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왕과 함께 평양에 가서 군사를 독려하였다. 한편, 좌군도통사 조민수(曹敏修), 우군도통사 이성계로 하여금 군사 3만 8,800여 명으로 요동을 정벌하게 하였으나,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하여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함으로써 요동정벌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이렇게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고 기세가 오른 이성계의 막강한 원정군을 막지 못하여 결국 도성을 점령당하고 말았다. 이는 고려 말기의 군벌(軍閥) 대립에서 고려왕조를 수호하려는 구파 군벌이 고려왕조를 부정하려는 신진 군벌에게 패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강직용맹하고 청렴했던 그는 이성계에게 잡혀 고향인 고봉현(高峯縣 : 지금의 경기도 고양)으로 유배되었다. 그 뒤 다시 합포(合浦 :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충주로 옮겨졌다가 공료죄(攻遼罪 : 요동을 공격한 죄)로 개성에 압송되어 순군옥(巡軍獄)에 갇혔고, 그 해 12월에 참수(斬首)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개성 사람들은 저자의 문을 닫고 슬퍼하였으며, 온 백성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성계는 새 왕조를 세우고 나서 6년 만에 무민(武愍)이라는 시호를 내려 넋을 위로하였다. 개풍군(開淵郡) 덕물산(德物山)에 있는 그의 무덤은 풀이 나지 않는다 하여 적분(赤墳)으로 불린다. 그 산 위에는 장군당(將軍堂)이 있어 무당들에게 숭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崔瑩(金庠基, 朝鮮名人傳, 朝鮮日報社, 1939), 崔瑩(閔丙河, 韓國의 人間像 2, 新丘文化社, 1965

* 자료제공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이규채(李圭彩) _ 1888(고종 25)~1948

경기북부와의 관련성

- 1888년(고종 25) 경기도 포천(抱川) 가산면 방축리에서 출생
- 1908년부터 1910년까지 청성학교에서 후진양성
- 방축리에 「이규채선생 행적비」 소재

주요업적

-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공삼(公三) 호는 경산(庚山)·동아(東啞)·우정(宇精). 일명 규보(圭輔). 아버지는 철영(喆榮)이다.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防築里) 출신.
- 1908~1910년까지 청성학교(靑城學校)에서 교편을 잡고 후배교육에 힘썼다.
-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자 교육계에서 물러나 한학(漢學)과 서예에 정진하면서 때를 기다리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 3·1운동 이후 창신서화연구회(創新書畵研究會)를 창설하여 회장으로 취임하여 남녀 학생을 상대로 비밀리에 항일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경찰에 발각되자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였다. 이후 상해혁명자동지회(上海革命者同志會)에 가입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선봉대로서 중국의 각지를 활동하여 일본의 군사실과 일본인 거류지를 습격, 방화하였다.
- 1924년 12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 1930년 7월 26일 한족자치연합회를 모체로 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키 위한 목적으로 홍진(洪震)·신숙(申肅)·남대관(南大觀)·지청천(池靑天) 등이 중심이 된 한국독립당이 창설되자 정치부의원 겸 군사부 참모장으로 활약하였다. 1932년 3월 조경한(趙擎韓), 이증선(李鍾善) 등과 함께 아성현(阿城縣) 영발둔(永發屯)에 있는 중국군 사령관 고봉림(考鳳林)과 참모장 조린(趙麟) 등을 탐방하여 한·중군의 공동항일전 합작을 협의하였다. 이어 한국독립당의 총무위원장이 되어, 1933년 본부를 만주(滿洲)에서 북경(北京)으로 옮기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남경에 본부를 두고 있던 신익희(申翼熙)·윤기섭(尹琦燮) 등의 한국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이 제휴하여 1933년 10월 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으로 발전적 통일을 보게 되었다. 1934년 신한독립당의 감찰위원장으로 피선되어 항일독립운동을 하다가 1935년 9월 25일 상해에서 일본경찰에 붙잡혀 그해 경성지방법원에서 10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다 1940년 가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도 항상 일본경찰의 감시 속에 나라의 광복을 염원하면서 생전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어머니의 묘 앞에서 여막을 짓고 3년간 정성을 다하였다.
- 1945년 광복 후 정계 일선에서 국가재건을 위하여 애쓰는 한편, 단군전봉건회(檀君殿奉建會)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신탁통치반대 국민연맹위원직과 미소공동회의대책 국민연맹 대표위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회장으로 큰 공을 세웠으며, 대중교 총본사 정의참의(政議參議)등을 역임하였다.



_ 이규채선생 포스터



_ 이규채선생

| 7월 문화인물 |
이규채(李圭彩) _ 1888~1948

- 그는 문무(文武)를 겸비하였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부모에 대한 효성이 매우 지극하였으며, 정교(政敎)가 한결같았다.
- 출생지인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행적비(行蹟碑, 향토유적 제10호)가 세워져 있다.
- 1963년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국외용의조선인명부(총독부경무국), 무장독립운동비사(채근식, 1947),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971).

* 자료제공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_ 이규채선생 행적비

송익필(宋翼弼) _ 1534(중종 29)~1599(선조 32)

경기북부와의 관련성

- 파주시 교하읍 심학산에 거주하였고, 고양 구봉산(龜峰山) 아래에서 크게 문호를 벌여놓고 후진들을 양성함.

주요업적

-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운장(雲長), 호는 구봉(龜峰). 할아버지는 직장(直長) 인(璘)이고, 아버지는 판관 사련(祀連)이다. 어머니는 연일정씨(延日鄭氏)이다.
할머니 감정(甘丁)이 안돈후(安敦厚)의 천첩 소생이었으므로 가문이 보잘 것 없고 서출(庶出)인 데다가 아버지가 신사무옥(辛巳誣獄)의 밀고자였던 탓으로 벼슬길에 나가지는 못했으나 사승(師承)도 없이 성리학(性理學)과 문학에 전념, 마침내 학자로 대성하여 큰 명성을 떨쳤다. 재능이 비상하고 문장이 뛰어나 아우 한필(翰弼)과 함께 일찍부터 문명을 떨쳤고, 명문 자제들과 폭넓게 교류하였다.
- 초시(初試)를 한번 본 외에는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 몰두하여 명성이 높았다. 이이(李珣)·성혼(成渾)과 함께 성리학의 깊은 이치를 논변하였다. 특히 예학(禮學)에 밝아 김장생(金長生)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 또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서인 세력의 막후실력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586년(선조 19) 안씨 집안에서 송사를 일으켜, 안처겸의 역모가 조작임이 밝혀지고 그의 형제들을 포함한 감정의 후손들이 안씨 집의 노비로 환속되자 그들은 성명을 갈고 도피 생활에 들어갔다. 그러나 1589년 기축옥사로 신분이 회복되었다. 그 때문에 기축옥사의 막후 조종 인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뒤에 또 조헌(趙憲)의 과격한 상소에 관련된 혐의로 이산해(李山海)의 미움을 받아 한필과 함께 희천으로 유배되었다. 1593년 유배생활에서 풀려났으나 거쳐할 집이 없으므로 그를 따르는 문인의 집에서 기우(寄寓)하였다. 그 후 6년만에 충청도 면천(沔川)의 김진려(金進礪)의 집에서 별세하였다.
- 그 문학에서 김장생·김집(金集)·정엽(鄭曄)·서성(徐瀼) 등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자신의 학문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스스로 고대하게 행세하여 그의 미천한 신분과 함께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문인들이 학덕(學德)을 추모하여 상소한 끝에 지평(持平)에 추증되었다.
- 저서로는 문집인 《구봉집 龜峰集》과 명현석학(名賢碩學)들과 왕복한 서신을 모은 《현승집 玄繩集》이 있으며 파주시 교하읍 삼남리에 유허비가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_ 송익필선생 포스터



_ 송익필선생 유허비



구봉집(龜峯集)

- 판 본 : 목판본(木版本), 11권 5책.
- 소장처 : 계명대, 고려대, 규장각, 돈암서원,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 의 의

이 책은 성혼·이이와 교류하면서 성리학과 예학에 뛰어났던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아울러 동생 송한필의 학문 세계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 편 찬

송익필의 글은 처음 홍산군수(鴻山郡守)로 있던 제자 심종직(沈宗直)이 1622년(광해 14)에 시(詩)를 모으고 정엽(鄭曄)의 서문과 신희(申欽)·김장생(金長生)의 발문을 붙여 『비선구봉선생시집(批選龜峯先生詩集)』으로 간행하였다. 한편 잡저와 서(書)는 원래 송익필의 아들 송취대(宋就大)가 원고를 모아 김장생의 아들 김집(金集)에게 간행을 부탁하였는데, 김집이 뒤에 송시열(宋時烈)에게 부탁하였고, 송시열은 송시걸(宋時杰)·임방(任墮) 등을 시켜 판에 새기게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송시열은 죽기 직전 김장생의 후손인 김진옥(金鎭玉)에게 부탁하였고, 김진옥은 이희조(李熙朝)와 권상하(權尙夏)에게 편집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송익필이 이이(李瑋)·성혼(成渾) 등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현승편(玄繩編)』의 편집을 놓고 원래 형태대로 두자는 이희조의 견해와 이이·성혼과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편지 이외의 것을 제외한 송시열의 편집의도를 계승하지는 권상하의 견해가 맞서 끝내 완성되지 못하였다. 그 후 1762년(영조 38)에 김진옥의 손자인 김상성(金相聖)이 영남지방에 수령으로 있으면서 전해 받은 원고에 1622년에 간행된 시집과 자신의 아버지가 최방언(崔邦彦)에게서 구한 『가례주설(家禮註說)』, 그리고 별도로 수집된 시(詩)들을 더하여 『구봉집』 11권을 편집·간행하였다.

• 체 재

권말에 김상성의 지(識)가 있다. 권1 부(賦) 1수·시(詩) 199수, 권2 시 250수, 권3 잡저 4편·제문 3편·명(銘) 2편·애사(哀辭) 1편, 권4 현승편(玄繩篇), 권5 현승편, 권6 예문답(禮問答), 권7 가례주설(家禮註說), 권8 가례주설, 권9 가례주설, 권10 부록으로 소(疏) 3수·행장·묘갈문·묘표음기(墓表陰記)·제문(祭文)·시집후서(詩集後序) 3편, 권11 아우 송한필(宋翰弼)의 시문집 『운곡집(雲谷集)』.



_ 송익필선생 묘



_ 송익필선생 묘

◀참고문헌▶ 中宗實錄, 宣祖實錄, 龜峯集, 宋子大全, 燃藜室記述, 경기인물지(경기도,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자료제공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어유소(魚有沼) _ 1434(세종 16)~1489(성종 20)

경기북부와의 관련성

- 묘소와 신도비, 사당, 사패지경계석이 동두천시에 소재

주요업적

- 조선 초기의 무신.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자유(子游). 아버지는 무장 득해(得海). 시호는 정장(貞莊)이다.
- 1451년(문종 1) 내금위에 선발되었다가 1456년(세조 2) 3월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사복시직장(司僕寺直長)·감찰(監察)을 역임하였다. 1460년 북방의 야인 정벌에 공을 세워 통례문통찬(通禮門通贊)으로 승진하고 이듬해 품계가 올라 절충장군(折衝將軍)이 되었다.
- 1463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회령부사가 되고, 1467년 이시애(李施愛)가 반란을 일으키자 좌대장으로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청·경성·만령 등지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 난이 평정되자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으로 예성군(藥城君)에 봉해지고 평안도 병마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다. 그 해 겨울 명나라가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할 때 조선에 병사를 요청하자 나아가 공을 크게 세웠다. 돌아와 공조판서가 되고, 건주위 정벌의 공로로 2등 공신에 봉해지고 명나라 황제로부터 상을 받았다.
- 1468년 부친상을 당하고 물러났으나 그 해 예중이 즉위하자 기복해 예성군으로 오위장(五衛將)을 겸하였다. 1469년 함경북도절도사가 되고, 이듬해 영안북도병마절도사 겸 경성부사가 되었다. 1471년(성종 2)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봉해졌으나 곧 모친상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그 해 7월 다시 기복해 영안도순찰사로 나갔고 8월에는 또다시 승정대부로 예성군 겸 영안북도절도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북도 방어에 없어서는 안될 무장으로서 임기를 두 차례나 넘기면서 머물렀다. 1475년 우참찬 겸 영안북도절도사가 되었다가 평안도순찰사로 옮겼다. 1477년 병조판서, 이듬해 의정부우찬성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문신들의 반대로 우찬성으로 다시 돌려졌다.
- 1479년 명나라의 요청으로 다시 건주위 정벌을 하게 되자 서정대장(西征大將)에 추천되어 1만 군사를 이끌고 만포진에 이르렀으나 여건이 좋지 않아 자의로 회군하여, 탄핵을 받고 경기도 그의 농장 근처로 좌천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양근군(陽根郡)으로 유배되었다.
- 그러나 성종은 그의 무재를 아껴 대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해 말에 고신(告身)을 돌려주고 이듬해 이조판서 겸 오위도총관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문신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행동지중추부사로 물러앉았다.
- 1482년 10월에는 부령에 거주하는 향화야인(向化野人)의 쇠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안도순찰사가 되고, 1488년 판중추부사 겸 도총관이 되었다.



_ 어유소장군 포스터



_ 어유소장군

- 묘소와 신도비(동두천시 향토유적 제4호)는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고 사당(동두천시 향토유적 제7호)은 동두천시 탑동에 있다. 또한 장군이 성종 때 왕과 함께 어등산에 올라 화살을 쏘아 맞혀 솔개가 떨어진 지점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패지경계석(동두천 향토유적 제1호)이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成宗實錄, 故事撮要, 東閣雜記, 燃藜室記述, 海東雜錄, 경기인물지(경기도,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자료제공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_ 어유소장군



_ 사패지경계석
(동두천시 소재, 향토유적1호)



_ 어유소장군묘
(동두천시 소재, 향토유적4호)



_ 어유소장군위패(동두천시 소재)



_ 어유소장군 사당(향토유적7호)



윤덕진(魚有沼) _ 1434(세종 16)~1489(성종 20)

경기북부와의 관련성

-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전통복 제작 및 후진 양성

주요업적

- 윤덕진은 파평 윤씨 문숙공(文肅公) 윤관(尹瓘)의 35대 손으로 그의 할아버지 윤억판(尹億判)때부터 복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 그의 아버지 윤랑구(尹郎九), 윤덕진과 그의 아들 종국, 신, 일권, 4형제와 사위 김연수 4대를 잇는 북만들기 집안이다. 7세에 복의 소비성을 따라 아버지 윤랑구가 전남 순천시 동해동으로 이사한 뒤 17세부터 복을 다루는 일을 시작하여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 윤덕진은 남들보다 3년 늦게 순천남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 22세에 '여순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1950년 경찰에 투신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1954년 부상을 당하기까지 서너 해를 제외하곤 망치를 놓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로는 유일하게 전통악기를 다루는 고장(鼓匠)이다.
- 1961년에는 경제가 침체되고 복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2년간 거주하다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5년간 복을 만들어 종로에 운집한 만물상과 유기전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다가 1981년 구리시 교문동 딸기원마을에 20여 평의 공방을 차려놓고 86아시아 게임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새로운 인식으로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했다.
- 1989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면서, 딸기원공방을 떠나 1991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무시울에 「한국전통복전수소」를 개설하여 후계자를 양성하였다.
- 1991년 5월1일 65세의 윤덕진은 마침내 중요무형문화재 제63호 복메우기로 지정되었다.
- 하지만 윤덕진 자신이 여기까지 오르게 한 구리시에 대한 미련은 계속 남아있었고, 1994년 그의 뜻을 간파한 구리시에서는 구리시가 문화의 도시, 전통의 도시로 발돋움하기에 그가 필요했고 마침내 구리시 수택동 구리문화원 지하에 공방을 차리므로 구리시의 대표적 문화인물로 남게 된다.
- 그 후 좁고 답답한 수택동 공방에서 1997년 토평동 현 위치로 자리를 옮겨 오늘에 이르며, 최근 중요무형문화재 통폐합에 의거 제42호 악기장으로 되었다. "아무리 신출귀몰한 재주라도 대가 끊기면 세상에서 사라지는 법, 조상이 만들어 온 신비의 복소리가 우리 집안을 통해 전승되겠거니 하니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순박한 그의 말투에서는 장인이기보다는 도인에 가깝다.



_ 윤덕진 포스터

- 윤덕진 선생과 그의 가족이 만드는 북의 종류는 전통북 24가지이다. 대표적인 북으로는 민속촌의 대고, 국립극장의 용고, 88올림픽 개막을 알리던 한강 위의 용고(龍鼓, 지름 1.5m), 청와대의 문민고, 정부종합청사의 신문고, 일본 오오사카에서 매년 열리는 "시천대왕 내가왔소"의 대북 4개가 그의 작품이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사용된 그의 작품이 모두 1천1백74개인데 대북(용고)이 3개, 줄북이 5백 17개, 소고가 6백50개이다. 충북 제천의 강천사의 법고는 6마리의 소가죽으로 만든 지름이 2.6m으로 제작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된다. 구리시청 앞의 고구려북도 그의 작품으로 생전의 마지막 작품이다.
- 현재 윤덕진선생의 장자인 윤종국이 구리시에서 4대째 북메우기 전승의 맥을 잇고 있다.

《참고자료》 윤관 : 고려시대의 명신·명장. 여진을 정벌하다 실패해 벌무반을 창설하여 군대를 양성, 여진 정벌군의 원수로 9성을 쌓아 침범하는 여진을 평정했다. 그 뒤 여진은 9성의 환부와 강화를 요청했고 조정은 9성을 지키기 어렵다 하여 여진에게 돌려주었다.

홍랑(洪娘) _ 생몰년 미상



_ 홍랑 포스터



_ 홍랑의 묘소와 묘비

경기북부와와의 관련성

- 고죽 최경창 묘소가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울리에 묘소와 홍랑가비(洪娘歌碑)가 있음

주요업적

- 조선 중기의 기생, 흥원 출생.
- 1573년(선조 6) 가을에 당시 삼당시인(三唐詩人) 또는 팔문장(八文章)으로 불리던 최경창(崔慶昌)이 북도평사(北道評事)로 경성에 갔을 때, 그녀도 따라가 그 막중(幕中)에 있었다.
- 이듬해 봄에 최경창이 서울로 돌아오자 쌍성(雙城)까지 따라와 작별하고, 돌아가다가 함관령(咸關嶺)에 이르러 시조 1수를 지어 최경창에게 보냈다.
- 그 뒤 3년 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최경창이 병석에 누웠다는 말을 듣고 즉일로 떠나 7주야 만에 상경하였다. 그 때 양계(兩界 : 평안도 · 함경도)에 금(禁)함이 있고, 당시 국상증으로(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 이것이 문제가 되어 최경창은 관직이 면직되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 고죽이 죽은 후 홍랑은 파주에 있는 묘소를 지켰으며 임진왜란 때 고죽의 시고를 짚어지고 피난하여 병화를 모면케 했다. 고죽집이 오늘날까지 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홍랑이 죽음을 무릎쓰고 간직한 덕분이다. 홍랑이 죽은 후 고죽의 자손들이 고죽의 무덤 바로 밑에 장사를 지내 준 것도 바로 그녀의 희생적인 행적을 기리기 위한 것일 것이다.
- 홍랑의 시조는 바로 이『孤竹集』에 전해지며 국문학사에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뫼터들 곁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는 창맛기 심겨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님곳 나거든 나린가도 너기쇼셔

(擇折楊柳寄千里 人爲試向庭前種 須知一夜生新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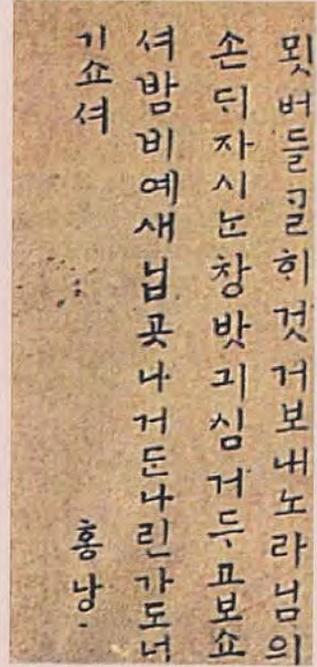
- ▶ 이별을 당해 버들을 꺾어주는 것은 하나의 관례적 행위로서 버들을 꺾는다는 말에는 이별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버들은 생명력이 강해 꺾어준 가지를 심어두면 쉽게 뿌리를 내리고 새파란 새잎을 피운다. 이처럼 자신들의 사랑도 시들지 말자는 다짐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버들은 상징적 의미

를 넘어 홍랑 자신이다. 홍랑은 이별을 당해 버들에 그 자신을 실어 고죽에게 보낸 것이다.

- ▶ 창은 방안에서 밖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통로이다. 그리고 안에서 밖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공간의 가장 가까운 곳에 홍랑은 자신이 보낸 버들을 심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 ▶ 또한 홍랑은 자신의 모습을 밤비에 난 새잎으로 표현하고 있다. 밤비는 비가 지나는 풍요와 축복의 이미지가 강화된 것이다. 홍랑은 비록 헤어져 있지만 새잎으로 전신하여 고죽과의 사랑을 지속하고자 한 것이다.

최경창과 홍랑 연구(권순렬, 한국고시기문학회, 2004)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國文學全史(李乘岐·白鐵, 新丘文化社, 1959)



_ 뫇버들 시조의 원본 사진

허목(許穆) _ 1595(선조 28)~1682(숙종 8)

경기북부와의 관련성

- 경기도 연천의 향리이고, 묘소가 연천군 왕징면에 소재

주요업적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문보(文甫)·화보(和甫), 호는 미수(眉馬).
- 찬성 자(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별제 강(良)이고, 아버지는 현감 교(喬)이며, 어머니는 정랑 임제(林梯)의 딸이다. 부인은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손녀이다.
- 1615년(광해군 7) 정언눌(鄭彦竊)에게 글을 배우고, 1617년 거창현감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가서 문위(文緯)를 사사하였다. 또한 그의 소개로 정구(鄭述)를 찾아가 스승으로 섬겼다. 1624년(인조 2) 광주(廣州)의 우천(牛川)에 살면서 자봉산(紫峯山)에 들어가 독서와 글씨에 전념해 그의 독특한 전서(篆書)를 완성하였다.
- 1626년 인조의 생모 계운궁 구씨(啓運宮具氏)의 복상(服喪)문제와 관련해 유신(儒臣) 박지계(朴知誠)가 원종의 추승론(追崇論)을 제창하자, 동학의 재임(齎任)으로서 임금의 뜻에 영합해 예를 혼란시킨다고 유벌(儒罰)을 가하였다.
- 1638년 의령의 모의촌(慕義村)에서 살다가 1641년 다시 사천으로 옮겼다. 그 뒤 창원·칠원(漆原) 등지로 전전하다가 1646년 마침내 경기도 연천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음 해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상중에 《경례유찬 經禮類纂》을 편찬하기 시작해 3년 뒤에는 상례편(喪禮篇)을 완성하였다.
- 1650년(효종 1) 정릉침봉에 제수되었으나 1개월 만에 사임하였다. 이듬해 내시 교관이 된 뒤 조지서별좌(造紙署別坐)·공조좌랑 등을 거쳐 용궁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57년 공조정랑에 이어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효종을 만나 소를 올려 군덕(君德)과 정폐(政弊)를 논하고 사임을 청하였다. 그 뒤 사복시주부로 옮겼으나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 1659년 장령이 되어 군덕을 논하는 소를 올렸으며, 또한 당시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이 주도하는 북벌정책에 신중할 것을 효종에게 간하는 옥계명(玉廓銘)을 지어 바쳤다. 이어 둔전의 폐단을 논하였다. 그 해 효종이 죽자 소를 올려 상례를 논했고,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 1660년(현종 1) 경연(經筵)에 출입했고, 다시 장령이 되었다. 그 때 효종에 대한 조대비(趙大妃 : 인조의 繼妃)의 복상기간이 잘못되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소해 정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이를 기해복제라 한다.
- 이러한 복제논쟁의 시비로 정계가 소란해지자 왕은 그를 삼척부사로 임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향약을 만들어 교화에 힘썼으며, 《척주지 陟州誌》를 편찬하는 한편, 《정체전중설 正體傳重說》을 지어 삼년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1674년 효종 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조대비의 복제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 이로써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의 집권과 더불어 그는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그러



_ 허목선생 포스터



_ 허목선생

나 사직소를 올렸고, 병이 나자 숙종은 어의를 보내어 간호하기까지 하였다. 1675년(숙종 1) 이조참판·비국당상(備局堂上)·귀후서제조(歸厚署提調) 등을 거쳐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승진하고, 의정부우참찬 겸 성군관제조로 특진하였다.

-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승진되어 과거를 보지 않고도 유일(遺逸)로서 삼공(三公)에 올랐다. 그 해 덕원(德源)에 유배중이던 송시열에 대한 처벌문제를 놓고 영의정 허적(許積)의 의견에 맞서 가혹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남인은 송시열의 처벌에 온건론을 주장하던 탁남(濁南)과 청남(淸南)으로 갈라졌고, 그는 청남의 영수가 되었다.

- 그 뒤 지덕사(至德祠)의 창건을 건의하고, 체부(體府)·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지패법(紙牌法)·축성(築城) 등을 반대했으며, 그 해 왕으로부터 궤장(廓杖)이 하사되었다. 이듬해 차자(筭子)를 올려 치병사(治兵事)·조병거(造兵車) 등 시폐(時弊)를 논하였다. 특명으로 기로소당상(耆老所堂上)이 되었는데 음사(蔭仕)로서 기로소에 든 것은 특례였다.

- 1677년 비변사를 폐지하고 북벌준비를 위해 체부를 설치할 것과 재정보전책으로 호포법(戶布法) 실시를 주장하는 윤희(尹瑱)에 맞서 그 폐(弊)를 논하고 반대하였다. 이듬해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낙향해, 나라에서 집을 지어주자 은거당(恩居堂, 경기도 연천군 소재)이라 명명하였다.

1679년 강화도에서 투서(投書)의 역변(逆變)이 일어나자 상경해 영의정 허적의 전횡을 맹렬히 비난하는 소를 올렸다. 이듬해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양성에 전심하였다.

- 그는 이기론(理氣論)에 있어서 기(氣)는 이(理)에서 나오고 이는 기에서 행하므로, 이기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독특한 도해법(圖解法)으로 해설한 《심학도(心學圖)》와 《요순우전수심법도(堯舜禹傳授心法圖)》를 지어 후학들을 교육하였다.

사후 1688년 관작이 회복되고, 숙종은 예장(禮葬)의 명령을 내려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했으며, 자손을 등용하도록 하고 문집을 간행하게 하였다. 그림·글씨·문장에 모두 능했으며, 글씨는 특히 전서에 뛰어나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작품으로 삼척의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시흥의 영상이원익비(領相李元翼碑), 파주의 이성중표문(李誠中表文)이 있고, 그림으로 묵죽도(墨竹圖)가 전한다. 저서로는 《동사(東事)》·《방국왕조례(邦國王朝禮)》·《경설(經說)》·《경례유찬(經禮類纂)》·《미수기언(眉馬記言)》이 있다.

- 1691년 그의 신위(神位)를 봉안하는 사액서원으로 미강서원(岷江書院)이 마전군(麻田郡)에 세워졌고, 나주의 미천서원(眉川書院), 창원의 회원서원(檜原書院)에도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허목수고본
(허목선생이 쓴 수필원고본)



허목선생 신도비(연천군 왕징면)



은거당(숙종이 하사한 집, 연천군 왕징면) 옛터

《참고문헌》 顯宗實錄, 肅宗實錄, 記言, 星湖文集, 許穆의 學問과 思想(金吉煥, 韓國學報 18, 1980).

정 정

2006년 파주문화 제20호 “부록 파주문화 목차” 중 196쪽 “제17호(2003)”의 원고목차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게재합니다.

17호(2003년)

[발간사] 파주문화원장	6
[화보] 2003 파주문화 이모저모	8
[특집]	
_ 율곡철학의 현대적 의미 - 황의동(충남대 철학과 교수)	17
_ 栗谷 李珣의 도학적 인간관 - 윤사순(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5
_ 栗谷思想의 現代化 方向 - 최승순(사단법인 율곡학회 이사장, 강원대 명예교수)	33
[기획]	
_ 파주 금산리 두레놀이 해설 및 수기악보-추교현	41
(금산리민요보존회 회장 · 파주문화원 이사)	
[특별기고]	
_ 노자 도덕경과 장자의 제물론을 중심으로 - 심성구(성균관 전학 · 파주문화원 부원장)	66
[향토의 맥]	
_ 政卿圖 놀이를 再照明하면서 - 한양수(파주문화원 이사)	74
_ 내고향 掛岩의 이야기 - 광명신(파주문화원 회원)	82
_ 가는 정 오는 정 - 김호기(前 파주문예진흥회장)	86
_ 清白吏 時代를 創造하자 - 황의록(경기도 향교재단 이사)	88
[문화단신]	
_ 2003 문화예술 단신	89
[2003 문화의 인물]	133
[2003 독립 운동가]	136

❁ 파주문화원 회원 모집

- 향토문화의 보존·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하는 파주문화원에서는 파주지역 문화 발전에 관심을 가진 회원을 기다립니다.
- 회원에게는 파주문화원의 발행 자료 및 책자를 무료로 드리며,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문화제, 축제 및 다양한 답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은 문화원 사무국에 방문하셔서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향토사 자료 수집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과 향토문화의 자료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자료 : 고문서, 전적류, 문집류, 고지도, 문중보관문서, 교지류, 일반향토자료, 행정자료, 교육자료, 유적, 전설, 민담, 민요, 지방유래, 전통놀이 그 외 각종 사진류 및 영상자료 등

❁ 파주문화 원고모집

“좋은 책은 좋은 원고에서 나옵니다”

매년 발간되는 「파주문화」에 기고해 주실 참신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집필 장르 : 자유선택 (파주의 역사와 문화 관련 내용)
- 집필 분량 - 특별기고 : A4 5장 이상 - 향토의 맥 : A4 3장~4장
- 원고 마감 : 매년 10월 말일
- 보내실 곳 - E메일 접수 : pajuculture@hanmail.net
 - 우편접수 : 파주시 아동동 산 31번지 파주문화원 우편번호 413-020
 - 내방접수 : 파주문화원 사무실
- 문의 전화 : 031-941-2425, 031-948-2688
- 원고 보내실 때 유의점
 - 가.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은 신작이 더 좋습니다.
 - 나. 작품 말미에 반드시 소속과 성함 등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 급하게 연락드릴 연락처나 핸드폰 번호도 꼭 적어주세요.

2007년 제21호
파주문화

인쇄일 : 2007년 12월
발행일 : 2007년 12월
발행인 : 신준범
발행처 : 파주문화원
(031)941-2425
(031)941-2688
인쇄 : 승림 D&C
(02)2271-2581

